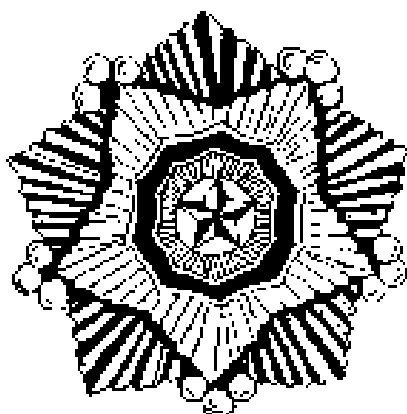




6

주제 96(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6호

(루계 제 716 호)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시가작품들	3
기묘한 유격전법	8
아 래일의 날씨	8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9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9
보천보하늘아래서	10
아, 구시물동	10
하루해는 길었어도	10
장군은 가까이 계시었다	10
보천보하늘아래서	11
대 성 산 4 계 절	11
주체문학의 대강	12
장군님과 새벽	12
6 월의 이야기	13
장 군 님 사 랑 (외 1 편)	18
대지여 다시 만나자	18
전선길과 학교길	19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	20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영광의 40 년	21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 년》이 나오기까지	26

평생을 마음속에 태양의 영상을 모시고	27
감회도 깊고 감개도 무량하다	28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태어난다 (2).....	30
《지원》의 발걸음	32
어머니의 모습	33
아이들아, 어서 크거라	43
눈우의 첫 자옥	45
소설의 격과 멋	46
나의 고지	52
해토무렵에 있는일	53
경 구 격 언	62
비단무지개 피어나는 곳에서	63
대한날의 봄빛	63
비단 《새》	63
직포공 순희가 부르는 노래	64
사랑의 력사가 흐른다	64
원 예 사 들 (외 1 편).....	65
겨 울 향 기	65
성 구, 속 담	66
새 싹	66
군민의 혈연적관계를 놓고	69
우리의 향로 (외 1 편).....	70
우리 만나자	71
언 약	72
《고전》이란 말의 어원	72
평범한 날에	73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시가작품들

최근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되었던 혁명시가작품 26편을 새로 찾아내었다.

이번에 새로 찾아낸 혁명시가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항일혁명문학사를 자료적으로 보다 풍부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편집부

조선에 김일성 나라났네

백두산에 붉은 태양 솟았네
조선에 김일성 나라났네
삼천리강산에 빛을 주는 그이
신음하는 겨레의 구성이라네

(통화)

푸르른 강산에 영웅이 나라났네

푸른 강, 푸른 산
아름다운 강산에 영웅이 났네
험준한 벼랑 뛰어넘고
사나운 비바람 웃으며 헤쳐가시네

대장군 김일성

항일의 전장에서 위훈 떨치시네
싸움이 끝나면 뒤에 서시고
돌격을 할 때면 앞장에 서시네

(압록강연안)

조선민중의 해님

고려삼씨 붉고붉어도
유격대의 기발처럼 붉지 못하네

강철이 굳고굳어도
유격대의 의지보다 굳지 못하네

압록강이 깊고깊어도

김사령의 은정보다 깊지 못하네
혁명의 수령 김일성
조선민중의 해님이시네

(압록강연안)

장백산 하늘높이 솟았네

장백산 하늘높이 솟아있고
질은 안개 허리에 감도네
높은 령에 붉은기 날리며
김일성 항일로 동포 구원하시네

장백산 높이 솟아 빛나고
봉이마다 영웅이 나오네
유격전 벌어지는 산과 들에서
김일성 군사들 용맹 떨치네

(무송)

김일성 기발드니

김일성 기발드니
천군만마 달리네

김일성 명성높아
왜놈들 벌벌 떠네

김일성 위대하여
사람들 원호하네

김일성 승전하니
모두가 환호하네

(목란툰)

김일성, 대오를 이끌고 오셨네

왜놈군대 길잡이 세우고
식량 뺏으려고 달려드니
너무도 소란하여
짐짐승도 갈광질광

그릇들 들부시고
항아리도 깨뜨린다
구들골을 뒤흔치고
부뚜막을 파헤친다

채찍질 사정없이 하면서
쌀을 감춘 곳 대라 한다
마을사람들
분노의 눈길로 쏘아보며
입을 열지 않는다

짐승같이 성난 장교놈
참다못해 이를 갈면서
졸병들에게 호령한다
기관총을 걸라고
인민들의 가슴에
불질을 하라고

그 시각 기관총 잡은 놈
황천객이 되었다
웬일인가
김일성 대오를 이끌고
인민들을 구원하러 오셨네

(무송)

김일성부대 산에서 내려왔네

여보소 벗님네들!
귀 기울이고 들어보소
압록강의 물결소리가
아닐세 물결소린 아닐세
김일성 부대 산에서 내려 왔네
철길을 끊어놓고
적병영 불사르는
돌격소리
포탄소리
총칼이 부딪치는 소릴세

여보소 벗님네들!
귀 기울이고 들어보소
송화강의 물결소리가
아닐세 물결소린 아닐세

김일성 부대가 산에서 내려왔네
다리를 폭파하고
돌진해나가는
나팔소리
웨침소리
천지를 뒤흔드는 소릴세

(연길)

북두성 빛나네

불빛이 비치네
방안을 환히 밝히네
김일성 장군 지휘원들 마주하시고
적병영 기습할 작전 세우시네

북두성 빛나네
밤길을 환히 비치네
김일성 장군 산에서 내려오시니
왜놈들 살구멍 찾아 뛰네

(길림)

조선빨찌산은 천신이야

백두산아래에 전장이 펼쳐지고
압록강 량안에 불길이 타오른다

빨찌산 김사령 따라 천만리 달려와
적병들 무찌르고 민중을 구원한다

위만군 겁에 질려 무기를 던지고
왜놈들 넋을 잃고 일장기 버린다

《어. 무서워! 무서워 !》 아우성친다
《조선빨찌산은 천신이야!》

(왕청)

추리나무숲 이루게

백두산아래 산열매 많은
살구 돌배며 산딸기 ...
행군하다 추리나무 만나
열매로 갈증을 푸네
김장군 환하게 웃으시며
대원들에게 이르시네
《추리를 먹고 씨는 땅에 묻소
후날 추리나무숲을 이룰 때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 와보면
열매 주렁진 추리나무숲 이루게》

(무송)

백 마 장 군

불길 이 산림을 삼켜버리고
그 불길 마을을 재로 만든다
포화에 아이들 쓰러지고
방화에 어머니들 아우성친다
누가 살인방화하느냐
극악한 일본강도다

불속을 뚫고 유격대 나오고
그 불길 헤치며 백마장군 달려오신다
불속에서 민족을 구원할 결심 품고
불속에서 겨레와 마음 합쳐 싸운다
왜놈에게 빼앗긴 조국
기어이 되찾고야말리라
(※ 민간전설에 항일투쟁시기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마를 타셨다고 함.)

(왕청)

김사령이 오신다네

산까지 우네
깍깍 우네
등잔에도 불씨가 맏히네
기쁜 소식 날아왔네
반가운 일 생겼다네
어서어서 나무패여 방 덥히세
우리 집에 김사령이 오신다네

(룡정)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나무는 흰옷 입고 산은 새 이불 덮었네
홀옷을 걸친 유격대원들
우등불 마주하면 잔등에 바람 스미네
장군과 전사들 어깨나란히 앉아
더운 피와 마음으로 서로 덥혀주네
군사를 이끄신 김일성사령
덧옷을 벗어 전사에게 씌워주시네

눈꽃이 날리네
눈꽃이 날리네
산나물 풀뿌리 모두 눈속에 묻혔네
여러끼 번진 유격대원들
한모금 마셔도 온몸에 힘솟네

산넘고 령을 지나도 지칠줄 모르네
피어린 싸움에서 고락을 같이하며
종횡무진으로 적들을 족치네
대오를 이끄시는 김일성장군
눈길을 헤치며 나눈 듯 앞서시네

(무송)

큰 발자국

장백산오지 돌길우에
큰 발자국 남겼네
항일혁명의 선봉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압록강기슭 모래불우에
큰 발자국 남겼네
일제격멸의 영웅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만주수림속 깊은 곳에
큰 발자국 남겼네
조국광복의 사령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넓은 눈판우에
큰 발자국 남겼네
조선민족의 구성인
김일성장군 지나가셨네

(림강)

한 되 박 의 쌀

경위대원 간수한 한되박의 쌀
김장군님 마을에 남겨두라네
산발타고 팔백리 행군을 하고
산나물도 눈속에 묻히었건만
김장군님 조용히 가르치시네
《동무들, 언제나 명심해두자
인민들은 우리의 부모형제요
인민을 도우면 승리를 하오》

(남호두)

샘물은 영웅들을 키워주오

샘물이 맑네
샘물이 다네

김사령 단 샘물 한모금 마시고
 높은 산 바라보며 말씀하시네
 《샘물은 우리들의 생명수요
 혁명의 영웅들을 키워주요》
 조중친선 솟는 샘처럼
 천만년 변함이 없으리

(도문)

이랴 이 소 산길을 타자

이랴! 이 소 산길을 타자
 황소를 몰면서 산타령 부르네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고요
 물방울 모이고 모여서 강이 된다네
 군민의 마음 하나로 뭉치여
 총칼 들고서 침략자 무찌르자
 군민을 이끌어 나라 되찾는
김일성장군께 감사드리자

이랴! 이 소 산길을 타자
 황소를 몰면서 산타령 부르네
 비오나 바람부나 원호미 나르고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련락가네
 승냥이 왜놈들 두려워말고
 철석의 마음으로 나라 지키자
 승냥이 높은 산 삼키지 못해
 왜놈의 뼈 갈아 날려보내자

(무송)

어머니 노루가죽 올리네

누른색 금빛털 노루가죽
 땅우에 퍼며는 습기 막네
 어머니 살림이 가난하여
 항일전 나서는 아들에겐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면서
 노루가죽 올리라 당부하네
 누구에게 드러나 묻는 말에
 어머니 가슴속 말을 하네
 《**김일성**장군께 올려다오》

(녕안)

진 달 래 꽃

진달래꽃 곱게 피었다
 선조들의 더운 피 붉게 물든 꽃이

노예살이 박차고 떨쳐나서
 구국은인 **김일성**장군 따라 싸우자

신음하는 인민들 일떠서니
 압록강기슭에 하늘땅 흔드는 폭풍 인다

백두산에 붉은 태양 솟아 빛나니
 진달래핀 강산에 행복의 노래 높다

(림강)

창과 칼 버리어 살길을 찾자

강이 울고
 내도 우네
 세월의 재난에 만민이 울며
 하늘에 밝은 해 솟기를 바라네

산이 울고
 령도 우네
 짓밟힌 겨레들 들고일어나
 창과 칼 버리어 살길을 찾자

하늘이 울고
 땅도 우네
 언제나 검은구름 가시여지려나
 가는 길 자욱자욱 피눈물 고였네

산이 푸르려지고
 꽃도 붉게 피네
 해방의 구성 **김일성**장군 오시니
 가난한 겨레의 얼굴에 희망 넘치네

(길림)

남 호 두

남호두야
 아홉고개
 고개마다 총소리 울린다
김일성부대 고개를 넘어오니
 왜놈과 피뢰군 총놓고 도망친다

남호두야
 아홉굽이
 굽이마다 붉은기 날린다
김일성부대 여기를 지나니
 사람들 길 메우며 더운물 드린다

(무송)

김일성 마을에 호소하시니

김일성 산밭을 내려오시니
왜놈들 저승길 멀지 않네
침략하러 집떠난 후회가 크고
부모처자생각에 눈물만 줄줄

김일성 마을에 호소하시니
인민들 모두다 분발하네
총을 들고 칼잡고 앞을 다투어
유격전을 벌리려 산으로 가세

(룡정)

김일성 설령을 넘어

로야령 아득히 높고높아
구름 두르고 하늘에 솟았네
얼음덮인 봉마다 칼날갈고
층암절벽 깎아지른듯 하여라

김일성부대 설령을 넘고넘어
밤에 낮을 이어 달려가네
얼음깔고 눈속에 매복하여
고난을 이기며 원수를 치네

(화전)

하나로 뭉치여 왜놈치세

왜놈들이 산을 덮으니
벌목공들 불쌍하구나
여위어서 뼈만 남았고
눈물마저 말라버렸네

배고파도 먹을것 없고
나무 베도 돈을 안 주네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으로 김사령 찾아가세
하나로 뭉치여 왜놈치세

(팔가자)

손벽치기노래

너 하나 나 하나
김일성 장군 유격전을 벌리신다

너 둘 나 둘
김일성부대 강기슭을 지난다

너 셋 나 셋
유격대 달밤에 산을 내린다

너 넷 나 넷
유격대 맹렬히 복수를 한다

너 다섯 나 다섯
혁명군 모두모두 맹호와 같다

너 여섯 나 여섯
혁명군 용맹떨쳐 원수를 친다

너 일곱 나 일곱
사람들 마음합쳐 떨쳐나선다

너 여덟 나 여덟
아버지 산에 올라 길잡이한다

너 아홉 나 아홉
백성들 손잡고 항일에 나선다

너 열 나 열
침략자 멀지 않아 망하고만다

(화룡)

달 구 지 길

수림이 우거진 달구지길로
토벌에 내몰린 피뢰군놈들
뒤에서 왜놈장교 고향지르니
죽음이 무서워서 가슴편다네

앞선 놈 유격대 발견하고서
김일성 나타났다 소리지르니
장교놈 살겠다고 먼저 내뛰고
피뢰군 총 버리고 숲속에 숨네

(돈화)

기묘한 유격전법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는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수놓아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은 유격전법이 창조한 모든 전법과 전술의 종합적인 시험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유격전법과 전술로 대부대로 추격해오는 적들을 련속 통쾌하게 족쳐버리고 행군을 다그치던 때의 일을 담고 있다.

홍토산자에서처럼 체편끼리 싸우게 하는 망원전술로 부후물등관싸움을 승리적으로 끝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대로 하여금 밤새 강행군하여 가재수쪽으로 쭉 빠지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행군방향을 줄곧 야산지대쪽으로 유도하시였다.

그때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자면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가는것이 상책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부 대원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대원들에게 지금 형편에서는 수림지대에 있는것보다 야산지대로 쭉 빠지는것이 상책이다, 이대로 추격만 받다가는 우리가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못한다, 적은 병력이 많아서 매일같이 《토벌》대를 갈아대는 데 우리가 갈아댈 력량이 있는가, 그러니 인원의 손실밖에 날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적들을 수림지대에 떼내팔리고 야산지대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듯이 오히려 주민지구와 가까운 곳이야말로 유격대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었다.

이윽하여 주력부대는 가재수부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야산에 거처를 정하였다. 키가 한길반쯤 되는 소나무와 가독나무들이 짙게 들어선 소담한 야산이었다. 산아래는 벼랑이었고 벼랑밑에는 개울이 있었다. 가재수부락에서 개가 짖으면 그 야산에서도 다 들리었다.

주력부대는 날이 어두워지면 천막을 치고 낱쌀떡이 되면 천막을 거두어 짐을 꾸려놓고 전투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였다.

머칠이 지나도 적들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 나날 대원들은 적들이 야산에는 주의를 덜 돌리니 그런곳으로 나가야 우리 력량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법대로 싸우면 백전백승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전법에 적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머칠씩 야산에서 있으면서 피로를 풀 때 왜놈들은 똥판지같이 수림속을 헤매이며 돌아섰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얼마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적들속에서는 《또 헛물을 켜구나》라는 비명소리가 울려나왔고 그 소문은 급속히 퍼져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가사

아 래일의 날씨

전완식

누구나 듣고사는 래일의 날씨
오늘은 이 가슴 뜨겁게 하네
장군님 날마다 가고가시는
전선길 생각하며 기다려 듣네
아 래일의 날씨

쉽없는 전선길은 멀고 험한데
비오지 않을가 근심도 크네
장군님 찾으시는 사랑의 길에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며 듣네
아 래일의 날씨

장군님 한분밖에 모르고 사는
인민의 소원은 간절하여라
래일의 날씨에 그 마음 담아
전선길에 푸른 하늘 펼치며 듣네
아 래일의 날씨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수 있었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기였다,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였다.》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데 있다.》

추억에 남는 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박세옥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을 여기에 모아오고
밤이면 펄럭이는 저 기슭에 별들이
미끄러져내린다
설새없이 바람은 향기를 실어나르고
급히 흘러가던 구름도 여기서는 멎어선다

제 뛰는 심장의 고동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정적이 깃든 여기
우러르면
백전백승의 불패의 대오를 이끄시고
창창한 압록강을 건너 금시 조국땅에 들어서신듯
모자를 벗어주시고 높이 서계시는 김일성장군님!

승엄함이 너무도 크고 장엄함이 끝없어서나
움짚대는 태양의 파도처럼
이 몸의 어디선가 큰 감격이 일어서고
터질듯 한 목소리가 금시 잦아버린다
가슴에 차 출렁이는 높은 충성이며
그 간고한 15성상 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하루도 식을수 없던 총을 들고
싸운 투사들이 여기에 있다

무장을 어깨에 메고 저 기슭치는 눈보라를
헤치던
그 간고한 날이 없었다면
긴 태머리를 잘라 날리는 단발머리우에
군모를 없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피흐르는 가슴으로 불뿔는 적의 포대를 막으며
죽음을 넘어서던 그 신념이 없었다면
어찌 머리우에 비껴간 저 푸른 하늘과
아득히 굽이쳐간 땅우에
찬란한 해발이 차넘칠수 있으랴
아, 세상에서 가장 간고한 길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가슴에 저 밝아오는 아침노을과 싱싱한
봄과
즐거운 노래를 주시고도
눈내리는 백두밀영에서 생각하시던
그 마음보다 적으신듯
그날처럼 아아, 그날처럼
수령님께서 오늘도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다

1930년대의 길우에 이어진
1950년대와 60년대의 자랑이며
이 나라 첫 무장대오를 안아일으킨 안도의
숲이며
어둠던 저 하늘을 떠밀며
광복의 빛발이 퍼져가던 동강이며
보천보여, 압제의 사슬에 눌린 이 나라 민족의
가슴에
불길을 지피며 오늘을 가리키시던 그 밤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 혁명의 첫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조국이며, 너는
력사우에 큰 자욱을 남기며 거연히 솟아있어라
오곡이며, 들이 넘치게 설렘여라
철탑이며, 하늘이 비좁도록 더 높이 솟아오르라

아, 하늘끝에 닿아 이 강토를 덮으며
펄럭이는 혁명의 기치여
그 기치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그 한길을 따라 몸바쳐 싸울
우리의 각오와 맹세로
한치 드림을 모를
우리의 불굴의 신념과 불타는 충성으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여기 서있다

주체61(1972)년

보천보하늘아래서

서봉재

아, 구시물동

그리운 대오는
조국땅 첫 기슭에
너무도 조용히 들어섰다

처절씩 압록강이
강변의 버들숲 흔들며
환호의 흰 물결로
기다리던 이들을 반기였다

그네들은 쪽박 차고
피나리보집을 이고지고
타향만리에 바람처럼 흩어졌다가
한줄 빼나마 조국땅에 묻히고싶어
다시 찾아온 겨레들이었더냐

아니였구나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님 따라서
생사의 준령 넘고넘어온 이들
어둠속에 신음하는 조국강토가
어서 오라 손짓하던 이 나라 빨찌산들
압록강 네 기슭에 기어이 닿기까지
싸움의 길은 얼마나 멀고 멀었더냐

아, 구시물동 폐목다리어
장백의 흰눈에 붉은 피 물들이며
투사들 메고온 뜨거운 총대
네가 받아들여올렸구나!
조국의 첫 대문 맨먼저 열어주었구나!
-구시물동가에서-

하루해는 길었어도

더운 눈물이 그득히 고여
노을빛에 타는 산천도
보이지를 앓았더란다

꿈결에만 밝아보던 땅
조용히 불을 대이던 꽃잎
이갈숲의 송진내음새도
처음 맡는 향기였더란다

강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만 부른 웨침이더냐
-어머니 조국아
그대 품에 우리 안겼노라-

몇몇해를 마음속에 묻었다가
투사들이 터친 그 한마디에
사립문 젖히고 소리치며 들어설
고향집의 부모처자들이 다 있었나니

아, 보천보의 밤을 기다려
하루해는 길었어도
조국을 그린 가슴가슴
우뢰를 재웠더란다!
곤장덕을 내리던 투사들의 걸음걸음
벼락을 재웠더란다!

-
곤장덕마루 -

장군은 가까이 계시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꿈에만 보이던분
가까이 오실줄은 몰랐구나
그렇게 와계실줄은 정말 몰랐구나

아, 절세의 애국가
백두의령장 김일성장군님
가까이에 서계시었건만
그 뉘가 알고나 있었더냐

밤이슬이 축축한
그이의 옷자락 부여잡고
가림천물결만이 흐느끼던 밤
황철나무잎새만이 고개속이던

깊은 밤 정적의 밤

전설의 영웅은 조용히 오시였어도
드넓은 밀림의 광야에 지켰던
그 우등불 다 모아 한데 모아
민족수난에 숨져가던 밤을 끝장낸
불길이어 보천보의 불길이어

노예의 쇠사슬에 휘감긴 강토
땅을 치며 울고울어도 풀길 없던 그 한을
하늘에 솟구치는 화불로 가져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여
죽음을 맞받아나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길 열리고

천만총대의 불이면
왜놈아성의 주추돌도 뽑아허물수 있음을
세상천하에 고한 보천보!

오, 빨찌산 김대장은
소문없이 오시였어도

단 한방의 총성으로 불바다를 일쿠어
얼음벤 삼천리에 눈석을 터치셨구나
빼앗긴 조국에 재생의 심장을 주시였구나!

-전투지휘처에서-

보천보하늘아래서

나는 걷고있다
지나간 30년대의 초가마을
오늘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마을
하나의 길옆에 두세기가 맞붙은
거리의 한복판으로 걷고있다

이제는 옛말로 외우는
이끼 덮인 동기와집들
쉬이 허물어버릴수도 있으련만
년대와 년대, 세기가 넘도록
어찌하여 그대로 남겨두는것인가

벽체엔 총탄자리 승승쿠나
경찰관주재소와 포대들
불타버린 농사시험장
아, 그것이면 채로 남은 그것이면
그밤의 화광 오늘도 다 볼수 있나니

백두산총대로
민족의 가슴에 꺼져내렸던
두터운 암흑장막을 걷어버린 땅
은 강토에 희망의 밝은 빛을 쏟아부은

민족재생의 화불이여
조선의 정신이 살아나고
민족의 명줄이 이어진
그 불길의 온기 어이 식을수 있으랴
세월은 아득히 세기를 넘었어도
그날의 총성 어이 잠들수 있으랴

충천하던 그 화불
두세기의 거리에 타고있다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혁명의 생명선으로 더 높이 추겨올려
저 멀리 온 누리에 번져가는
보천보의 불

아아
21세기의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내 나라
세계를 밝히는 자주의 화불
오늘도 여기에 타번지고있도다!

-보천읍거리에서-

가사

대 성 산 4 계 절

리 명 옥

대성산 옛성터에 봄무지개 비끼니
봉이마다 울긋불긋 골마다 진달래요
꽃속에 향기속에 사람마다 웃음꽃
봄날은 꽃경치요 기쁨의 계절일제
로동당시대에 빛나오른 인민의 산
평양팔경 대성산은 봄경치가 으뜸일세

술숯향기 그윽한 장수봉에 올라서니
꽃물레 두둥실 아이들이 마주 웃네
정가로운 구룡못엔 빨사슴도 쌍쌍이
여름은 록음이요 웃음의 계절일제
로동당시대에 빛나오른 인민의 산
평양팔경 대성산은 여름경치 으뜸일세

단풍이 붉고붉어 오를수록 명승인가
락락장송 소나무도 그 빛에 물드네
고구려전설속에 배놀이도 즐거운데
동천호 물결우엔 좋은 세월 등실 뗏네
로동당시대에 빛나오른 인민의 산
평양팔경 대성산은 가을경치 으뜸일세

제일설경 보려거든 소문봉에 오르시라
신비한 서리꽃 가없는 은빛세계
한번 보면 다시 보고 다시 보곤 못 떠나는
천하절경 대성산은 하늘아래 으뜸일세
로동당시대에 빛나오른 인민의 산
평양팔경 대성산은 겨울경치 으뜸일세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주의는 부르조아문예사조의 주되는 조류이다. 자연주의는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것을 기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한다.》

《부르조아문예리론가들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다같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리는것만큼 창작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마구 뒤섞어 놓은 범벅식문학작품이 많이 창작되고있으며 그런 작품이 혁명하는 나라들에 이러저러한 탈을 쓰고 흘러들어가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에서는 자연주의의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장군님과 새벽

박근원

피어나는 새벽노을을 안고
내 출근길에 오르는데
한껏 향기를 풍기며 반기여라
백살구나무잎 설레이는
정든 당중앙 프락길

언제부터였더라
6월의 이날이 오면
의례히 새벽에 걷는
이 프락길
이날엔 어이 이리도
이 마음 뜨거움에 젖는것이냐

타오르는 노을 더 붉게 태우며
펄펄 날리는 붉은 당기
그 기발의 펄럭임에서 뿌려지는가
못 잊을 추억을 안은
청신한 새벽공기 새벽공기

그 새벽공기에 실려 울려오는듯
마흔세해전 6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 당중앙청사에서
첫새벽을 맞으시며 하시던 말씀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와라

나는 어제 밤을
사무실에서 새웠습니다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먼저 마시게 됩니다

이 행성이 생겨 수십억년
그때부터 이른 새벽
천하제일위인을 기다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네 청신함을 고이 간직해왔더니

그래서 너 새벽
날마다 반겨모시는 첫분은
우리 장군님이시고

장군님께선 또 너를
그리도 즐기시며
네 안고있는 새벽공기를 그리도 소중히 하시리

포근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찌다 새벽을 맞는 사람은 있어도
한해 삼백예순닷새 그 모든 새벽을
현신의 밤을 이어 맞으시는분은
세상에 우리 장군님뿐이시여라

참으로
우리 장군님 수십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맞으신 새벽
그 얼마이던가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린 새벽
철령의 전선길 새벽
판문점초소의 새벽
발전소언제길 새벽
대흥단 삼천리 포전길 새벽...
우리 장군님의 그 하많은 현신의 새벽
어이 다 전할수 있으랴

장군님의 그 새벽에서 솟아났나니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도
당당한 군사강국도
그 새벽에서 또한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이 되성치며 일떠서나니

정녕 우리 장군님은
현신으로 시련을 밀어내고
창조의 새벽을 안아오시는
저 하늘의 해 우리의 태양

아 그 태양 빛발쳐
아침의 내 나라는 영원히 빛나고
선군조선의 앞날은 창창하야라

6월의 이야기

한원희

1

아무도 몰랐다
그 시절엔 미처 알수 없었다
류다른 그해
류다른 6월
왜 그리도 장엄한 노을을 펼치며
6월의 태양이 떠올랐는지

백두의 분비 이깎나무들이
모란봉의 살구나무 천나무들이
이름모를 숲속의 이름모를 꽃들이
왜 그리도 싱싱하게 자라오르는지

산에 가면 산의 푸른 정기
들에 가면 들의 푸른 정기
어이하여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억만수목들이 청청 푸르려
무성히 아지치고 환희롭게 설레었던지

그렇더라
산천은 먼저 알았더라
신비로운 6월의 청신한 바람은
반가운 소식 안고 불어갔더라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끝모를 환희를 안겨주며
정답게 살뜰히 속삭였더라

《우리 당중앙에
젊으신 지도자동지를 모셨다!》

2

하들도 땅도 새롭게 태어난듯
또 하루 밝아온 수도의 거리와 거리
한없는 걱정을 안고 출근길을 다그치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 김형진

그는 만났다
홍분을 터뜨리며 걸어오는 세사람
그들은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업을 말아보는 일군들
그들의 허물없는 론쟁은 끝없더라

《중공업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이요
나라의 부강번영은 여기에 달렸소
그이는 우리를 먼저 지도해주실거요!》

《중공업》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북방의 야금기지를 찾으셨던
영명하신 지도자동지를 그려보는가
그의 눈엔 끝없는 믿음이 어리더라

《허허 ...
우리 당의 최고활동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거요
그러니 너무 나서지 마오
그이께선 경공업을 먼저 지도하실거요!》

드림없는 확신과 간절한 소망이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을 달래이듯
《경공업》은 제 가슴을 두드리더라
머지않아 비단필이 강물처럼 흐르고
갖가지 인민소비품이 폭포처럼 쏟아질것이라고!

《하나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
뛰니뛰니 해도 인민은 먹어야 하오
그때문에 농사일 백가지 천가지
그이는 손금처럼 환히 아시오
우리는 벌써 준비해놓았소
그이의 지도를 먼저 받을수 있도록-》

그들먹이 차오르는 남다른 궁지
《농업》의 벅찬 숨결엔 어려왔더라
들 가득 넘쳐나는 나락의 향기
땅이 꺼지도록 실리는 오곡의 향기

새 일군의 열띤 승벽내기
김형진의 걱정을 더해주는
6월의 이야기
خم모의 이야기

그 어디서나 기다리는분
그 무엇에나 능통하신분
그이를 당중앙에 모신것은
조선의 대통운이 아닌가
백두의 광명성이 떠오르던 2월처럼
온 나라가 환호성 높이 그이를 맞이한 6월!

그이의 지도를 우리도 직접 받았으면-
새 일군의 《론쟁》속에 뛰어들어
우리 부문을 먼저 지도해주실것이라고
나도 나의 주장을 내세워봤으면-

온몸을 쇠물처럼 태우는 열망이
용암처럼 가슴을 끓이건만

김형진은 선뜻 나서지 못했더라
그는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을 책임진 사람이 아닌
문학예술부문을 담당한 일군이였거니
그는 세 일군이 부럽기만 했더라

3

부러워 부러워 잠 못드는
날과 날이 흘러갔다
하루 또 하루 이룰수 없는 소원과도 같이
김형진의 책상우엔 날마다 쌓이고 쌓였다
경모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려달라는
작가, 예술인들의 편지

그이를 따르는 열렬한 그 마음
맑은 샘처럼 솟구치는 그 심정
그 누가 막을수 있으랴
그이의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소원
그것은 제 가슴의 소원이기도 했거니

김형진은 한장한장 편지를 모아
서류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이께 드리자 보고드리자
억척같은 결심을 가슴에 다졌다

허나 웬일인지
《중공업》의 호언장담이 귀에 쟁쟁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얼굴이 보여왔다
그래그래 그들의 말이 옳지
인민경제의 주요부문이
그이의 지도를 먼저 받아야지

심중에 깊어가는 생각
밀물처럼 바다처럼 안겨드는 생각
안되지 안되구말구
어찌 우리까지 그이의 지도를 바라라

허나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가닿았더라
편지 편지, 작가, 예술인들의 편지에
귀중한 청원이 담긴
편지 편지가 가득한 서류가방에

그러자 마음속에 다시 번져가는 생각
불길처럼 쇠물처럼 뜨거운 생각
예술인들에게 어찌 되돌려주랴
지성 다해 쓰고 또 쓴 편지
그이께 올리는 간절한 청원을
내 어이 순간인들 지체할수 있으랴

김형진이 일어섰다
편지가 든 서류가방을 소중히 안고
울렁이는 가슴 뜨겁게 안고

그는 걸어갔다
그이 계시는 집무실을 향해

4

승업한 정적이 고요히 흐르는
당중앙청사

바라보니
맑은 정기 흐르는 복도의 한끝
경모하는 그이의 집무실을 나서는
인민군장령 한사람

시누런 금줄을 띄운 군모아래
눈썹이 수리개의 날개같고
두눈이 화광처럼 번쩍이는
백전로장
민족보위성의 책임일군
그는 전화의 나날에
김형진의 옛 군단장
뜻밖에 만나는 옛 상관앞에
김형진이 터져나오는 환성을 낮추었다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동지!》
《췌-! 조용히-》

손가락을 입가에 곧추 세우고
그이의 집무실을 돌아보는 옛 상관
그 다음 김형진의 어깨를 껴안고서
복도 한끝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얼마만이요?
전쟁때 문화부사단장이구만!
나는 바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나오는 길이요》

옛 상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해라
그이는 천하의 명장이라고
그이의 손길아래
인민군대는 불패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리
라고
미제가 벌벌 떨게 되었다고

옛 군단장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그이에 대한 질대의 신뢰심이
김형진의 심장에 옮겨와
산악처럼 솟아올랐다

아, 내 어이 미처 몰랐던가
그이 먼저 군사를 지도하실줄을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그이
50년대 전화의 나날엔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천하무적의 령군술을 키워오셨거니

경모하는 그이께서 군대를 친솔하심은
나라의 큰 경사
민족의 가장 큰 영광
그이의 비범한 담력과 지략은
군대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

《중공업》도 《경공업》도 《농업》도
이 경이로운 사변을 몰랐구나
그이의 지도를 먼저 받고싶어서
그 열망이 불길처럼 온몸을 태워서
나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저마다 자기 부문만을 내세웠구나

김형진이 비로소 자신을 뉘우치듯
옛 상관에게 솔직히 고백했더라
사실은 문학예술부문도 지도받고싶어서
그이의 집무실로 가던 참이었다고
이 얼마나 생각이 짧았던가고

《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니요, 생각을 참 잘했소.
그이는 동무네도 지도해주실거요!》

옛 상관은 기꺼이 등을 떠밀어주어라
그이께 어서 보고드리라고
그러면 간절한 그 소원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꽃피나리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김형진의 가슴 세차게 두드린다
온 세상을 얻은듯
기쁨에 행복에 뉘뛰는 그의 심장
그는 자신도 알수 없었더라
어떻게 옛 상관과 헤어졌는지

다만 하나
작가, 예술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의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높이높이 받들어주었더라

5

봄날처럼 정겹고 다정하신분
하늘처럼 높으시고 숭고하신 인품
해빛처럼 따스하고 자애로운 미소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모습
전화의 날 그때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누나
마치 태양이 내려와 앉은것처럼

그이를 뵈옵는 첫 순간
이같은 생각 이같은 충격에
세상만사를 다 잊은 김형진
소중히 안고온 편지조차 잊은듯
찾아온 사연조차 말씀드리지 못했더라

《아, 이게 누구입니까
그간 잘 있었습니까
한번 만나보고싶었더니
참 잘 왔습니다》

반갑게 웃으시며 반갑게 마중하시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손잡아주시는
김정일동지 !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만나보았던
문화부사단장 김형진이 아닌가고
이렇게 만나니
전화의 불길속에서 성대히 열렸던
조선인민군 군무자예술통연이
지금도 방불히 눈앞에 떠오른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는 그이

침략의 불구름 밀어내며 올려가던
그날의 그 노래 승리의 기발되어
전사들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날의 그 노래 무서운 비수가 되어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 적진에 날아갔다고
성스런 추억을 불러내시여라

그이를 우러러
한없는 감격에 목메이는 김형진
그의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화폭이 펼쳐져라
벌써 10대에
아버이수령님을 보좌하시던
그이를 뵈옵던
잊지 못할 나날들이

어느덧 10년세월이 넘어 흘렀건만
한번 만났던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어제런듯 생생히 기억해주시는
그 인간미, 그 사랑의 향기
집무실 가득히 넘쳐흘러라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우리의 힘있는 무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에도 귀중한것은
투쟁의 노래, 생활의 노래입니다
마치 혁명이라는 큰 기계에
운활유와 같다고 할가》

그이는 이렇게 한마디 비유로
문학예술의 사명을 깨우쳐주시며
김형진이 안고온 서류가방에
사려깊은 눈길을 보내시여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리도 큰 서류가방을 가져왔는가
다정한 웃음을 지으시여라

따스한 그 물음 그 인정에
봄눈처럼 몸과 마음이 풀리는듯
스스럼없이 서류가방을 열어보이며
웃음을 여미는 김형진

《경모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바라는
작가, 예술인들의 청원편지입니다》

《청원편지?!-
무슨 청원이기에 이리도 많습니까》

그이는 놀라시듯
편지가 가득찬 서류가방을 보시여라
하루에도 몇십장씩 매일 올라오는
이 편지들의 사연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김형진이 드리는 말씀 중히 들으시며
감동이 크신듯 집무실을 거니시여라

《편지는 보겠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이 이처럼 나를 믿어주니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하시오
동무들이 나를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나도 동무들도 우리는 다같이
수령님의 전사가 아닙니까》

겸허히 자신을 낮추시며
엄한 안색을 지으시는 그이
김형진이 더더욱 송구해
몸둘바를 몰라라

그이는 한장 또 한장
편지결봉의 이름들을 보시여라
판록있는 작가들, 연출가들
낮익은 인민배우, 공훈배우, 신진배우들
그이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만나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셨던
그날을 그려보시듯
사색깊이 말씀하시여라

《동무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당중앙창가에 내리는 밤
위대한 두분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온 우주가 귀기울여 듣는
류다른 밤

어버이수령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사회주의는 사상으로 승리한다고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시작되고
노래와 함께 승승장구해왔다고...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문을 여시는 수령님
찬란한 밤하늘 별빛너머
그이의 시선이 달리는 곳은 그 어디인가

아득히 흘러온 혁명의 첫기슭
어둠을 밝히는 《E. C》의 불길
세차게 타번지며 울려퍼지던
조선의 별 한별의 노래 들으시는가
백두의 눈보라 만리 천만리에
신념의 역센 나래 달아주던
《반일전가》의 메아리를 안아보시는가

해방된 조국을 일떠세우던
건국의 노래
준엄한 전화의 날 위훈을 부르던
결전의 노래
노래와 함께 걸음걸음 승리를 펼쳐온
조국의 년대와 년대들...

허리에 두손을 올리시고
오래도록 별많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수령님은 조선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시여라
우리의 노래가 힘차게 울리면
사회주의위업은 승리한다고

아, 두분의 이야기
그 얼마나 위대한 진리로 빛발치는가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고
노래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은
가장 성스러운 혁명이라고
위인들이 주고받으시는 대화
그 얼마나 뜻깊은 명언으로 빛나는가

철학을 알고 정치를 알려거든
음악을 알아야 한다는
두분의 말씀과 말씀
우리 혁명의 오늘과 래일을 꿰뚫으시고
고금동서의 세상홍망을 통찰하시는
그 예지 그 열정의 이야기에

하늘의 별들이 다투어 내리고
삼라만상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라

《붉은기 날리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 붉은기가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문학예술도 말아보고
정치, 경제, 군사...
우리 혁명의 전반을 령도한다면
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락관합니다》

《수령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버이수령님앞에
경건히 일어서며 사양하시는 그이
허나 위인이 위인을 알아보고
태양이 태양의 모습을 알아보듯
수령님은 뜨겁게 말씀하셔라
김정일 동지는 내가 잘 안다고
조선의 운명을 떠메고나갈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는
김정일 동지라고

수령님은 굳게굳게 확신하셔라
경모하는 지도자로 부르며 따르며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는
인민의 마음은 시대의 지향이라고
21세기는
김정일 시대라고!

7

6월의 이야기
그밤의 이야기
김형진이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다만 하나 오직 하나
그이께서 문학예술을 지도하신다는
꿈같은 소식에 흐느껴울었을뿐!

초여름의 싱싱한 가로수 잎새넘어
또 하루 붉게 비껴오는 새벽노을을 안고
출근길을 다그쳐걸던 김형진

그는 또다시 만났더라
발걸음도 성큼성큼 흰결차게 걸어오는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업》
인민경제의 미더운 책임일군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밝게 웃으며
김형진의 손을 덥석덥석 잡아흔들여라
우리의 축하를 받으라고
동무네 문학예술이
경모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

였으니
이같은 경사, 이같은 영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느냐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꿈과 같이 우리 소원이 풀렸습니다
내 또한 동무들이 아직 모르는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이는 이미 벌써
인민군대에 대한 령도의 자욱을 찍으셨습
니다》

《뭐, 그게 정말입니까?》

이번엔 세 일군들이 걸음을 똑 멈추어라
서로서로 오가는 눈길과 눈길들
부딪쳐 세찬 충격을 일으키는 시선과 시선들
그 짧은 한순간에
그들은 알았다
그 어느 나무 하나 열매 하나를 위해
태양이 하늘에 빛나지 않음을!

그이는 백두산이 내신분
온 나라 온 인민을 위해
하늘이 태양으로 받아들여올린

이날을 기다려 력사가 흘렀던가
인민이 바라고 시대가 바라던 념원이
꿈과 같이 현실로 이룩되었구나
김형진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핑그르르
세 일군의 눈에도 행복의 눈물이 핑그르르

8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우리 장군님
너무도 조용히 당중앙에 오셨기에
처음엔 미처 다 몰랐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우에
찬란한 봉우리로 솟아오른 6월을
위대한 령도의 새 시대를 알리며
영광의 기념비로 빛나오른 6월을
아, 그 6월에서 시작된 빛나는 세월속에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포성을 울리며
우리 문학예술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우리러 우리르며
김형진이 가슴벅차게 안았더라
문학예술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전성기
우리 조국의 부흥기

투쟁과 열정 신념과 랑만으로

천만심장을 하나로 불태우시며
온 나라를 산악처럼 일떠세우시는
그이의 탁월한 정치

아버이수령님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의 힘찬 박자로
천만의 발걸음을 높이 받들어주시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이끌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전설같은 정치

거기서 쇠물이 백광을 뿌리었고
비단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더라
거기서 하늘높이 로적가리가 솟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었더라
거기서 흉악한 미제를 무릎뚫리는
무적필승의 군가가 울려나왔더라

백번 천번 엄혹한 폭풍을 맞받아
백번 천번 조국의 존엄을 떨쳐주신
김정일 동지
흘러온 세월을 추억하실 때면
그날의 6월을 못 잊으시는
우리 장군님

어느날 최전연을 시찰하시는 그 길에서
김형진에게 감회깊이 하신 말씀

잊혀지지 않는 한편의 서정시와 같더라
-나의 첫 사랑은 음악입니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이 땅에 강성대국을 안아왔을 때
이 투쟁을 누가 령도했는가를 묻는다면
력사는 대답할것입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끝까지 함께 한
참다운 인간이 령도했다고!-

6월의 이야기
불멸의 이야기
산천이 저 먼저 알고
청청 푸르려 한껏 설레이던
6월의 이야기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주고
이 땅에 영원한 청춘을 안겨주신
태양의 이야기
김정일 동지의 이야기

너 천만년 오고 또 올 6월이여
너 천만년 전하고 또 전해다오
류다른 그해 40여년전 그해
우리 장군님 당중앙에 오신
류다른 6월의 이야기 이야기!

가사

장 군 님 사 랑 (외 1 편)

정성환

장군님 우릴 안아 소중히 키워주시며
걸으신 낮과 밤길은 그 몇천만리입니까
밝은 길에도 넘어질세라 마음쓰시는 사랑
그 사랑 못 잊습니다

장군님 우리들을 요람에 잠재우시고
달리는 야전차에서 쪽잠도 아끼십니다

힘한 령길의 눈비 헤치며 헌신속에 주신 사랑
그 사랑 못 잊습니다

장군님 우릴 위해 심장을 불태우시며
선군의 강성대국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저 하늘의 태양보다 뜨거운 아버지사랑
그 사랑 못 잊습니다

대지여 다시 만나자

별빛도 총총한 하늘이 우리를 부른다
이 밤에 우리의 편대는 대지를 떠나리
라 손풍금 울려라
어머니대지여 안녕히 다시 만나자

우리를 바래는 손길은 보이지 않아도
인민의 심장의 당부는 하늘에 넘치리
라 손풍금 울려라

어머니대지여 안녕히 다시 만나자

우리의 편대는 이밤도 하늘을 날으며
온 나라 집집의 창가에 고운 꿈 지켜주리
라 손풍금 울려라
어머니대지여 안녕히 다시 만나자

주체95 8. 6

전선길과 학교길

수도의 대통령로부터 최전연전호가의 오솔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뻗어간 크고작은 수천수만갈래의 길들에는 청소년학생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숨배어있다.

몇해전 10월초 어느날 이른아침에 있는 일이었다.

전선동부에 위치한 어느 한 군의 소학교 2학년 학생은 아침일찍 등교길에 나섰다. 그가 걸음을 재촉하고있는데 뒤에서 승용차들이 달려오고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학생은 길 한쪽옆에 멈춰서서 승용차를 향하여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가던 승용차들중에서 한대가 그의 몇걸음앞에서 스프르 멈춰서는것이였다. 이어 차문이 열리고 승용차에 타신 분이 그를 보고 오라고 손짓하시였다.

학생은 무슨 일인가 하여 승용차로 달려갔다.

열려진 승용차문앞에 다가선 학생은 그만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차에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바로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장군님이시기때문이었다.

학생은 너무도 당황하여 인사말도 미처 올리지 못한채 꾸벅 허리만 굽혀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정히 너 어디로 가니? 하고 물으시였다.

학생은 학교에 간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그럼 차에 타라고, 자신께서 데려다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학생은 자기가 지금 꿈을 꾸지 않는지 믿기 어려웠다.

도소재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골군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그닥 많지 않은 자기 고장에서 뜻밖에도 이처럼 뽕고심은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온것만해도 분에 넘치는 영광인데 장군님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다니!

학생은 너무 기뻐 《아버지장군님!》하고 마음이 먼저 달려가 안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학생의 두발은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어린 마음에도 일년 삼백에순다섯날을 하루와 같이 전선길을 밟으시며 날과 달을 보내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자기때문에 승용차안에서 잠시

나마 드시던 쪽잠마저 드시지 못하셨구나 하는 죄스러움과 이제라도 장군님의 전선시찰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이었다.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 학생의 두눈에는 뜨거운 물기가 어렸다.

그러는 학생의 속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다정히 그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옆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승용차는 학교를 향하여 살처럼 달렸다.

잠시후 승용차가 학교로 들어가는 길어구에 이르자 학생은 아버지장군님께 이 길로 들어가면 우리 학교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그런가고 하시며 학교앞가까이에 승용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몸소 문을 열어주시였다.

학생은 너무나도 뜻밖에 받아안은 크나큰 행복으로 허가 굳어져서인지 눈물이 그렇그렇하여 머리만을 깊이 숙여 아버지장군님께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공부를 잘하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며 손을 들어 답례를 해주시였다.

이윽고 장군님의 야전차는 지체된 시간을 보충이나 하려는듯 최전연으로 향한 길을 따라 쾌속으로 달리였다.

작은 가슴을 들먹이며 아버지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점도록 한자리에 서서 그이의 전선길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 학생의 심장속에서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가 뜨겁게 울려나왔다.

...

장군님앞에는 험한 산고지

아이들앞에는 해쑃는 바다

술숲의 아이들 멀어지여도

4월의 봄빛이 내리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야전승용차가 사라진 최전연 저 멀리 동견하늘이 붉게 타더니 이어 아침해가 불쑥 솟아올랐다.

태양이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자 산천초목은 환희로 설레이고 땅은 거대한 미지의 힘으로 세차게 태동하는듯싶었다.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 무장투쟁시기 아동단연예대를 지도하시면서 몸소 새 노래도 부르시며 널리 보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연설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왕우구 북동에서 현아동단연예대사업을 지도하시던 주체22(1933)년 6월중순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 연예대를 다 모여놓으시고 뜻밖에 이제부터 자신께서 노래를 부르겠는데 들어보라고 하시였다.

연예대원들은 무슨 노래일까 하면서 어서 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르시였는데 그 노래는 가사며 곡이 언제나 장군님을 그리는 아동단연예대원들의 마음에 꼭 드는것이였다. 그래서 연예대원들은 모두 그 노래를 어서 배워 달라고 김정숙동지에게 졸랐다.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는 흑판에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라고 노래제목을 큼직하게 쓰시고 그 아래에 가사를 또박또박 적어내려가시였다.

1절

흘러가는 둥근달 너만 가려니
보고싶은 고향마을 우리도 가련다
우린우린 아동단 총을 메고서
장군별을 따라서 조국땅으로

2절

눈비속에 참나무 억세게 크고
훈련으로 우리는 몸을 다진다
우린우린 아동단 굳게 뭉치여
장군별을 따라서 조국땅으로

3절

우리 엄마 내 동생 생각하며는
가슴속에 붉은 피가 절로 끓는다
우린우린 아동단 원썬을 치고
장군별을 따라서 조국땅으로

참으로 뜻이 깊고 배우기 쉬운 노래로서 연예대원들의 마음에 꼭 드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가사를 다 쓰시자 연예대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노래를 배워달라고 졸랐다.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시는대로 연예대원들이 한소절, 한소절씩 노래를 따라부르니 자기들도 사랑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저절로 생기고 어서 빨리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장군님을 따라서 조국땅으로 가야겠다는 불같은 결의가 굳게 다져지게 되는것이였다.

노래를 다 배우고난 연예대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이 노래를 연예공연종목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일치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김정숙동지께서도 쾌히 찬성하시였다.

그리하여 다음날부터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의 노래는 아동단연예대공연의 정식종목으로 되게 되었으며 가는곳마다에서 이 노래에 대한 절찬은 대단하였다.

《장군별 따라서 조국땅으로》!

참으로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항일 무장투쟁시기에 부르신 이 새 노래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고무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영광의 40 년

은 나라 천만군민이 태천의 기상을 안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40년이 되는 뜻깊은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진 지난 40년의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형상문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멸의 령도업적으로 빛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이 세상에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 수많은 창작가들이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로동계급을 각성시키고 투쟁으로 고무하는 긍정적 주인공들과 혁명가들의 형상이 적지 않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운명문제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혁명문학건설의 주선으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물론 일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이 나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발생적으로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었을뿐 로동계급의 수령을 작품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의 창작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수령형상창조 리론조차 없었다. 더구나 1960년대 중엽, 력사발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부인하고 작가, 예술인들속에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류포시켜 그들을 우경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수정주의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그 후파로 하여 수령형상창조문제는 제기되지도 못하였으며 따라서 리론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해결을 볼수 없었다. 인류문예사가 남긴 이러한 공백, 수령형상창조문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력사상 처음으로 제기되고 완전무결한 리론실천적해결을 보게 되었다.

세계문학발전과 우리 문학예술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사실주의문학, 수령형상창조를 핵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는것이 한 시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선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196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어야 할 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마땅한 본분인것이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당시에 무엇부터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수령형상창조의 본격적인 길에 나선 우리 작가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내놓으신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따쫓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주체57(1968)년초 우리 작가들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들이 벌써 자기 사업을 시작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자료취재와 고증사업을 잘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수령형상작품은 실 재한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작하여야 한다는 미학적원칙을 명철하게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반작품에서는 원형이나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지 않고도 형상을 꾸며낼수 있지만 수령형상작품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떠나 허황하게 꾸며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일반작품들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생리가 있다는것과 그 근거들을 밝히시었다.

그것은 작품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력사에 실지 있는 수령을 형상하고 내세우는 사정과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수령형상작품의 교양적목적과도 관련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작가들이 앞으로 창작할 소설의 형식과 규모, 양상에 대하여 론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취재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 연고자취재를 실속있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력사적사실을 취재함에 있어서 자료고증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않고

회상하시는 사실들을 형상하는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할데 대한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예술적허구의 특성을 바로 인식하고 격에 맞게 쓸데 대한 문제 등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령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수령형상창조의 초행길을 열어나가는 보람찬 길에 나선 우리 작가들은 일찌기 체험한바 없는 창작적열정과 흥분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가신 항일혁명투쟁의 로정을 따라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답사했고 항일혁명투사들과 수많은 연고자들을 만나 취재를 하였다. 이 나날은 지금껏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인의 위대한 세계를 발견하고 거기에 끝없이 심취되고 매혹된 감격과 흥분의 나날이었다.

작가들은 분담된 시기의 자료연구와 취재를 끝내고 붓을 들었지만 흥분과 열정이 곧 작품으로 되는것은 아니어서 전혀 예견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 부닥쳐 붓을 놓지 않을수 없었다. 주체 60(1971)년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금 우리 작가들의 창작사업을 친히 료해하시면서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헤아려보시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소설문학에 옮기는데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시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모아 만든 창작전망계획 그리고 초고로 완성한 장편소설 《1932년》과 표지를 장군님께 올렸던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소설문학에 옮기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방향과 관련되는 매우 심중한 사상미학적문제라고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전망계획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 역사를 몇개의 시기로 나누어 몇편의 장편소설로 형상할것을 계획하였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의 폭으로 보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소설의 총적인 구성형식은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총서의 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달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기식과 전기식의 구성형식이 가지는 제한성과 세계문학사에 기록된 소설 《총서》가 가지는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철저히 어느 한 역사적사변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창작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총서형식의 전일성과 일관성을 기초짓는 총적인 종자를 천명하여 주신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민족과 인류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본질이 심오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그 어떤 위인과도 구별되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숭고한 품모가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또한 《불멸의 력사》, 이 제목속에는 현시대의 인류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위대한 모범으로 삼아야 할 빛나는 전형에 대한 평가가 담겨져있으며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장편소설묶음에 《불멸의 력사》라는 종자를 안겨주심으로써 총서를 이루는 장편소설들이 철학적으로 심오한 깊이를 가진 참다운 수령형상소설문학으로 창작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참으로 그 누구도 헤아려보지 못한 새로운 총서 형식의 발견으로 작가들에게 창작의 새 세계를 펼쳐주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의 묶음에 《불멸의 력사》라는 총적인 종자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를 이루는 매 장편소설들의 종자를 바로 잡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총서작품을 인간학으로 만드는 결정적담보는 종자의 탐구에 있다. 역사적사건과 사실이 위대하고 격동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잡지 못하면 총서작품의 사상적심오성과 예술적감화력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초고를 보시고 이 작품의 종자와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는 작품의 심오한 종자를 잡아주시면서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생활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반종파투쟁을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잘 형상하여야 하며 소설에서 민족주의자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은 기본적으로 옳게 형상되었으나 민족문제를 허무적으로 대하는 권심의 연설내용을 수령님께서 긍정하시는것으로 잘못되었으니 다시 고

쳐야 한데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적하여주시고 형상대안까지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종자를 바로 잡는데 기초하여 형상적대를 명백히 세움으로써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작품의 종자를 바로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은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에도 깃들어있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의 처음 제목은 《불패의 힘》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의 초고를 보시고 지금 장편소설의 제목을 《불패의 힘》이라고 달았는데 제목이 너무 일반적이고 작품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소설이 1939년 겨울 마당겨우밀영에서 진행한 군정학습을 기본내용으로 취급 하고있는것만큼 이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혁명적진념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놓고 형상하여야 한다고 친히 종자를 잡아주시었다.

그리시고 이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형상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장편소설 《새날》초고를 보시고서는 소설의 제목을 《새날》로 달다보니 새날소년동맹 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소설에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문제가 기본으로 취급되는것만큼 장편소설의 제목을 《땃은 올랐다》로 달도록 하심으로써 작품의 종자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매 장편소설마다 철학적인 종자가 바로 탐구됨으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과 인간학적가치가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작품의 종자뿐 아니라 작품의 구성과 작품의 대를 바로 세울데 대한 문제, 인물형상, 세부묘사에 이르기까지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미학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등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을 반영한 모든 총서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분망하신속에서도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첫 독자가 되시여 몸소 읽으시고 분에 넘치는 높은 치하의 교시와 감사까지 보내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경사였으며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의 계기를 열어놓은 사변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작가들은 새로운 총서작품들을 련이어 창작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1980년대 초엽 3년동안에만 하여도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장편소설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근거지

의 봄》, 《대지는 푸르다》, 《땃은 올랐다》, 《은하수》 등 8편의 총서작품을 짧은 기간에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하여 출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총서작품들이 련이어 창작완성되어 나 오고 작품의 권수가 늘어날수록 주요인물들의 이름이 통일되지 못하고 작품의 내용도 작품들 호 상간 련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작품창작에서 이러한 편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시고 총서작품들의 내용을 련결시키고 인물들을 통일시키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현행창작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총서작품의 주요인물들을 실재한 원형인물에 기초하여 통일시키고 총서작품들의 내용을 력사적인 순차에 따라 련결시키기 위한 수정작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마침내 총서체계에 속하는 매 장편소설의 독자성과 련관성을 보장한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을 기본적으로 결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총서작품창작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창작 되지 못하여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났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어느 한 력사적단계나 시기의 공백이 없이 항일혁명투쟁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한 혁명적대작으로, 수령형상소설의 본보기로 창작완성될수 있었다. 이것은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이며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창작적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80년대 중엽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창작사업이 결속단계에 들어가자 지체없이 우리 작가들을 해방후편 총서작품창작으로 불려일으키시었다. 해방후편 총서작품창작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편과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창작에서 중요한것은 해방후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발전단계에 맞게 수령님의 형상을 새 사회건설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 혁명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히는데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충실히 의거하는 문제는 해방후편 총서작품창작에서 더 중요하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라는것을 밝히시고 그 구현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들을 이룩해나가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그리기 위하여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해방후편 총서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심오히 밝히시고 그 구현을 위한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전성기를 계속 꽃피워나가기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인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50년 여름》이 먼저 창작출판되고 뒤이어 《조선의 힘》이 창작출판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해방후편 총서작품들이 련이어 창작출판된것은 우리 문학의 큰 경사로, 자랑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고 수령형상의 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였다. 수령형상소설문학창작에서 기록된 성과의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과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이 여러 형식으로 창작출판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총서작품창작사업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소년시절을 형상한 창작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여 장편소설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을 최고의 수준에 이른 성과작으로 창작완성하도록 하시는 한편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상하권, 《누리에 붙는 불》,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를 성과작으로 창작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세계관형성발전과 혁명활동을 형상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작품의 구성과 주요인물형상에서 제기되는 원형과 전형문제,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의 통일문제 등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대한 명철한 해명을 주시으로써 작품의 성과적인 완성은 물론 혁명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시여 주체문학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형상문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영광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와 뜨거운 충성으로 력사상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수령영생문학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안될 대국상을 당한 후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가 펼쳐진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10여년간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더욱 왕성하게,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을 더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성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선군혁명문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중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선군시대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도 있고 장편소설 《개선》, 《열병광장》, 《삼천리강산》과 같이 조국해방이후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군, 건국업적을 담은 장편소설도 있으며 장편소설 《푸른 산악》과 같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방위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작품도 있다. 또한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번영의 길》, 《대지의 전설》, 《인간의 노래》도 있다. 각이한 력사적시대를 반영하고있는 이 장편소설들은 그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해방후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련속편들로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이 장편소설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작실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옹계 해결하도록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며 하여 하나하나 창작완성된 선군시대 선군혁명문학의 혁명적대작들로서 수령영생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수령영생문학을 창작하는데서 장편소설 《영생》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영생문학을 창작하는데서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에 대한 형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수령영생위업에 이바지하는 소설문학을 훌륭히 창작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5월 어느날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의 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수령영생문학의 대표작으로 완성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초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옹계 해결하도록하나 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초고에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던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담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상미학적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기된 내용들을 다 보

아주시고 작품완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세
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어 장편소설
《영생》을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3돐을 앞두고 세
상에 발표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영생》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실재한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력사문헌적의의
를 가지는 문학적재보로, 수령영생문학의 기념비
적대 표작으로 된다. 인류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진 지난 40년세월,
보람찬 창작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예술적천품, 고결한
인덕에 매혹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
적을 반영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
소설들을 창작하는 누구나 지닐수 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
대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
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주체문학의 경사였으며 대를 이어 수령
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행운이다. 1980년대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소설문학에 모시기 시작
한 우리 문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 총서 《불멸의 향
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예지》가
세상에 나온 뒤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푸른하늘》, 《동해천리》,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의 년대》, 《평양의
봉화》, 《전환》, 《서해전역》이, 2000년대에는
《강계정신》, 《비약의 나래》, 《총검을 들고》,
《계승자》, 《별의 세계》, 《총대》, 《조국찬가》,
《라남의 열풍》 등 수많은 장편소설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수
령형상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선
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제국주의련합세
력의 반공화국책동을 산산이 짓부서버리며 사회
주의의 붉은기를 지켜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
출 위인상이 성스러운 혁명실록 그대로의 진실한
화폭으로 감명깊게 형상된 총서 《불멸의 향도》
중장편소설 《총검을 들고》, 《총대》, 《강계정

신》, 《력사의 대화》, 《라남의 열풍》, 《북방
의 눈보라》 등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로 선군
의 새 시대를 펼치신 선군령장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백두의 천출령장 김정일장군
님의 거룩한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
군시대의 기념비적화폭으로 빛나고있다.

피눈물속에 시련도 많았던 《고난의 행군》, 강
행군시기에 이 땅에 펼쳐진 선군혁명문학의 눈부
신 발전, 그것은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의 기적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실
록이 안아온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자신의 작
가로, 선군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이 총
대를 받들어 붓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먼저 떠나간 이
름있는 소설가들을 뜨겁게 추억하시며 작가들이
선군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
기 위한 강행군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작
창작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면서
이 땅우에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
쳐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우리 작가들의 생활조건, 창작조건
도 원만히 해결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
많은 사랑도 끝없이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에게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
한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혁명
의 붓대, 선군의 붓대를 역세게 틀어잡은 우리
작가들은 력사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40
년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진 수십
편의 총서작품을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소설들을
창작출판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눈부신 성과는 수령형상소설문학창작사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빛나는 실현으로 우
리 작가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작품창작에서 계속 새로운 창작적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시고
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치실
무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보다 높
은 창작적성과로 선군혁명문학의 전성기를 앞장
서 열어나갈것이다.

김 정 남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이 나오기까지

권정웅

4.15문학창작단 창립 40돐을 맞으며 참으로 감회가 깊어집니다.

더구나 주체56(1967)년 6월 창작단의 창립시기부터 있었고 또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문학예술사업을 보기 시작한 첫 시기부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문학의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당적지도와 창작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제가 4.15문학창작단에 있으면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을 창작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정녕 그 나날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 이름없던 작가도 세상이 다 아는 작가로 되고 창작되는 작품도 명작으로 된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주체57(1968)년 1월 어느날.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지라 첫걸음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어떻게 쓸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토론과 생각 끝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나는데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가 하는 줄거리를 써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로 하자고.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줄거리를 써서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을 주시었는데 그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총제목을 《불멸의 력사》라고 달고 그안에 독자적인 장편소설들을 묶음식으로 밀어넣으면 될수 있다는 현명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불멸의 력사》! 이것은 수령형상장편소설묶음의 총적인 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본질이 심오히 일반화되어있으며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의 진수와 형상의 씨앗이 박혀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심어야 할 사상적알맹이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이에 속하는 매 장편소설들에 철학적무게가 있는 종자를 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작품들이 철학적깊이가 있는 수령형상장편소설의 본보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저는 장편소설 《1932년》을 쓰기 위해 자료연구와 대상취재 및 답사를 진행하고나서 창작에 달라붙었습니다. 날이 흘러 드디어 주체60(1971)년 여름에 이 장편소설의 초고가 완성되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저의 소설을 품을 들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이 기본적으로 되었는데 아직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소사하집장면을 볼것 같으면 그 장면 자체는 좋은데 어머니와 아드님이 같이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모두 격식화되어있기때문에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사실과도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것이 바로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하는데서 류의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명철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저의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하나하나 해주시였기에 그후 소설은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었고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60돐기념작품으로 출판될수 있었으며 특히는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는 최대의 영광까지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준비정도도 그렇고 제 수양이 이런 훌륭한 작품을 써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금 뉘우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만 받으면 비록 작가가 수준이 모자란다고 해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낼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저는 그후 장편소설 《1932년》을 쓸 때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푸른 하늘》, 《전환》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평양주변의 어느 한 탄광마을에서 탄부의 맏아들로 태어난 내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따사롭고 위대한 품이 없었다면 작

가는 커녕 만사람이 다 찾아가며 읽는 소설창작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작가입니다.

이제는 내 나이 어느덧 여든고개를 넘기고보니 날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이제 무엇을 더 할수 있겠는가? 젊은 나이에는 말할것도 없고 60나이에 이르러서도 저는 삶의 한초한초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나에게는 한시간, 한초가 참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귀중한 한

시간, 한초입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대해같은 사랑에 기여이 보답하고자 그리고 장군님을 언제나 높이 모시리라 다짐 그 필생의 맹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고자 길지 않은 여생이나마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고 또 창작해내겠습니다.

이것이 4. 15문학창작단 창립 40돐을 맞으며 그 한 성원으로로서 다시금 다지는 나의 굳은 결의입니다.

평생을 마음속에 태양의 영상을 모시고

최학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잊을수 없는 주체56(196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형상작품창작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문학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해에 나도 수령형상소설을 써보리라 결심하였다. 나는 주체56(1967)년 여름 작가견학단에 속하여 동해안지구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 보던 기회를 타서 룡성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먹는 식의 기발한 공법으로 8미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를 만들어냈던 감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첫 수령형상단편소설 《큰 심장》을 성과적으로 써냈다.

이듬해인가 나는 두번째로 되는 수령형상단편소설 《숙영지의 저녁》을 또 써서 출판물에 발표하고 몇통의 고무적인 독자편지를 받았다.

탄생 60돐을 맞으시게 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올리고싶은 심정에서 나는 세번째로 되는 수령형상작품인 단편소설 《해빛밝은 나라》를 창작하여 기념특집호로 발간된 주체61(1972)년 4월호 《조선문학》잡지에 내보내었다.

기쁨은 컸다.

사실 내가 지방에서 고급중학교(당시)에 다닐 때 처음으로 지상에 내보낸 글은 작은 한편의 동시였다. 그 동시가 어릴적부터 어버이수령님께로 향하여 있는 나의 심정을 대변해주고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은가루같은 눈송이
곱기도 해라
내 성적표 펼치니
나래치며 모여오네

국어 산수 내려가며
모조리 5점인데
보고보고 또 보자고
소복소복 내려앉네

내 성적표 다 보더니
평양으로 훨훨
원수님께 전한다고
평양으로 훨훨

조그마한 기쁜 일이 생겨도 어버이수령님께 아뢰고싶은 마음.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나는 고급중학교때 썼던 동시에서 노래했듯이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 기쁨드릴 수령형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 일념으로 언제나 가슴불태웠다. ...

작은 형식의 수령형상소설작품들을 창작하던 나는 주체65(1976)년부터 큰 형식의 수령형상소설을 창작하게 되는 기쁨을 지니게 되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지만 정작 일거리를 맡게 되니 앞이 막 막하기만 하였다. 나는 그때 한 작가가 쓰다가 채 완성하지 못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받아 안게 되었다.

어떻게 이 소설을 완성할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묘술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우산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수정방안을 받아안게 되었다.

우리가 받아안은 개작방향을 중요한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것들이었다.

그것은 작품의 중심위치에 어버이수령님을 중심주인공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선을 따라가면서 작품의 대를 세우고 구성을 짜고들때 대한 문제,

미혼진밀영에서의 열병환자들과의 상봉, 새 사단 편성 및 조국광복회창건업적을 빼놓지 말고 전면적으로 취급할데 대한 문제, 《대통령감》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철학성이 있게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들이었다. 그 개작방향은 캄캄한 어둠을 한순간에 밀어버린 해빛처럼 우리의 눈앞을 환하게 띄워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확히 밝혀주신대로 우리는 소설의 개작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그러던 주체67(1978)년 한여름의 어느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전면적인 개작사업이 기본적으로 완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실례를 상세히 알아보시고나서 불무지보초를 섰던 신입대원이 조는 바람에 불무지에서 튀어난 불티가 사령관동지의 바지를 태우는줄도 몰랐던 일도 있었다는 사실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하시는 실재하였던 역사적사실이나 생활세부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보충해넣고 완성시켜 속히 출판하여 공화국창건기념일인 9.9절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책을 올리도록 하라고 일러주시었다. 그렇게 되어 다시 밤 낮없는 창작전투를 벌려 나눈 동지들과 함께 소설을 완성해나갔다. 주체67(1978)년 9월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출판된 작품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쇄된 글줄마다를 일일이 다 훑어보시고 잘 쓴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성과와 공로를 고스란히 우리 작가들에게 돌리시면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과분한 치하와 표창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보신 인상이 얼마나 크고 깊으셨던지 위대한 수

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작품에 대하여 자주 회고하시었다.

또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나 《준엄한 전구》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는 높은 평가의 교시까지 주시었다.

웅근 30년간을 수령형상작품창작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창작의 붓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과정에 나 자신과 우리 작가들이 한결같이 체험하고 절감한것은 우리가 창작해낸 수십편에 달하는 총서 작품들모두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의해서만 명작으로 창작완성될수 있었고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내자신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연속편으로 창작한 장편소설 《압록강》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쓰기 시작하여 금세 기초에 내놓은 장편소설 《개선》의 창작과정들만 놓고서도 얼마든지 증언부연할수 있을것이다.

첫 총서작품들이었던 장편소설 《1932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되게 되었으며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개작보충되어 더좋은 명작으로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 어떤 개별적작가들의 작품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작품이나 다름 없다고들 말하고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우리 문단을 풍만하게 꽃피워주고있는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의 진귀하고도 희한한 꽃바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40여년간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며 가꾸시고 키워오신 꽃들로 이루어진 선군시대의 자랑스런 풍경이다.

감회도 깊고 감개도 무량하다

리동구

주체56(1967)년 6월에 조직된 4.15문학창작단 창립 40돐을 맞이하고보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시다. 제가 창작단 작가로 소환되어온것은 주체84(1995)년 10월이였습니다. 그러니 창작단에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시다. 하지만 초시기부터 자신의 생활이 창작단과 더불어 흘러온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그럴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 창작단에 소환되기전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당시)에서 교편을 잡고있었습니다. 이 날에 총서작품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작품들이 완성될 때까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시었으며 매 작품들의 사상에술적성파가 어떤것인가

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때의 기억이 어제일처럼 방불히 되새겨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창작단의 지나온 40년이 자신의 생활과 깊은 인연속에 흐른것처럼 여겨지나봅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학인들과 총서작품을 애독하여온 모든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형상창조는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이며 주선

입니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작품을 쓰려는것은 우리 시대 모든 작가들의 열망입니다. 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을 때에 틈을 내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크나큰 어버이품》과 《새로운 전설》을 썼습니다. 4.15문학창작단에 소환되어왔을 때 오랜 숙원이 풀린듯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역으로 작가생활을 하여본 일이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작단의 작가로 되었으니 기쁨과 긍지가 높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작과제를 받고 창작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고민이 컸습니다.

총서작품을 쓰기에는 작가적인 준비가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기때문이었습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장편소설을 쓰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총서작품에는 일반작품과 다른 고유한 생리가 있으며 창작원칙이 있습니다.

그 생리와 원칙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창작실천에 구현하자고보니 어려웠습니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를 창작할 때 겪어야 했던 고심과 번민,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초고에 대한 합평회가 열렸을 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체험하는바이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원고라면 의견을 주기가 쉬우나 전면적인 개작을 요구하는 원고라면 의견을 주기가 서슴어집니다.

긴 침묵 끝에 지명을 당하고서야 한사람씩 일어나 조심스레 원고를 읽은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생활소재로부터 종자와 구성, 묘사형상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글은 곧 필자 자신입니다. 글에는 필자의 자질과 인격의 전체가 반영됩니다. 더우기 저와 같이 인간적수양과 작가적수련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수령형상작품을 쓰기에는 나의 준비가 너무도 부족하구나! 이제라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격심한 좌절감에 빠졌을 때 고압제도 당조직과 동무들이 저를 고무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단 초창기에 처음으로 총서작품을 쓰던 작가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부끄러운 원고를 밤새워 읽으시고 작품에 드러난 본질적인 결함들을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선배작가들도 저와 같이 실패와 좌절을 당한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장군님의 지도와 믿음에 용기를 얻고 다시 분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이의 지도와 믿음이 자신의 몸에 와닿는듯 한 느낌

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하여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과 개별적작품을 보시고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학습했습니다. 전에도 학습한바가 있지만 창작적실패의 심각한 교훈을 거친 눈으로 학습을 하니 새롭게 깨닫는바가 많아서 글줄마다 그대로 빼가 되고 살이 되는듯싶었습니다.

이무렵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쏘올리는 자랑찬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변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수준으로 비약하고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흥분을 안고 이 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새롭게 연구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패한 초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작가들이 저를 친절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방조밑에 새로운 생활소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종자를 잡아쥐고 형상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보니 실패한 초고를 부어안고 가슴을 쥐어뜯던 옛기억은 간곳없이 사라져버리고 전에없던 창작적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랄만치 거침없이 붓을 달리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 창작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나날에 하나의 문학대학을 거친듯싶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원이었지만 창작단에서는 소학교학생인 저였습니다. 창작단에 와서 어버이장군님의 지극한 사랑속에 자기 성장의 길을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창작단에서는 창립 40돐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년초부터 눈부신 창작전투를 벌려왔습니다. 새로운 창작적분위기가 창작단을 휩쓸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분위기에 이끌리면서 저도 다른 동무와 함께 한편의 작품을 완성하고 뜻깊은 창립절을 맞이합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건군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반영한 장편소설입니다.

이 작품까지 썬에 넣는다면 저는 창작단에 와서 4편의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예로부터 용장의 휘하에는 약졸이 없고 현명한 스승의 아래에는 구실을 못하는 제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저와 같이 붓이 무딘 작가가 그만큼이라도 작가로서 구실을 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스승으로, 어버이로 모셨기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제자로서 수령형상창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작단창립 40돐은 창작단의 력사에서 하나의 전환의 계기점으로 되겠지만 저의 작가생활에서도 새로운 출발계선으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슬하에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래어난다 (2)

박춘택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작가 백인준의 송가창작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59(1970)년 가을 어느날 지금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가 없는것이 제일 가슴아픈 일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작가는 죄스러움과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전사된 도리를 다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송가부터 창작했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것은 수령님을 모시는 전사의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노래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며칠동안 날마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가사를 써서 곡을 붙였으나 위대한 장군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자리에서 만수축원의 송가를 명곡으로 창작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아쉬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은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셨다고 하시면서 하늘땅의 끝까지 수령님을 따르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려는 인민의 마음을 그대로 가사에 담아야 한다고 마치 노래의 가사를 읊어주시듯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을 한 자한자 수첩에 받아쓰면서 작가는 장군님의 말씀을 원고지우에 그대로 옮기면 명가사가 되리라고 확신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만경대에서 만난 할머니며 만경봉에서 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동처럼 흘러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만수축원의 뜨거운 마음에서 핵을 골라주신것이였다. 그는 그날로 가사를 완성하였다. 주체 60(1971)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송가를 창작한 창작가들과 함께 노래를 들으시였다.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아주 잘 지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제 2절 가사에서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라고 표현한것이 아주 좋다고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작가를 보시며 이 가사는 가장 훌륭한 시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다. 백인준은 송구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사람들이여, 이 가사를 어느 한 시인이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가사의 창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이심을 잊지 마시라, 그리고 생각하시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충정의 세계를.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나오자마자 우리 나라 지경을 넘어 세계적판도에서 급속히 보급되였다. 송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인류의 축원의송가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송가 창작을 통해서도 작가를 세계적인 대문호로 되게 하신것이다.

작가 백인준은 위대한 장군님께 시와 노래를 지어드린 시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학은 마땅히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그 후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백인준은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담은 시와 가사창작에 자기의 열정을 바치면서 품위있는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서정시 《삶에 대한 송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노래한 시인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시인은 집약된 형상속에 로쇠를 모르는 영생하는 생명과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을 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장수힘을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영명하신 스승으로 우러러모시고 끝을모르는 위대한 생을 빛내갈 절절한 결의를 다지고있다.

시인은 서정시 《삶의 높은 언덕에서》, 《향도의 별》, 《력사의 날에》, 《달빛아래 다지는 맹세》 등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 크나큰 믿음과 사랑, 고매한 덕성을 자기의 체험과 감정으로 응심깊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0돛에 즈음하여 창작한 송시 《향도와 별》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 별빛 우러러 수억만사람들
삶의 진정한 길은 뜻과

인간의 높은 존엄을 느끼고
그 별빛 우러러 인민의 한가슴은
순간에서 영원을 받아안는다

아 위대한 주체의 향도성
그이 **김정일**동지 계시어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고
혁명의 미래는 창창하나니

2월의 이른 봄명절 영광의 이 아침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와 마을, 바다에서
5대양 6대주 동과 서에서
그이를 우러러 영광드린다!
주체의 찬란한 향도성 **김정일**동지 만세!

시인은 망국의 그 시절에 어깨 차지여 서글피 사라져가던 자신과 금메달을 달고 만수대의사당에 서게 된 오늘의 모습을 두고 《인간신화》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현명한 스승이신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 대해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노래한 가사창작에서도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노래 《그이 따라 나갈 때》가 바로 그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백인준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하였다.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심금을 울렸으며 그 뜨거운 감정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쳐 아침저녁으로 세차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안은 가사를 창작한 그 공로로 하여 그는 비록 우리결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추억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인준동무는 당에서 시를 쓰라면 시를 쓰고 가극 혁명을 할 때에는 가극을 쓰고 영화 혁명을 할 때 에는 영화문학을 썼다고 하시면서 것처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작품을 쓴 작가는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그가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지적하시면서 백인준동무는 아버지수령님의 손길아래에서 자라난 대문호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백인준은 50여년간의 창작기간 20여편의 영화문학, 4편의 가극과 5편의 희곡, 4편의 시집과 수십편의 명가사들을 창작하였다. 시창작에서도 서정시, 서사시, 담시, 풍자시, 정론시 등 시문학의 모든 종류를 포괄하고있다. 작가 백인준처럼 시와 희곡, 가극과 영화문학 등 여러 형식에 정통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그 런 작가는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는 백인준이야말로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들어 키우신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작가로서 백인준이 세계적인 대문호로서의 명성을 지니게 된것은 그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의도와 요구를 자기 작품에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언젠가 한 일군이 그에게 사람들이 선생을 다재다능한 작가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것처럼 시도 가극도 영화도 모두 막힘없이 쓰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하였다.

《그런 말씀 마시오. 다재다능이라니요. 난 작품에 우리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을 그대로 형상으로 옮겼을뿐이지요.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영화문학도 창작하고 가극도 시도 쓰는거지요. 난 50여년동안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과 가르치심을 받으며 창작을 하고있소.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나의 창작의 걸음마를 떼주시고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요》

그는 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것이 창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바로 거기에서 작가의 개성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여편씩 완전히 새롭게 썼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러한 창작적고심과 작가적노력을 깊이 헤아려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9(1960)년 11월 27일에 발표하신 교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받아안고 그는 영화문학 창작을 결심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영화예술이 뒤떨어졌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영화문학에 결려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그는 영화문학 《한마음으로》를 창작 하였으나 그것은 명작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영화의 주제가 《오직 한마음》이였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영화도 주제가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주제가 《오직 한마음》이 명가사, 명곡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 노래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아버지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인민들의 마음을 노래한 이 노래를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곡으로 빛을 뿌리게 해주신것이다. 작가는 주체 54(1965)년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1, 2부)를 창작할 때부터 위

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행운을 지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작가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며 그의 창작을 세심히 지도하시었다. 작가의 인생 행로에도 폭절이 있었다. 그가 정전후 창작한 연극 《최학신의 일가》가 《반동작품》으로 낙인되었다. 주체 44(1955)년에 공연된 이 작품은 관객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작가동맹의 일부 지도일군들이 긍정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부정인물인 반동목사를 기본 주인공으로 내세운것은 매우 엄중하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을 《부인》하고 《자본주의 자멸설》을 선전한 《반동작품》이라고 하며 공연을 중지시키었다. 작가는 번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안겨주신 분은 아버지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를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1, 2부)에 대한 지도로부터 시작하시었다. 그리하여 백인준은 그이께서 지도하신 첫 예술영화의 영화문학을 창작하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

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동작품》을 썼다는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무릎을 마주하고 영화문학과 영화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성장의 길에서》의 영화문학을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백인준을 재생시켜주시었을뿐아니라 그후에도 정치적생명의 보호자가 되시어 늘 극진히 보살펴주시었다.

영화부문에 어느 한 창작단이 조직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를 그 창작단의 작가로 임명해주시고 그후에는 부책임자로, 책임자의 중책까지 맡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런 믿음, 이런 사랑으로 작가를 문학예술혁명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놀도록 하시면서 시대의 명작을 빛나게 창작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30 여년세월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과 가르치심을 받으며 그는 문학예술계의 로장으로 성장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지원》의 발걸음

장명길

한편의 노래를 지으려
먼 출장길 다녀올 때
마음속에 따라걷는 자욱이 있어라
내 삶의 길 어디서나 앞서간
《지원》의 성스런 발자욱...

눈서리에 파묻혀 괴롭받는 강산에
소생의 양춘을 안아오시려
김형직선생님
철창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자욱
사선도 두렵없이 헤치신 자욱

희생도
고생도
그 모두 각오하고 나서신 길에서
선생님 바라보신 그 앞날이 아니냐
내가 오늘 부럼없이 안겨사는 세월
인민의 봄이 웃는 파사로운 이 세월이

저 하나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면
단 한걸음도 내디딜수 없는
위대한 선구자의 자욱!

오직 하나
짓밟힌 겨레를 구원하시려
그리도 원대한 뜻을 안고 사셨기에
동지를 얻는 먼길도
선생님에겐 돌도 없는 락이였고

까막눈을 깨치는 아이들의 글소리
선생님에겐 돌도 없는 기쁨이었나니

정녕
선생님의 한생은
원대한 애국의 걸음으로 이어져
이 강산에 러명을 불려오신 생애
20년대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이어지는 성스러운 자욱자욱

선생님은 《지원》의 그 걸음으로
우리 가는 삶의 길 앞장서 가신다
피줄로만 이어질수 없는 민족의 대
원대한 애국으로 이어주시며
수천만 만경대식솔들을 거느리고
아버이로 앞장서 가신다
스승으로 앞장서 가신다

내 그래서
가야 할 길에 걸음 떠질 때면
마음속에 《지원》의 글발을 새겨보나니
우리 장군님 받드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 새겨여주는
《지원》의 발걸음이어!
성스런 애국의 발걸음이어!



조인영

어머니는 나를 철이라는 이름 대신 둘째라고 불렀다. 내가 쌍둥이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에 나간 아버지는 락동강계선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어머니는 비분에 몸부림치면서 입대를 탄원하였다. 나를 할머니한테, 첫째를 외할머니한테 갈라 말기된 곧 군복을 입었다.

늙고 병약한 할머니들에게 네살짜리 철부지쌍둥이를 한꺼번에 말기기는 아름답 일이었던 것이다,

엄마품을 떨어질 때 우리는 서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울었다. 하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애들아, 울지 말아. 내가 알아서 사다주마.》

우리는 그 소리에 울음을 그쳤다.

《그래그래, 용쿠나. 어머니 인차 돌아온다.》

어머니는 인차라는 말에 력점을 찍으면서 우리를 꼭 껴안아 입맞춰주고는 혼연히 떠나갔다.

지금에 와서 내가 《혼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쌍둥이형제를 갈라 말기고 기약할길 없는 싸움길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이 어떻게 찢기고 쓰러졌겠는가를 모성이 아닌 그 누가 헤아릴수 있었으랴.

그렇게 떠났던 어머니는 4년세월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헤어질 때 네살이였던 내가 여덟살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형 첫째에 대한 생각을 거의나 잊어버렸었다. 어머니는 우리 쌍둥이형제를 나란히 앉히고 찍었던 사진을 군복저고리 속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 첫째는 곱슬머리에 두릿두릿한 검은 눈은 커다랬다. 머리를 서로 모아 숙이고 해죽이 웃고있는 쌍둥이형제의 모습은 신통히도 하나같았다.

사진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으며 두눈을 축축히 적시었다.

4년세월 나를 손끝에 받들어 키워온 할머니의 앳은 눈까풀이 파르르 떨리며 입귀가 실그러졌다.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에 젖은 모습을 영문도 모르고 번갈아보았다.

사연인즉 한결을 먼저 첫째를 찾으러 외가집마을에 들렸던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온것이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병약한 외할머니는 첫째를 데리고 북으로 갔다는데 지금껏 행방이 묘연하다는것이였다.

외할머니와 첫째를 찾아 떠난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곧 한달동안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였지만 어데서도 시원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머물게 된 곳이 협곡이라는 마을이였다.

군사분계선이 가까운 이전날의 전선마을은 궁벽한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몇집 안되는 초가마가리에는 전쟁이 끼친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있었다.

마을의 집들엔 미제놈들의 세균무기전염병이 돌고있어 외부인원들을 격리시키고있었다,

어머니는 하는수없이 진료소에 들러 하루저녁 묵어갈 결심을 했다.

어머니가 진료소문을 두드리자 뺨끼를 칠하지 못한 웅이투성이 소나무판자문이 열리면서 새라렇게 애젊은 청년이 불쑥 머리를 내밀더니 어머니와 나를 잠시 여겨보았다.

그가 바로 22살의 총각진료소장 한경림이였다.

어머니는 자기소개를 하고 진료소에서 하루밤 묵어가차고 했다. 젊은 소장은 군의소 군의였던 어머니를 매우 반갑게 맞아들이었다.

우리는 통털어서 한칸밖에 안되는 새로 지은 진료소에 들어갔다. 전기도 못들어온 두메산골 협곡마을에 얼마전에 생긴 진료소건물은 한심했다.

벼짚이영을 이은 토벽집은 경림소장이 와서 마을 로약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의학전문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총각준의 한결림소장이 혼자서 짤짤 매면서 내과, 외과, 소아과는 물론 산부인과까지 보면서 드문히는 해산방조도 했다고 한다.

진료소벽은 붉은 진흙으로 알뜰히 매질했고 창문에는 기름칠한 종이를 발라 부유스름한 저녁노을이 비껴들었다.

《준의동지!》

한결림소장은 대바람에 어머니를 군대직무와 존칭을 붙여부르며 대단히 반가와했다. 전선준의였다는 점이 한결림을 매우 반갑게 한 모양이었다.

진료소장은 애원하듯 절절한 억양으로 말했다.

《군에서 아직 보건의공을 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게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마을에 미체의 세균무기에 의한 전염병까지 돌아서... 혼자선 정말 힘듭니다. 준위동지! 혹시 정 바쁜 길이 아니라면 얼마간이라도 여기 머무르면서 마을의 환자들을 돌보아주시시오. 제가 군보건과랑 리인민위원회랑 찾아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푸르스름해지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전화에 그을고 나이가 들었어도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가무스름한 살갗에 검고 휘둥근 두눈, 좀처럼 심중의 고충을 하소연하지 않는 조그마한 입, ...

견장없는 너성군복을 가튼히 입은 어머니가 방금 벗어놓은 뚱뚱한 배낭(그속에는 어머니가 전선간호장시절에 메고 사선을 넘나들던 적십자표식의 치료가방이 들어있었다)을 잡은채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정말 막부득한 사정이군요.》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다. 어머니는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떠난 걸음이라는걸 얘기하지 못할가. 어머니는 드디어 결심한듯 피로움을 이기며 입을 열었다.

《하긴 나한테 급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위급한 환자들 적지 않다는데 외면할수가 없군요. 당분간 소장선생을 돕겠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급한 일에 대해서는 까뻐히 말하지 않았다. 경림소장은 너무도 좋아서 입이 벅글 벅글해졌다. 이렇게 첫째를 찾아 떠난 어머니는 뜻하지 않던 일에 그만, 발목을 묶이우고말았다.

X

협곡마을에서의 한두달이 눈깜박할사이에 지나갔다. 어머니와 경림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해 세균무기전염병환자들은 모두 무사했다. 드바쁜 나날속에서도 어머니는 첫째생각으로 발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행방을 알길 없는 어머니로서는 그이상 더한 피로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무렵 어느날 나에게는 뜻밖에도 동생이 하나 생기었다. 어머니와 나 둘이서 지내던 우리 집안에 난데없이 첫먹이애기가 생긴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고 경사이기도 했다. 파르릉 따당...

번개치고 비오는 여름날밤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어머니가 강보에 싸인 갓난애기를 품에 안고 진료소치료실로 들어왔다. 애기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헤덤비면서 치료용 널침대 위에애기를 눕혔다. 경림소장이 어인 일인지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어머니의 거동을 우물하고도 애바르게 지켜보고있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빈젖을 물리며 애기를 달랬다.

비가 몇자 어데론가 나갔던 어머니는 날섣덕에야 돌아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어머니의 품에서는 그때까지도 식지 않은 우유병이 나졌다.

《엄마, 이 애긴 누구네 애기나?》

《네 동생이다. 사랑하거라.》

《피, 거짓부리. 엄마가 언제 낳나?》

《엇저녁에 낳았단다》

《어데서 낳았나?》

《애두,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말렴》

나는 어머니가 것처럼 내 말허리를 무정하게 끊어버리는걸 처음 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다.

(갓난애기는 내 동생이다. 엄마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애기가 별로 귀엽고 가깝게 여겨졌다. 이튿날 어머니는 어데론가 환자를 보러 간다면서 애기가 깨어나면 가슴을 다독다독 두드려주고 정 울게 되면 병에 끼운 생고무젓꼭지를 입에 물려주라고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애기는 새근새근 잘도 잤다. 엿저녁에 밤새도록 울더니 맥이 진했던 모양이었다.

조용한 방에서 잠든 애기를 지키고있기란 정말 심심한 노릇이었다. 오히려 애기가 깨어나서 우는게 더 갑갑하지 않고 재미도 있을것만 같았다.

한동안 자는 애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나는 애기가 녀자인지 남자인지 알고싶었다.

나처럼 고토리가 달렸으면 얼마나 좋으랴.

어서 커서 살구나무에도 같이 기여오르고 앞내가에 가재잡이도 함께 다니고...

그러나 계집애라면 어떤담? 앞집 녀자에처럼

아무 놀음도 못하는 주제에 앙탈만 부리는 울보라면 얼마나 속을 태울까. 나는 호기심에 못이겨 애기의 강보짚으로 살그머니 손을 넣어 내것과 같은 고토리를 만져보려고 애썼다. 그런데 웬걸, 애기한테서는 그것이 만져지지 않았다.

계집애로구나. 나는 실망했다.

엄만 왜 계집애를 낳았담, 나는 속으로 은근히 어머니를 나무랐다.

나는 또다시 애기를 정말 어머니가 낳았을까? 언제 어디서 낳았을까?

하필이면 왜 남자애를 못낳고 여자애를 낳았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나는 문득 애기가 입고있는 하얀 모달리천속옷을 띠어보자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애기는 내 친동생이 아니었다. 엄마가 낳은 애기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보름전 어느날 멀지 않은 개울 건너마을로 해산방조를 갔었다. 그때 갓난이한테 대장 입힐 옷이 없으면서 내 단벌 모달리천속옷을 잘라서 손바느질로 애기옷을 지어가지고 달려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X

그날 어머니는 동생벌되는 한경림소장과 진료소의 너렁청한 단칸짜리 방을 산자를 엮고 진흙을 발라서 네칸으로 만들고있었다.

소장방 겸 내과진찰실, 가운데칸은 부엌 겸 약 달이는 칸, 다음 방은 외과처치실과 주사실을 겸한 나와 어머니가 림시로 사는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전선에서 허리를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이따금 남몰래 허리에 손을 가져가곤 하였다.

힘든 일을 할 때면 늘 거기가 아팠던것이다. 경림소장이 궂은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옥경동지!(경림소장은 전선간호장이었으며 영예전상자이고 누이벌되는 어머니를 꼭 존칭으로 불렀다.) 오후에 개울 건너 〈린제집〉에 해산방조가는거 잊지 않았겠지요?》

《그러문요.》

어머니는 대답은 했지만 해산방조가 처음이라면서 좀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산모한테 귀뺨을 맞고 쫓겨왔던 나보다야 훨씬 낫겠지요.》

경림소장은 얼굴이 벌거우리해져가지고 언젠가 해산방조갔던 애기를 했다.

《산모는 초산부였어요. 배가 비틀리우는것처럼 아프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뒹자리를 박박 긁고 있겠지요. 아무런 해산방조경험도 없는 나는 괜히 산모의 팔을 꼭 붙들고 〈참으라요. 참으라

니깐요. 해산만 하면 아픔은 다 잊는대요.〉 하는 열빠진 소리를 하면서 산모와 함께 덩달아 매재기를 치며 돌아갔지요. 산모는 먼동이 터올때까지 한잠도 못자면서 모진 진통에 신음했지요. 산모와 함께 온밤을 뜬눈으로 허둥거리던 햇내기총각 〈조산원〉은 새벽이 가까와올무렵까지 앉아배길수가 없었습니다.

까짓거 녀자라면 다 앓는 〈병〉인데 때가 되면 모든게 제대로 되겠지, 이렇게 무사태평한 마음을 지어먹으니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름이 두눈이 내리감기였습니다. 산모에게 마지막진통이 올 때였는데 〈조산원〉은 방구석에 군드려져 코를 골았던 모양입니다. 있으나마나한 햇내기총각〈조산원〉이 잔뜩 미워난 산모가 〈가요. 썩 사라져요〉 하면서 욕설을 하는통에 혼줄이 나서 도망쳐나오고 말았단니까요. 허허 옥경동지가 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되었어요.》

경림소장은 못내 개운한 심정이였다.

《린제집》은 개울건너에 림시로 지은 초가마가 리에서 살았다. 전쟁때 림제땅에서 두 내외가 피난을 떠났는데 녀자가 미제놈들의 세균무기에 감염되어 앓는 바람에 남정네는 군대에도 못나가고 전재민구제위원회의 도움으로 거기에 살림을 쫓다고 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날무렵 남편은 안해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젊은게 후방에 있기가 쑥스럽다면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는데 정전을 얼마 앞두고 전사통지서가 왔다고 했다.

그래서 《린제집》은 유복자를 낳게 된터였다.

점심때를 가까이하면서 비는 폭우로 변하였다.

어머니는 개울물이 불어날것을 걱정하면서 부랴부랴 준비를 서둘렀다. 야전병원에서 쓰던 위생가방에 (가방복판에는 류달리 새빨간 에나멜로 그린 적십자표식이 찍혀있었다.) 주사통, 가위, 집게, 핀셋, 메스, 봉합침과 명주실, 흡입기 등 해산방조 때 필요한 일체 약품과 의료기구를 간간히 실사하여 챙겨넣었다. 오후 첫시간에 어머니는 개울쪽으로 달려갔다. 밧줄을 모르고 퍼붓는 폭우로 돌다리위에 길게 건너놓았던 통나무다리가 꺼내려갔다.

어머니는 당황했다. 시커먼 산골타락가 바위돌을 굴리며 사품쳐흐르는것이였다. 비는 여전히 멎지 않고 억수로 퍼부었다. 어머니는 개울 아래위로 안타깝게 오르내리면서 건너갈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어느곳이든지 매한가지였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은 발을 들어놓기 바쁘게 치마자락을 물어채며 당장 쓸어놓힐것처럼 갈겨졌다. 어머니는 안타까웠다. 조산원을 목이 빠지게 기다릴 홀로 사는 《린제집》을 생각하니 당장 물에뛰어들고싶었다.

그때 등뒤에 나타난 너댓명의 청장년들이 《존의선생님, 위험합니다!》라고 하면서 달려왔다.

개울건너포전에서 오후에 무슨 회의가 있어 떠났다는 마을초급일꾼들이었다. 어머니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건느면 훨씬 쉬울것 같았다. 사품치는 개울물을 잠깐 들여다보던 청년들이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리인민 위원회에서는 개울이 불어나서 건느기 어려우면 회의를 뒤로 미룰터이니 서둘러 물에 들어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돌아설 차비였다.

몹집 큰 청년이 말했다.

《선생님, 안되겠습니다. 물이 썩 다음에 건너가야 합니다.》

《아니 예요. 나만은 무조건 건너가야 해요. 두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있어요.》

《야, 준의선생님! 저 래질치는 물을 보십시오.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납니다.》

몹집 큰 청년은 두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어머니를 만류하였다.

《동무들이 정 못 건너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건너가겠어요.》

어머니는 서운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나서 위생가방을 머리에 이고 갈개치는 개울에 발을 들여놓았다.

탕수가 순간에 어머니의 아래도리를 세판게 휘감으며 아래로 밀쳐뜨렸다.

《준의선생님!》

청년들이 뛰어들며 어머니의 팔을 부여잡았다.

누군가는 어머니의 머리우에서 위생가방을 내리 쫓아 붙안았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동아리가 된 그들은 여느 날 같으면 감히 건너볼 엄두도못했을 사나운 개울물을 한치한치 건너가고있었다.

그들이 개울복판에 들어섰을 때 물은 가슴노리를 치받으며 흘렀다.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면서 휘친거렸다. 바닥에서 물살에 굴러내리던 돌이 어머니의 정강이를 때린것이었다. 어머니는 쓰러져 물살에 떠내려갈뻔했으나 청년들이 량어깨를 떠받들고있는 덕에 용케도 물결을 박차고 한결음두결음 맞은편기슭에 도달했다.

날 선 돌에 맞은 어머니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언제 저길 돌볼 사이가 없는 어머니였다.

위생가방을 받아든 어머니는 천방지축 산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진통을 참고있던 《린제집》녀인은 그 위험한 개울을 건너온 어머니를 맞아들이며 기가 차서 눈물을 그렁그렁 솟구었다.

X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는 뜸해졌다. 협곡마을은 지독한 산골동네여서 해만 떨어지면 곧 감

감해지고 그러면 이내 여우와 승냥이가 울부짖으며 내려와 닢이나 새끼양들을 채가곤 했다. 경림소장이 부엌에서 저녁을 지었다. 나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인민학교(당시) 1학년 《국어》 교과서를 펼쳐놓고 송탄유등불아래에서 《오이, 아이, 가지, 고기》를 큰소리로 읽어대었다.

낮에 삶은 감자 몇알로 요기를 한 배에서는 쪼르륵소리가 났다.

드디어 경림소장이 자작 끓인 보리와 감자범벅을 검정떡배기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자, 먹자. 근데 배고플텐데 왜 껍뻍 소리지르면서 글을 읽니?》

나는 시뭇이 웃었다. 산짐승소리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우리는 범벅을 소금에 찍어서 맛나게 먹었다.

경림소장이 근심어린 낯빛으로 말했다.

《네 어머니가 고생하게 됐다, 햇내기소장을 만나서. 조산원이 따로 없으니 외과준의가 소갈데 말갈데 다 가야 하는구나. 후유- 제발 순산이었으면 좋겠는데... 산모가 출창 않던 몸이여서...》

난 워낙 어른들이 궁상스레 우는 소리하는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장이 다른 얘기를 해주었으면 했다.

《소장아저씨, 얘기해줘요. 재미있는 얘기.》

경림소장은 한참 난처해했다.

《난 재미있는 얘기가 없단다.》

《아무 얘기가 해줘요. 어른이 왜 재미있는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뭐이 어른이나? 너의 어머니에 비하면 까 마득하게 어린애지.》

《어쨌든 해줘요.》

소장은 나의 떼질에 입을 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무슨 이야기인가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마감까지 줄거리도 신통치 않은 얘기를 즉석에서 꾸며내느라고 공공 갑자르곤 했다. 그러는 모양이 오히려 더 재미있어서 심심풀이가 되었다. 밤은 퍼그나 깊이졌다. 비도 어느덧 그쳤다. 밖에서 갑자기 잦은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였다.

《엄마!》

내가 반기며 문을 열었다. 얼굴이 땀에 뜨고 온몸이 폭삭 젖은 어머니가 치마에서 물을 줄줄 흘리며 들어섰다. 어머니의 해쓱하니 질린 가름한 닳알형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졌는데 총혈된 커다란 두 눈이 불안스레 허둥거리고있었다.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팔을 걷어올리면서 다급히 웨치었다.

《소장선생! 빨리 채혈! 산모가 위급해요.》

《옥경동지! 퇴원한지 얼마 안되는 병약한 몸에서 어떻게 피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뽑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AB 형이여서...》

《산모의 생사가 왔다갔다하는데 무얼 주저하겠

어요. 어서 뽑아요. 난 O 형이에요.》

소장은 채혈주사기를 들고 어쨌으면 좋을지 물라 망설이였다.

《주저하지 말아요, 소장선생!》

어머니의 단호한 요구에 경림소장은 어쩔수 없이 주사침을 피줄에 박았다. 어머니는 산모결에서 피를 뽑으려 했으나 너무도 어두운 등잔불밑에서 피줄을 정확히 찾을수 없었다고 했다. 해산은 난산이었다고 한다. 산모가 허약하여 진통미약이 오는 바람에 거의나 죽은 아이를 받아냈다.

어머니는 다급히 부엌에 나가 더운물을 함지에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에 가사에 빠진 애기를 담근뒤 찬물 묻힌 손으로 갓난이의 이마며 심장부위를 찰싹찰싹 두드려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이전에 산부인과 의사들한테서 들어두었던 가사에 빠진 아기들을 소생시킬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랬더니 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아기의 잠자던 심장이 놀래여 뛰면서 《응아》하고 고고성을 터치였다.

어머니는 다급히 앞가슴을 헤치고 서늘해진 피덩이를 꼭 꺼안아 체온으로 덥혀주고있었다.

죽은줄 알았던 애기가 살아나 자주빛 몸뚱이가 장미색으로 변해가자 산모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더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애기를 안고 돌아가는 사이에 산모는 출혈을 계속하였다.

지혈제를 주사했지만 피가 멎지 않아 어머니는 한밤중에 개울을 건너온것이였다. 어머니는 그 길로 돌아섰다. 경림소장이 불방망이를 들고 따라나섰다.

《소장선생, 돌아서세요. 진료소를 비웠다가 급한 환자가 찾아오면 어찌겠어요. 물은 어제낮보다 퍼그나 줄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있게 개울을 건너갔다.

이튿날 아침해가 퍼그나 떠올랐을 때 어머니는 돌아왔다.

얼굴엔 피로가 실려있었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고있었다. 새 생명을 출생시켰다는 기쁨, 두 생명을 살려낸 기쁨이 어머니의 가슴속에 형언할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준것이였다.

그 무렵에 쓴 어머니의 일기 한토막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있다.

사랑이란 얼마나 힘있고 위대한것인가. 이 세상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삶의 존재에 대하여 상상이나 할수 있을가, 그 사랑으로 하여 삶이, 생활이 약동하는 우리 세상을 나는 자랑한다.

인간의 생명을 출생시키고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피는 보건일군의 일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어데 있으랴...

어머니는 한없이 기쁜 인상이였다.

《소장선생, 산모도 애기도 다 무사했어요》

어머니가 두눈을 습벅이며 갔던 일을 이야기하자 경림소장이 다행이라는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옥경동지!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틀림없이 두 죽음이 날뻔 했습니다.》

잠시후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엄마, 애기가 남자나, 여자나?》

《너자애더라 오목오목한게 자라면 귀여울것 같더구나.》

어머니는 대답하면서 우리 가정의 전재산이 쪼저져있는 두리몽실한 보통이를 풀어헤치더니 그속에서 무슨 옷가지인가를 찾았다. 어머니는 드디어 겨울철에 내가 입던 모달리천내의를 꺼내여 그것을 침대우에 퍼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리해시키듯 조용히 말했다.

《칠이야, 어찌겠니? 애기는 알몸뚱이로 태어난단다. 그런데 〈린제집〉은 면데서 피난온 전재민이다보니 천쪼박지란 입은옷밖에 없더구나. 이결루 먼저 애기옷을 해입히자.》

나는 어린마음에도 옷을 못 입고 알몸으로 헌담요에 싸여있다는 애기가 불쌍했다. 그래서 다가올 겨울엔 무슨 내의를 입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도 고개를 끄덕거렸었다...

어머니가 낳았다는 갓난애기는 그때 어머니가 만든 모달리천내의를 입고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어제 애기엄마 하나가 미제놈의 세균병후유증으로 사망했다던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다. 애기는 분명 《린제집》의 애기였다.

어머니는 불쌍한 애기를 키우려고 안아온것이였다. 나도 어머니의 그 마음이 고마왔다. 그래서 모든걸 알면서도 모른체 하기로 했다.

계집애이긴 해도 동생이 있다는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애기는 이따금 어머니의 빈젯을 빨면서 보챌때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거의 날마다 10 리밖의 염소기르는 집에서 반아와 먹이는 우유덕으로 젖살이 보통보통 오르며 잘도 자랐다.

어느날 휘영청 달밝은 저녁이였다. 환자도 없는 이런 밤이면 처량한 밤새울음소리에 마음은 울적했다. 순희를 품에 안고 암죽을 먹이던 어머니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겨 달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분명 첫째를 그리며 이밤도 잠 못들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역시 같은날 한 어머니의 태줄을 끊고 태어난 형이 그리워 마음이 우울해졌다.

나는 문득 어머니의 저린 가슴을 두드렸다.

《엄마, 왜 형을 찾으려 안 가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머니는 한참만애야 며칠전에 군에서 내려온 보건과장이 한 말을 전해주었다.

《둘째야. 어머니의 가슴은 더 쓰리고 아리단다.

하지만 당장은 떠날수 없게 되였다. 얼마동

안 어머니! 여기 진료소 준의로 있어달라는구나. 사정이 딱한데 어찌 홀 떠난단 말이나.》

그러다가는 도대체 언제 첫째를 찾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문득 어머니가 야속스런 생각이 들었다.

남의 얘기를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도 어쩌면 제 자식 찾을 생각은 하지 않을가.

다른 어머니들같으면 그러지 않을것 같았다.

나는 시무룩해진 얼굴로 순회를 바라보았다.

어린 마음에도 생각할수록 악독한 세균무기병마를 퍼뜨린 미제놈들이 한없이 증오스러웠다.

악명높은 ㄸ세균무기는 왜놈판돈군 《731 부대》의 세균무기전범자들에 의하여 연구되던것을 일제패망후 미제놈들이 완성시킨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합작품으로서 간악한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의 머리위에 처음으로 퍼부었던것이다.

따라서 보건방역부문에서는 ㄸ세균무기전염병에 대한 파악이 거의나 없었고 립상학적인 경험은 더구나 미약한 형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날마다 환자치료정형을 치료일지에 꼭꼭 정리하였고 일지마감에는 날마다 느낀 소감을 일기처럼 적어넣기도 했다.

그 나날에 쓴 어머니의 치료일지에는 이런 글줄이 적혀있었다.

...모성의 사랑이란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것인가.

전쟁 3 년간 나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고 적의 파편이 몸에 박혔을 때에도 쌍둥이애들이 이기고 울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쓰러지지를 앓았었다.

이기자! 이기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자! 이것이 어머니로서 내 삶의 소원이기도 했다.

하나 원쑤 미제의 세균무기병마에 앓는 귀중한 생명들이 나에게 운명을 맡기고있는 이때 나는 내 아이들만의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절감했다. 모성애란 순수 본능적인것일수 있다.

그것이 원시적인것이라면 동지적사랑으로 승화되는 고결한 인간애는 우리 시대의 참된 사랑이 아닐가.

모성의 사랑보다 크고 열렬한 인간애가 없어야 어찌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에 베풀어주신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험곡마을인민들에게 속속들이 안겨줄수 있으며 그들을 악독한 ㄸ세균무기병마에서 구원할수 있겠는가. 어제밤 초불밑에서 책을 읽던 둘째가 문득 초불은 왜 연기도 재도없는가고 물었다. 글썽, ... 나는 대답을 주저했었다.

오늘 밤엔 이렇게 대답해주어야 할가봐. 자신을 깡그리 태워바치는 사랑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기때문이라고, 첫째가 그림다. 혁이! 너 어디에 있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렴, 엄마가 곧 찾으러 가마. ...

X

어느날 어머니는 허리의 파편상처자리가 아파서 널침대에 순회를 껴안고 누워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났다.

《옥경준의동지!》, 어머니는 야전군의소시절에 귀에 익은 정답고 반가운 목소리에 너무도 기뻐서 옷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아앗!》하고 입술을 옥물며 다시 누워버렸다. 너무도 갑자기 무리한 힘을 준 탓에 허리가 뜨끔했던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여니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상기된 석출배기 젊은 군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옥경동지! 중사 리명호가 찾아왔습니다!》하고 거수경례를 하며 들어서는것이였다. 《아니, 이제 몇해만이에요? 이 산골에 이런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구만요. 어서 들어와 앉아요.》

어머니는 기쁨에 못이겨 아픔을 무릅쓰고 옷몸을 일으키였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간호장동지!》

명호중사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너무도 반가운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허리를 쓰다보니... 그대 명호동무의 건강은 어때요?》

《후방병원에서 완치되어 부대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중대장동지가 편지를 보냈더군요. 군관학교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 참 잘되었군요. 근데 이 산골엔 용케 찾아왔구만요. 내가 보낸 편지 받았겠지요?》

《예, 그 주소대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이야기가 오고갔다. 명호분대장이 더 많이 이야기했다.

《애가 그렇게 보고싶다고 하던 쌍둥이첫째나 둘째겠군요. 그런데 한 아이는요?》

명호중사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자 어머니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어머니는 한참만에야 첫째를 찾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했다.

《아니 그러니 둘째라던 철이만 찾아오고 첫째는 아직 못찾았던 말이에요?》, 명호중사는 놀랐다가보다 매우 안타까와했다. 《근데 이 얘기는요?》

명호중사는 어머니가 안고있는 순회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지은 눈을 끔찍이며 《우리 얘기에요. 철이의 친동생.》 하고는 그쯤 알아두라는듯 더 말하지 않았다. 《어데다 수소문해서라도 첫째를 찾아야지요.》, 이렇게 말한 명호중사는 갓난애기를 안고있는 어머니의 애모쁜 심정을 더 키질하고싶지 않았는지 이내 말머리를 돌리고말았다. 《옥경동지, 생각하세요? 미제침략군놈들의 비행대가 적십자기발이 나뭇기는 우리 군의소를 무차별 폭격할 때 다리 못쓰는 나를 업고 방공호를 향해 달리던 일이 말이에요.》

(분대장은 나를 보고 이야기했다.) 악독한 승냥이미제놈들의 줄폭탄이 가까이에 떨어지는 순간 너희 어머니 업고달리던 나를 내려놓고 몸으로 덮었다. 그때 파편이 어머니의 허리에 박혔지. 오래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평생 피로울거다.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야 한다.》

그제서야 나도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게 되었다. 잠시후에 명호중사가 계속했다. 《준의동지! 그해 장마가 참 지독했습니다. 며칠째 못지 많고 억수로 쏟아진 폭우로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입원병동의 천막바닥은 물이 정쟁이까지 차올랐지요. 그때 옥경준의동지는 다리 못쓰는 나를 업고 온밤을 새웠지요. 내려놔달라고 몸부림치던 나를 진정시키느라고 준의동지가 들려주던 말이 아직 가슴에 못박혀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면 할머니들한테 갈라서 말긴 쌍둥이형제를 찾아서 한품에 안고싶다던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저미는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 두해가 다 돼오는 오늘까지도 첫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무리 정황이 어렵다고 해도 어머니로서야 제자식 찾는 일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명호중사의 입에서는 은연중에 아니 하자던 첫째이야기가 또다시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설음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입술을 꼭 옥물고 명호중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글쎄 그 일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군요. 각지 애육원들과 련계를 취했어요. 이제 세균무기전염병이 뜸해지는 때에는 떠나보려고 마음먹었지요.》

명호중사가 어머니의 말을 중동무이었다.

《근데 여기엔 영 놀라았으니까?》

《글쎄, 나도 생각이 많았어요. 허리가 말쑤할 때 군 병원같은데 들어가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기도 하구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도 읍거리가 낫겠지요. 그런데 며칠전에 군보건과장이 내려와서 의전졸업생들이 배치되어올 때까지 좀더 있어달라고 사정하듯이 얘기하더군요. 여기 일을 생각하면 내 사정을 먼저 이야기할수가 없었어요. 얼마전에도 산모 하나를 세균무기전염병후유증으로 잃었습니다. 여기에 온지도 두어달 돼오고 사람들과 정이 들어가는데다 식구도 하나 늘고보니 협곡마을을 쉬이 떠날것 같지 못해요.》

명호중사가 진정으로 가슴아파했다.

《그러다 여기에 물려와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첫째도 찾지 못할가봐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가볍게 도리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명호동무, 형편이 나아지면 곧 찾으러 떠날테야요. 이제 더는 그 얘기를 하지 말자요.》

《알겠습니다. 나도 돌아가면 여러군데 수소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도와주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당부했다. 잠시후에 어머니가 말머리를 돌리었다.

《참, 다리는 이제 완치되었겠지요?》

《네. 보시겠어요?》, 명호중사는 일어서더니 빠른 박자의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며 한바탕 춤을 추었다. 날이 저물고있었다. 어머니는 철늦은 꽃강냉이를 쪼다. 명호중사는 배낭에서 건빵이며 과자, 사랑가루를 꺼내놓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반찬삼아 저녁을 맛나게 들었다.

《철이야, 저기 이가 시린 박우물을 한바가지 떠오렴.》

나는 재빨리 자리를 일었다. 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 어쩐지 얘기가 끊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호중사가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근심어린 인상으로 말했다.

《그러니 이따금 말쑤부릴 허리를 가지고 무척 부담스럽게 되었고요.》

나는 어머니가 나 없는사이에 순희얘기를 했다는걸 눈치챘다. 이튿날 아침에 명호중사는 문을 나섰다. 《옥경동지! 내 어떻게 해서라도 혁의를 꼭 찾도록 수소문하고 자주 편지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명호분대장동무. 군관학교에서 잘 배워 어엿한 지휘관이 된 다음에 꼭 들리세요.》

어머니는 순희를 안고 멀리 동구밖까지 명호중사를 배래워주었다.

X

이듬해에 군에는 의전졸업생이 두명밖에 오지 못했다. 군에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발목을 묶이우고말았다. 마을사정을 잘 아는 어머니는 쉬이 떠날념을 못했던것이다. 그 무렵에 마을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진료소옆에다 두칸짜리 살림집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우리를 아예 물려앉아달라는 말없는 당부였다. 아래방에는 어머니와 순희 그리고 나 셋이서 살았고 윗방에는 독신인 경림소장이 거처했다. 그해 가을부터 마을에서는 또다시 세균무기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밤낮이 따로 없이 험한 산골마을의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자리잡은 초가집들을 찾아다 니면서 치료전투를 벌리느라고 어머니와 경림소장은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진료소에 돌아오곤 했다.

내가 종종 우는 순희에게 인공젖꼭지를 물리고 감자를 깎아 삶아야 했다. 어머니의 발기로 진료소 치료실에다 림시로 입원실을 꾸리었다. 마을의 환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치료하니 어머니와 소장선생의 수고가 덜어진것은 물론 환자치료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어느날 경림소장이랑 함께 점심을 먹고있는데 우편통신원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명호증사한테서 온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나와 경림소장은 편지내용에 은근히 마음이 쓰여졌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명호증사가 군관학교에서 공부를 재미나게 하고있다는 이야기만 했다.

초저녁에 환자치료를 하고난 어머니는 경림소장과 교대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고 자리에 누웠다.

우리끼리 있을 때에야 어머니는 편지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명호아저씨가 첫째를 찾자고 무진 애를 썼더구나. 사방에 편지도 띄우고 만나는 군대들한테 모두 그런 사연을 이야기했다는구나. 하루는 청진에 집이 있는 군관학교 학생이 찾아왔더라. 그 사람이 정전된 이듬해에 휴가로 집에 가보니 난데없는 여덟살짜리 사내애가 하나 있는데 부모들이 전쟁때 얻어다 키운 애라고 하더라는구나. 폭격때 부모잃은 아이라고 하는데 보호자를 종내 찾지 못해서 그 집 부모들이 키웠단나. 집에다 사진을 하나 찍어보내라고 편지를 보냈더니깐 그때면 혹시 첫째를 찾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첫째가 틀림없으면 즉시 떠나서 데려오자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명호증사한테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편지속에 넣어보낸 아이의 사진은 내 모습과 신통히도 똑같은 첫째였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삼키며 첫째의 사진을 볼에 비비었다.

《첫째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너를 업고 떠났다는 외할머니는 어찌 되었느냐?》

어머니는 기쁨 절반, 설음 절반으로 눈물을 머금으며 뇌이였다. 편지에는 그때의 사연이 구체적으로 써여있었다. 미제공중비적들의 무차별폭격으로 북으로 가던 피난민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폭격이 끝난 뒤 현장을 수습하던 주민들은 사망자들을 뒤산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울고있던 서너살짜리 사내애는 보호자를 종내 알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전재민구제위원회》위원장이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고 한다.

그 위원장이 바로 명호증사네 군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무의 아버지였다.

위원장이 첫째에게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겨우 울음을 진정 한 그는 《허어-기》라고 서툴게 발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혁이일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지만 성은 몰라서 주인집의 성을 붙였었다는 것이었다. ...

《철이야, 이젠 됐구나. 환자들이 말끔히 나오면 우리 함께 혁이를 데리러 가자. 고마운 주인집에

인사도 하고.》

어머니는 나의 손목을 꼭 잡고 무등 기뻐했다.

《어머니, 래일이라도 당장 떠나자요. 예?》

나는 몸을 흔들며 졸라대었다.

어머니는 딱해하였다.

《아직도 환자들이 있는데 홀 떠나면 어찌겠니. 우리 좀 더 기다리자꾸나.》

듣고보니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하나 마음만은 울적하기 그지없었다. 증도에 들어와 나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소장은 자기한테 솔직히 터놓지 못하는 각박한 사정이 우리 집에 있다는걸 은연중에 눈치챈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림소장에게 그런 부담거리까지 안겨주고싶지 않아 종내 털어놓고 말해줄수 없었다.

어느덧 첫눈이 푸실푸실 날리는 겨울이 왔다.

환자들은 하나 둘 나아가고있었다.

어머니는 몇안되는 환자들마저 완치되면 첫째를 데리러 떠날 마음으로 밤 밝혀가며 치료사업에 정열을 쏟아붓고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어머니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쳐들줄이야.

애어린 순희가 그만해 천세군무기병마에 걸린 것이었다. 순희는 밤새도록 목구멍에서 가래끓는 소리를 내면서 고열에 허덕이였다. 그리고는 끝없이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자주빛같이 되어 꼭 꼭 숨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워낙 연약한 체질인데다가 인공젖먹이기로 키우다보니 병견딜힘이 약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순희를 안고 모대기였다.

숨길에 가래가 막혀 꼭꼭 갑자를 때면 순희의 입에다 자기의 입을 대고 힘껏 피가래를 빨아내곤 하였다. 어머니의 피타는 정성에 의하여 순희의 병세는 점점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이하랴.

어머니마저 덜컥 천병마에 몸져누운 것이었다.

X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앓으면서도 여전히 환자들을 치료했고 직접 병을 앓게 된 유리한 점을 리용하여 치료일지를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써놓곤 하였다.

그러느라니 어머니는 쉬이 일어날것 같지 못했다.

나는 절망에 몸부림쳤다. 이미전에 첫째를 데리러 떠났더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야속했다. 더구나 원망스러운건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 경림소장이었다.

드디어 나는 울분을 토하면서 경림소장에게 사연을 죄다 이야기했다.

경림소장이 당황하여 찢찢매였다.

어머니는 노했다. 나는 그때처럼 노한 어머니를 처음 보았다. 침상에 누워있어 매를 들지 못한것이 다행이었다.

《철이야, 너 누구한테 그런 엇드레질이나? 귀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건 어머니의 본분이야. 그래서 혁이 찾는 일도 뒤로 미루어온거지. 환자치료에 눈코 뜰새없이 바쁜 소장선생한테 그 말을 해서 어찌자는거냐.》

나는 잘못을 깨달으며 얼굴을 붉혔다. 더 바빠한것은 역시 경림소장이었다. 얼굴이 벌개진 그는 너무도 죄송스러워 몸들바를 몰랐다.

《옥경동지! 제가 정말 급한 사연이 있는걸 모르고 발목을 붙잡았됐군요. 욕 많이 하십시오.》

《소장선생! 욕은 무슨 욕을 하겠어요. 보건일군이라면 어느 누가 협곡마을을 그저 지나칠수 있었겠나요. 이제 순희랑 나랑 나으면 곧 혁이를 데리러 갔다 오겠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지으며 경림소장을 안심시키였다. 그날부터 어머니와 순희의 병세는 점차 완화되어갔다. 순희는 제법 해죽해죽 웃기까지 했다.

어머니도 거의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무렵 경림소장은 읍에 나가야 했다. 그날은 군에서 약품을 내주는 날이었던것이다. 경림소장은 읍에 갔던길에 명호중사에게 어머니가 편치 않아서 첫째를 데리러 인차 떠나지 못한다는 사연을 전보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새벽에 떠나면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오게 되는 먼길이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씨였다. 경림소장이 떠나자 어머니는 혼자서 입원중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야 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질무렵이었다.

십리나 떨어진 산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농가집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왕진을 청해왔다. 경림소장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어머니는 기다릴수만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먼길 가려고 왕진가방을 준비하는걸 보고 놀랐다.

《어머니. 꼭 가야 하나요?》

《어찌겠니? 급한 환자를 그냥 놔두면 잘못되기 쉽단다. 소장선생이 없으니 내가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머니는 머리에 털목도리를 둘둘 감고 왕진을 청하러온 아주머니를 따라나섰다.

《어머니, 빨리 돌아와요.》

나는 순희를 불안고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세찬 눈바람이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세판게 물어뜯었다.

날이 어두워져야 경림소장은 돌아왔다

어머니가 왕진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은 경림소장은 깜짝 놀랐다. 그는 그길로 돌아서서 어머니

가 간곳으로 달려갔다. 자정이 가깝도록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 한밤중에 순희가 울며 보채었다.

나는 순희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감자를 깎기 시작하였다.

새벽이 거의 가까와서야 어머니일행이 돌아왔다.

그런데 어머니는 담가에 누워온 몸이었다.

찬눈바람을 맞으며 먼길 달려갔던탓에 환자를 구급처치하고나서 병세가 악화되어 쓰러졌다는것이었다.

나아가던 병이 되돌이를 한탓이었다.

어머니는 헛소리를 치면서도 첫째를 찾았다.

경림소장은 자기의 불찰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자책하면서 추세균무기병이 회복기에서도 찬바람을 맞으면 무섭게 되돌이한다는걸 어머니의 치료일지에 보충적으로 적어넣었다.

군에서까지 유능한 의사가 내려왔다.

할수 있는 처방을 다 해보고 약도 있는대로 써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군관학교에 있는 명호중사한테서 전보가 왔다. 어머니가 환자치료에 바빠서 당장은 떠날수 없다고 한 경림소장의 전보를 받고 보낸 전보였다. 이제 곧 방학이 있게 되니 집에 가기에 앞서 혁이를 먼저 데리고가겠다는 사연이었다.

어머니도 나도 그리고 경림소장도 너무 기뻐 밤새껏 잠을 못이루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앉아 후더운 눈물을 흘리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앓던 사람같지 않게 일어나 앉아 몇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기다렸다.

푸름해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잠깐 쪽잠이 든 어머니는 《혁이야, 네가 왔구나!》하면서 헛소리를 치곤 했다.

하루, 이틀, 사흘...

날들은 더디게도 흘러갔다.

어머니는 기다리기에 지쳤다.

그러던 어머니는 가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곤 하였다.

컴컴하게 흐린 날이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피를 토하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열이 40 도를 오르내렸다.

경림소장이 밤을 새우면서 해열, 지혈수단을 다 해쳐야 어머니는 아침녘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기력이 쇠잔해질대로 쇠잔해진 어머니는 나를 침대맡에 앉히었다. 그리고는 품속을 더듬어 자그마한 사진을 한장 꺼내었다.

바짝 여윈 웬 낯선 녀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아라, 순희를 낳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나에게 숨겨오던 우리 가정
《비밀》, 내가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모르는채 해
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철이야, 혹시 어머니가 없다 해도 너희들 셋
은 친형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한다.》

어머니의 숙연한 모습에서 나는 가슴후더운 격
정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었다.

잠시후 경림소장이 어머니에게 주사를 놓으러
들어왔다. 소장은 어머니의 전에 없이 기맥이 진
한 모습을 대하자 당황하여 눈길을 허둥대었다.

이미 운명을 예감한 어머니가 진중한 인상으로
말했다.

《소장선생, 내 한가지 당부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없게 된다 해도 우리 혁이가 오면
애들이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해서 여보란듯이
세상에 내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겐 주사가 필요
없어요. 다른 환자에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내 치료일지요. 환자들치료에
도움이 될거예요.》

어머니의 치료일지를 받아든 경림소장이 목갈
린 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옥경동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어서 자
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환자들을 완치시
켜야지요.》

소장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입술을 실그러뜨렸
다.

《참, 그래요. 그래야지요.》

어머니는 혼연히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미소일줄이야.

어머니는 혁이를 끝내 기다려내지 못하고 이틀
날 새벽에 운명의 마감줄 조용히 맞이한것이였
다.

《엄마, 눈을 떠요!》

나는 잠자는듯 고요를 지키는 어머니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다. 철모르는 순희도 방울방울 눈
물을 떨구었다.

말없이 오열하던 경림소장이 꼭꼭 흐느끼며 입
을 열었다.

《옥경동지! 이렇게 가면 나 혼자 어찌한단말입
니까! 아하아--》

경림소장은 어머니의 치료일지를 불안고 울었
다.

명호중사는 드디어 혁이를 데리고 협곡마을에
나타났다. 하나 그날은 야속하게도 어머니를 영
영 떠나보내는 날이었다.

명호중사는 군모를 벗고 우리를 어머니의 령전
에 마주세웠다.

《철이야!》

《혁이야!》

우리는 꼭 부둥켜안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잃은 설움에 눈물지었다.

동네사람들이 끝없이 모여들었다.

어머니가 협곡마을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건
만 사랑과 진정으로 혈육처럼 가까워진 마을사람
들이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을 잃었소.》

《어데서 또 그런 선생을 맞아오겠소.》

마을사람들은 지금껏 장례에 이렇게 많은 사람
들이 모여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명호중사가 솟아오르는 눈물을 꼭 참으면서 마
을사람들에게 말했다.

《정말 옥경동지는 우리 전사들의 어머니, 이
마을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명호중사의 말
을 긍정하였다.

우리 형제는 경림소장의 손밑에서 자랐다.

경림소장은 우리를 위하여 일찌기 장가를 들어
야 했다.

군병원에서 환자치료에 정성이 높고 마음씨 착
한 간호원처녀가 우리를 맡아 키우겠다면서 산골
동네로 선듯 시집을 왔던것이다.

몇해후 협곡마을에서 미제의 ㅅ세군무기병마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우에서 내려온 의사들
이 어머니의 치료일지를 참작하여 치료약과 예방
약편을 개발한것이였다.

세월은 흘러 우리는 자랐다.

나와 혁이는 이전날의 《명호중사》가 부대장으
로 복무하는 전연부대의 지휘관이 되였다.

어머니의 적십자가방을 메고 전연군의소 간호
원으로 입대했던 너동생은 어느덧 군부대병원의
원장이 되였다.

군의복무의 나날 순희원장이 군인가족마을에서
받아낸 생명만도 수백을 헤아린다. 그 애기들이
자라서 거의 모두가 군복을 입었다.

아들딸들을 초소로 떠나보내는 어머니들은 종
종 그들을 손잡고 순희원장을 찾아 들리곤 한다.

《인사해라, 이 엄마와 함께 너의 첫 고고성을
들은 군의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순희는 그 실낱하고 역세인 가슴들에
손을 얹으며 젊은 심장들의 세찬 박동에서 생의
환희를 한껏 느낀다고 한다.

어느 설날에 우리 셋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그리고는 50 년대의 색날은 치료일지를 펼쳐놓
고 어머니를 추억했다. 모성애를 뛰어넘는 고결
한 인간애로 길지 않은 한생을 생명앞에 성실했
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치료일지의 갈피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아이들아, 어서 크거라

- 6. 1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

김만영

하늘도 산천도 바다도 푸르른
지금은 따스한 여름한철
해빛밝은 거리와 마을
설레는 동산과 유원지에서
저마다 다투어 고운 옷을 펼쳐입은
우리 아이들이 꽃잎처럼 날린다

바쁜 걸음도 멈추게 하는
그 재롱스런 모습을 보노라니
어느새 아이들마음이 되였는가
내 오늘 종일토록 마음속으로
빨간 앵두불을 쓰다듬으며
행복동이들을 다 안아도 보며
우리 아이들을 노래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밝은 창가
즐거운 놀이터에서
펼박질하며 웃음터치는 아이들
나에게 먼저 노래를 안겨주는가
나의 이 노래에
새별같은 눈동자가 빛난다
햇손 같은 두팔에 인형아기를 안고
고운 꿈꾸는 그 보조개가 피어난다
노래하며 팔랑대는 그 나비춤이 실린다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처럼
내 노래마당 즐거워지는구나
선생님의 손을 잡고
앞에 동무 내 동무 노래하며 유원지로 가는
그 작은 발걸음도 담아야지
아빠엄마앞에서 재롱부리는
귀여운 그 모습도 비껴야지

태어나자 행복이고
태어나자 기쁨인 아이들
해빛속에 눈을 뜨고
노래속에 뛰어놀고
웃음속에 잠을 자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 부럼도 없고
세상에 걱정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작은 가슴은
온 천지를 그대로 다 안고있는것 같구나

집에서와 유치원 탁아소에서도
날마다 맞고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생일날처럼 명절날처럼
그저 좋기만 한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의 나날
우리 아이들의 생활의 세계

이 땅에선
줄줄이 쏟아지는 아침햇빛도
우리 아이들에겐 칠색무지개가 된다
솔솔 불어나는 바람도 꽃바람이 되고
창문 넘어 유정히 비쳐드는 달빛도
따뜻하고 포근한 꽃이불이 된다

우리 사는 이 지구상에
아이들은 수없이 많다만
우리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
행복과 기쁨밖에 다른것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없거늘
바로 그때문이어라
내 오늘 국제아동절날에
우리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는것은

꼭구나
정말 꼭구나
얼굴에 한줄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이 땅을 그대로 요람으로 트랙으로 삼고
꽃망울처럼 한껏 피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꼭구나

그러나 아이들아
너희들은 다 모르리라
너희들이 왜 그처럼 고운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안고 태어났는지
또 얼마나 밝은 래일이
너희들을 기다리고있는지
집이 있고 나라가 있고
아빠 엄마가 있어
누구에게나 다 복이 차례지고
누구나 다 고와지는것이 아니란다

아, 너희들에겐
너희들을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천만품을 들여
꼭게꼭게 키워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신다

아느냐, 아이들아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향기로온 꽃보라가 날릴 때
우리 장군님
쉬임없이 걸고걸으시는 머나먼 전선길에서
세찬 눈보라를 다 안고 가시는줄

한점 그늘도
한점 비구름도
너희들의 창가에 비낄세라

막아내고 밀어내어
밝은 하늘을 열어주고
밝은 땅을 펼쳐주신
아버지장군님

아이들아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이
너희들의 고운 웃음이 되었던다
너희들의 고운 노래가 되었던다
너희들의 고운 꿈이 되었던다

아, 아이들은 그대로
사랑의 노래
그 사랑 끝없어
이 노래도 끝없는것인가
아이들도 텔레비죤에서 보고
지금도 기억하고있으리라
아버지장군님
올해 정초에 먼 압록강반의 유치원
재능있는 아이들을 불러 만나주시며
친히 안겨주시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이들은 다 모르리라
세상도 아직 다 모르리라

갓가지 붓과 벼루
그림종이와 참먹 그리고 문지
서예도구의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마음에 안아보며
아이들앞에서도 후더운 눈물을 어쩔수 없었나니

그것은
아, 그것은
아버지대원수님의 파스한 온기가
그대로 숨배여있는 국보

그 국보를
아이들의 작은 손에 쥐여주실 때
우리 장군님 가슴속에
얼마나 크고 뜨겁고
얼마나 넓고 높은 뜻이 파도치고있었는지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대대손손 길이 전해야 할
나라의 귀중한 국보이건만
이 나라 평범한 근로자의 아들
그의 래일을 축복하며
친히 안겨주신 위대한 그 사랑이여

래일을 향해 걸어가도
대원수님 불러주신 나라의 《왕》답게
가장 큰 길을 보란듯이 걸어가라고
세상을 통채로 안겨주셨나니

이런 사랑이

그 어느 나라에 있었더냐
이런 은정이
그 어느 세월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적 있었더냐
없어라
인류 백만년사
그 전설속에조차 없어라

아이들아
너희들의 미래는
그렇듯 크고 빛나는것
그렇듯 밝고 창창한것
그렇듯 튼튼하고 양양한것

누구나 래일을 향해 걸어가는데
너희들의 미래처럼
좋은 래일이 기다리고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제도
그런 세상은 없거니

가거라
무럭무럭 자라서
어서 빨리 가거라
해님, 별님 노래부르며
아이들아, 그 래일로
어서 씩씩하게 걸어가거라

지금은 시내물소리처럼 작아도
래일은 폭포처럼 웅장해질
너희들의 목소리를
조국은 듣고싶어한다

지금은 나무잎처럼 작아도
래일은 산악을 거침없이 딛고넘을
너희들의 발자욱을
조국은 보고싶어한다

얼마나 위대한 조국에서
너희들은 태어나 자라고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살고있느냐
너희들에게 더 고운 옷을 주려
너희들에게 더 좋은 노래를 주려
너희들에게 더 고운 꿈을 주려
오늘도 너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쇠물을 끓이고 오탁을 가꾼다
너희들의 요람을 철벽으로 지킨다

너희들의 머리우에
언제나 푸른 하늘을 펼쳐주기 위해
사회주의 내 조국은
붉은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아 너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아버지장군님
천리 전선길에 계신다
바람세찬 전선길에 계신다

너희들 이제 커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잊지 말거라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너희들만은 세상에 부럼없이
곱게 안아키운 어버이 그 품을

먼 후날에도
이것만은 잊지 말거라
한평생 미래를 위해 사시고
심장을 다 바쳐 미래를 가꿔가시는
아버이 그 품이 없다면
집은 있고 부모는 있어도
고아의 운명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장군님따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난과 시련을 파감히 이겨내며
우리 바라는것은
너희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전통

백두의 혈통이
곳곳이 살아 뛰는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세대에도
또 그다음 세대에도
조국이 바라고
장군님 믿으시는것임을
언제나 어디서나 명심하거라

세상에 다시없는 너희들의 활무대
선군시대에 태어나
선군시대에서 자라남을
당당히 빼기고 자랑하여라

하늘도 산천도 바다도 푸르른
지금은 파스한 여름한철
해빛밝은 거리와 마을
설레이는 동산과 유원지에서
저마다 고운 옷을 떨쳐입은 우리 아이들이
꽃잎처럼 날린다
새처럼 즐겁게 노래하며 뛰논다

아, 은혜로운 해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간다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눈우의 첫 자욱

권태여

눈우의 첫 자욱
걸음폭만 보아도 나는 알아
제대군인 그 총각
큰 발자욱

미끄러운 둔덕길
썰매자리 보아도 나는 알아
거름집 지고 끌고 뛰어간 자욱
땀에 젖은 그 얼굴

공동사설 구절구절 읽어준 그 총각
새해농사 첫걸음 남먼저 찍은 자욱
총대를 틀어쥐고 새기던 자욱
고향땅에 새겨가는 미더운 자욱

땀 씻으라 손수건을 꺼내줘도
밤새 뜬 실장갑 남몰래 쥐도
그저 멍곳
질통만 둘러대던 그 총각

샘이 나서 폭폭
거름집을 무겁게 지워줬더니

오히려 나한테만

질통을 갖다 대던 그 총각

내가 질가봐
거리대질 듬뿍듬뿍 성품이를 했더니
발머리의 휴식참 곱 같은 그 총각
내 손목 잡아끌며 2중창을 하자나

일 고운 그 마음에 자라는 꿈
선군장정 천만리 우리 장군님
성에 불린 차창가에 손저으시며
높이 쌓은 거름더미 보시게 하리라
뛰고달는 한마음에 가을도 가까워라

거름더미 거름집
날가리를 지고 뛰는
눈우의 발자욱
새봄의 첫 자욱

들끓는 전야에
선군의 성새를 쌀로 다져가는
주공전선의 첫 자욱
내 마음에도 새겨지는 사랑의 첫 자욱

소설의 격과 멋

-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를 읽고 -

허문길

소설을 무엇때문에 읽는가.

독자들마다 제 나름이면서도 어썃비슷한 대답이 나올것이다. 그런데 소설가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에는 직업고유의 한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것은 다른 소설가들의 창작의 묘미를 터득하며 자신의 창작적재능의 고간을 채우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교훈의 자막대기를 세워놓으려는데 있다.

나 역시 소설을 읽을 때면 작품의 세계에 심취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소설을 통해 보여준 필자들의 특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자기의것으로만 들어보려고 신경을 도사린다.

기실 세상의 유명무명의 소설가들에게서 각각 한가지의 재주만이라도 배워가치면 얼마나 커다란 재산으로 되겠는가 ...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안동춘 작)를 읽고 떠오른 첫 독후감은 (비교적 성공한 소설이구나!)하는것이였다.

독자가 많은 소설이라는 사람들의 의미심장한 평가에 공감아 갔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를 두번째로 보았다.

이번에는 성격을 따져가며, 문장을 음미하며 보다 분석적으로 읽었다. 읽을수록 그 의미가 새롭고 소설의 격과 멋이 달게 씹히운다.

나는 원체 지금까지 회상식수법으로 시공간을 복잡하게 조성하고 구성조직의 립체미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이야기의 변화를 조잡하게 주는 소설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여겨온다. 흔히 끌어들이는 맛을 내기 힘들 때 왕왕 그런 수법으로 자기들의 무재를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경향이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소설은 구성조직이 대단히 복잡하고 성격발전과정이 세월을 거슬러 열기설기 펼쳐지고 그속에서 여러 인물들의 한평생을 묶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넘길수록 취해들게 하였다.

나는 논의점을 찾아 사색에 잠겨들었다.

이 소설이 우리 문단의 화려한 꽃밭에 보태준 향기와 빛같은 무엇일까?

이 소설에서 내가 배워야 할것은 무엇이며 소설을 성공으로 이끈 묘기는 무엇일까?

소설의 격- 이것은 물론 작품의 가치평가에서 대체로 논의되는 이야기이다.

무릇 소설의 적은 종자의 탐구로부터 인물설정

과 줄거리, 구성, 대사형상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모든 요소들에서 총괄적으로 발현되는 작가의 창작수준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설의 격과 멋은 문학작품에 펼쳐진 문학세계의 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의 높은 격은 무엇보다도 소설에 심어진 인간문제의 심오성으로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문제의 심오성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거기에 담겨진 인간문제가 얼마나 의의있고 심오한가 하는데 따라 많이 좌우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문학의 항구적인 주제이며 과제이다.

그러면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에 반영된 인간문제란 어떤것이며 이 소설이 독자들을 끌어 당기는 견인력과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은 《세월에 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월에 살줄 알아야 하되 세월을 이겨내야 한다는것이다.

세월에 지지 말아- 의미심장하면서도 어쩐지 그 의미가 생경하고 알쏭달쏭해서 머리를 기우뚱거리게 한다.

여기서 세월이란 무엇이며 세월에 살줄 알아야 한다는것은, 그리고 세월에 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있는가.

장편소설은 바로 이에 대한 미학적대답을 훌륭하게 주고있다.

세월이 열두번 바뀌여도 인간에게서 달리 되여서는 안되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조국과 인민과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는 인간의 고결한 량심이며 지조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헤쳐온 세월이야말로 우리 근대사의 엄혹한 년대기가 비껴있는 수난의 력사이다.

소설에는 주인공들이 걸어온 고난의 년대들과 그 력사속에 부대껴온 인물들의 곡절많은 생애가 형상적으로 대조되여있다.

그들이 헤쳐온 세월에는 왜놈의 압제밑에 민족의 모든것이 짓밟히운 암흑의 시절이 있으며 겨레와 강토가 동강나고 한가정, 친형제가 갈라진 분렬의 시대가 가로놓여있다. 그리고 형제가 총

부리를 겨누고 총탄을 날리던 피어린 동족상쟁도 있다.

여기에 또한 주인공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인물들은 대를 이어 부유한 가정의 율리시속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엄혹한 삶의 도전이 있다.

세월에 살면서 정의와 량심이라는 인간의 고귀한 녀를 빛내여가자면 모진 역풍을 이겨내야 했다.

어차피 인간은 평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고뇌와 시련을 이겨내도록 자기를 부단히 다듬고 채찍질하여야 한다.

바로 이 심오한 생활철학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배다른 두 형제를 둘러싼 각이한 운명들의 교차속에서 웅변적으로 확증한데 바로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의 높은 격이 있으며 작가가 발견하고 풀어낸 인간문제의 심오한 철학성이 있는 것이다.

작가가 열렬한 심장으로 레찬하고있는 지성민의 운명이 이에 대한 힘있는 대답으로 된다. 지성민의 삶의 길이야말로 순탄치 않다. 대를 이어 내려온 봉건정부의 고관대작의 자손이며 지주, 어업주였던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지성민, 그런가 하면 자산계급의 계급적속박에서 벗어나 《톨쓰프이의 수제자》로 되기도 하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 뛰어들기도 한 아버지를 따라나선 지성민, 출신성분으로 보나, 맞다든 세월의 도전으로 보나 그의 생은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다. 세월의 풍랑에 돛을 단다면 지성민은 얼마든지 호의호식할수 있었지만 지성민은 일찍부터 그렇게 사는것이 세월에 살줄 아는것이 아님을 폐부로 새기고 있었기에 참된 삶의 궤도우에서 탈선함이 없이 세월의 오가는 비바람과 싸워가는데는 것이다.

그는 해방전에는 지주, 자본가족속들이 왜놈들 등에 업혀 부귀영화의 율리시를 지켜갈 때에 그에 도전하여 백두산을 우러르는 인민의 애국적민심을 기꺼이 따르며 해방후 출신성분으로 하여 나쁜 놈들의 모해를 받고 곤경을 당하면서도 같은 계급의 적지 않은 인물들이 행한 민족반역의 길-서울에로의 탈주가 아니라 새 민주조선건설에 나선다.

그러한 그에게 해빛같은 자애로운 손길로 그의 환생에 드림없는 삶의 표대를 세워주신분이 계시었으니 그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 애민, 애족의 뜻을 높이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지성민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김일성**종합대학에 가며 그 은혜로운 품속에서 사랑도 꽃피우고 아버지와 함께 새 조국건설의 용용한 대하에 몸을 바친다.

참으로 지성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백두산 너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뜻을 한생의 좌표로

드림없이 세웠기에 정의와 량심이 가리키는 길에서 세월의 그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는 애국투사로 역세계 살아간다. 자기가 서울에 온것을 두고 범죄로 규정한 적들에게 던지는 그의 대답은 얼마나 배심있고 투지만만한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림없이 품에 안고 손잡자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정치고 주장이라는것을 전해달라는것입니다.》

결국 지성민의 삶과 그의 심장속에 세워진 신념의 기둥은 세월의 풍랑에 떠밀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여러 인간들의 심장에 정의와 애국의 불을 지펴놓으며 남조선의 진보적인 사람들의 뜨거운 절찬을 받게 되는것이며 마침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빛발을 받아안은 행복자로 된다. 지성민이 지펴놓은 그 불꽃을 받아안은 그의 형이며 5.16 군사쿠데타의 주요거물이기도 한 지태민도 인생의 불모지에서 세월의 물결에 실려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생의 말년이나마 정의와 량심의 눈을 뜨는것이다. 지태민뿐아니라 지성민의 어린시절의 녀동무들인 려아와 옥영, 5촌별되는 지웅석과 그의 아들 해성이, 감옥에서 사귀 서울깡패단의 왕초 차호은과 그의 딸 설화 등 여러 인물들이 세월이 흐려놓은 탁류를 헤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의연히 거짓된 량심과 권세와 재물에 대한 허욕에 결박된채 못난 세월의 변덕에 무릎을 꿇고 민족의 반역자로 인간세상의 속물로 실아가는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한다. 회세의 파쑈폭군 박정희의 운명이 그러하며 오래전부터 보다 큰 힘에 아부하면서 권력자의 시녀로, 파수병으로 살아온 명레나 택규의 운명이 그러하다. 이자들은 이미 해방전부터 인간된 량심과 아름다움을 잃은 악한으로 악행만 저지르다가 끝내 세월이 부식하여놓은 때국에 저러들어 인간성마저 잃은채 사회의 집중적지탄을 받는 인간으로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야 만다.

그들의 운명의 대조와 교차속에서 울리는 작가의 주장은 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얼마나 격조높은 레찬인가. 세월에 지지 말아- 작가는 자기가 찾아낸 인간문제의 이 철학적인 주장을 기름진 문학형상속에서 뜨겁게 부르짖고있다.

그렇다! 인간은 세월에 지지 말아야 한다.

세월의 공세앞에 허리 굽혀 돛을 올리면 비련한이 되고 사기군이 되고 추물이 되고만다. 세월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 역세계 노를 저어간다면 지성민처럼 신념의 강자,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 인간, 아름다운 인간으로 된다. 우리 혁명이 헤쳐온 길도 꽃바람이는 평탄한 길이 아니였지만 이제 헤쳐나가야 할 길도 준엄하다.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인생의 종착점에서 찍어 놓은 삶의 자욱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도록 세월에 굴하지 말고 애도지도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고 곧추 헤쳐나가자. 필자는 이 심각하고 의의 깊은 인간문제를 작품의 종자로 내세우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있다.

X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의 높은 격은 심각한 운명의 극을 안고있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높이를 통하여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안받침되어 있다. 작가는 이미 여러 작품들에서 보여준 인물형상의 높은 격을 이 작품에서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소설의 주인공 지성민을 비롯하여 작품의 주요인물들로 설정된 지태민, 태규, 명태, 박정희 등은 우리 문단에서 찾아보기 희귀한 인물들로서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우리 소설가들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부류의 인물들이다.

주인공 지성민은 가정적으로 볼 때 지주, 어업주의 아들이며 그 자신이 일제의 통치밑에서 부유하게 살고 대학까지 다니던 지식인이다. 해방후에도 그는 출신성분과 경력때문에 커다란 시련과 마음속고충을 겪어야 하였다.

이러한 인물이 형으로 하여금 참되게 살도록 하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줄 불같은 충정에 떠밀려 서울에 나타나며 적들에게 체포되어 수십년의 기나긴 옥고를 치르고 간악한 놈들의 책동으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듯 인생의 극을 내재적으로 가지고있는 지성민과 같은 인물은 잘못 다루면 여러가지로 사상미학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성격형상이다. 그러나 필자는 예리한 정치적감각과 원숙한 필치로 인생의 복잡다단한 곡절을 겪는 인물을 대담하게 형상체계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휘여들지 않고 아름다운 인간적향기가 그윽히 풍기는 그 향기로 세월의 변덕에 인간다운 미와 향기를 잃고 살던 사람들을 민족의 넓은 품에 세워주는 격이 높은 성격,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 투사의 전형으로 빛나게 창조하였다.

주인공의 격이 높이 설정되어 작품권에서 자기의 지위를 옹고 차지하려면 마땅히 그의 상대인물들은 물론 그를 에워싸고있는 주변인물들의 격도 그에 맞게 높이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격은 상대인물들의 격에 의하여 돋구어지고 확증되며 유지되기때문이다. 주인공의 성격의 격을 높이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여도 주변인물들의 격을 상대적으로 떨어놓으면 절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소설에서 주인공과 가장 가까이 엮혀져있는 상대인물은 지태민이다.

지태민은 주인공의 배다른 형이지만 혈육간의 정이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엮혀져있는 인간이다.

그는 소년시절에는 정의와 량심이라는 인간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반일사상도 강하였다.

이러한 지태민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일본의 무술을 익혀 조국해방에 나서겠다는 모순적이면서도 야심만만한 꿈을 안고 피뢰만주국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왜놈의 충견으로, 후에는 세월의 변덕에 편승하여 미제의 사환군으로, 박정희파쑈도당의 측근인물로 되며 남조선통치권의 실력자들속에 속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한다. 이렇듯 세월의 광풍에 휘말려 어지러워질대로 어지러워진 인간이지만 그도 자신의 인간적탈선과 매국적인 행위를 합리화할수 있는 일가견도 가지고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동생을 철창에 끌어가게 하고도 그것을 《국익》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로, 지성민과 자신을 위한 도덕적용단으로 정당화한다.

이러한 남조선통치권의 중진인물이 인생말년이 되어 량심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속죄하게 되는 인생의 다난사가 단순하거나 가볍게 엮어질수 없다.

지태민이 오욕의 진구렁텅이에서 갱생의 기슭으로 드디어 솟구쳐오르는 그 험난한 과정을 지성민의 운명선과 더불어 이 소설의 견인력과 격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쌍기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소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소로 되고있다. 만약 소설에서 지성민의 격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그 주요대상인물인 지태민의 격을 떨어놓으면 소설이 지금처럼 성격형상의 격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지성민의 성격의 격도 보장할수 없을것이다. 작품에는 남조선에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도 등장하고있다.

우리 소설문단에서 박정희를 정면으로 형상한 것은 아마 이 소설이 처음일것이다.

력사에 뚜렷한 표상으로 찍혀져있는 인물을 독자들앞에 개성이 뚜렷하게 재현시키는것이 쉽지 않다는것은 소설가들이라면 누구나 실감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은 자칫하면 도식적이라거나(흔히 이런 경우는 소설가가 소심할 때 생긴다.) 혹은 력사주의적견지에서 진실치 못하다느니(흔히 이런 경우는 작가가 인물형상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력사적인물을 만들어냈을 때 생긴다.)하는 등 사회정치적 및 창작미학상의 비판적평가를 받을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설정을 놓고서는 작가의 담력부터 평가하고 배워야 할것이다.

이 소설에서 필자는 이미 력사에 세워져있는 독재자로서의 박정희, 권력쟁탈과 권세보존을 위하여 일생토록 허위와 기만과 위선과 악덕으로 누버가는 박정희의 랭혈적인 성격을 예리하게 발가놓음으로써 개성적인 성격으로 형상하였다.

그러면 박정희의 성격창조가 이 소설의 격을 높이는데서 어떤 효과를 거두게 하였는가.

그것은 지성민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자기의 랑심을 지켜 시대와 겨레의 아낌없는 축복을 받는 랑심의 전형이라면 박정희는 세월의 역경에 따라 자신을 재빨리 변신하여가면서 끝내는 권력의 상좌를 타고앉았다가 력사의 엄정한 징벌을 받는 상대역으로 선명한 대조가 되게 한데 있다.

만약 이 소설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지태민의 격도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격이 떨어진 상대인물들로 하여 지성민의 투사로서의 높은 격은 웅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밖에 소설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한생을 못되게 살아오며 비렬한 모략으로 지성민의 복으로의 길마져 차단한 명례와 같은 악한도 있는가 하면 택규와 같이 아침과 권모술수로 살아온 인물들도 주인공과 맞서있다. 이자들 역시 남조선통치권의수급 줄개들로서 박정희나 지태민처럼 제놈들의 악덕과 부귀영화를 그럴듯하게 합리화할수 있는 리념을 가지고있다.

이렇듯 남조선통치권의 주요인물들과 맞섰기에 주인공의 심적고충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며 그와중에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랑심을 지켜가는 주인공의 투쟁은 보다 간고한 고난의 연속일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속에서 발현되는 주인공의 성격의 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물들의 격이 등장인물들의 지위나 그들이 지닌 사회적책임에 따라서만 꼭 정비례되는것은 아니다. 지위가 보장것 없거나 사회적으로 비천한 인물이라고 하여도 작가의 인물묘사의 의도와 기교에 따라 성격의 격이 달라진다는것은 창작실천에서 누구나 체험하고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격이 높게 설정된 인물이라하여도 작가의 묘사기량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면 작가의 의도에는 관계없이 인물의 격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는 소설의 격, 성격의 격을 높이는데서 작가의 창작적재능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과 5촌별되는 지웅석과 조카인 경자 그리고 지태민의 부관인 정창호, 깡패의 왕초였던 차호은과 같이 일반계층에 속하는 인물들도 개성적인 자기 얼굴을 가지고 등장하고있다.

소설에서 특색있는 인물로 설정된 지웅석은 해방전에 떠살이를 하다가 가문의 족보에서까지 제명되었고 해방후에 소비조합창고를 맡아보며 랑심적으로 살았으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한번 탈선한탓으로 인생길이 꼬여들어 서울에 와서 철물을 모아들이며 망가진 인생을 한탄하고 두고온 고향에 대한 향수에 눈물을 지으며 살아

간다.

그러나 작가는 이 초라한 인물도 지태민과 대치시켜 주인공의 주변에 못박아두고 지태민보다도 격이 높은 성격으로 그려놓았다. 지태민과 그의 처와 장모가 지성민의 도착을 두고 저들의 안위부터 생각하고 혈육으로서 못나것을 서슴없이 할 때 지웅석은 지성민의 신변부터 걱정하여 《자수서》를 쓸데 대한 의향을 넌지시 내비치며 뒤날에는 그때까지 자기의 은인으로, 가문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지태민이 동생을 물어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아연실색하여 혈육의 정마저 썩뜩 잘라버리고 평생 의절을 하고만다. 비록 지태민 보다는 사회적지위도 낮고 교육도 적게 받았지만 얼마나 품위있고 지엄한 인물로 떠올랐는가.

소설에 도간도간 나타나는 주인공의 안해 순정 이도 격이 높게 형상됨으로써 소설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인데 자기의 뚜렷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사랑에 대한 순정의 고결하고 지조굳은 주장과 그에 따르는 아름다운 소행은 세월에 지지 않는 우리 조선녀성들의 참된 사랑의 찬가로 소설의 전면에 걸쳐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소설에 잠깐 등장하는 서울깡패단의 두목 차호은도 비록 과거에는 《주먹세계》의 인물이었지만 작가의 원숙한 필치에 의하여 독자들의 리해와 사랑을 받을수 있게 그려짐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자기의 몫을 담당하고있다.

차호은과 같은 류형의 인물들은 자칫하면 작품 전반의 정서를 음울하게 하고 소설의 품위를 떨어줄수 있는 우러가 크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배경과 성격이 거칠고 어두우며 어지럽기때문이다.

창작가들의 창작적재능은 흔히 이런 인간들과 맞다들 때 나타난다는 말이 우연하지 않다.

소설에서 작가는 이런 인간을 구태여 우물쭈물 피해서지 않고 정면으로 파헤치고 다듬질하여 깡패기질에 폭 젖어있으면서도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에 눈 뜰 때에는 상상밖으로 성큼 참인간들의 세계에 들어서도록 격이 있게 개성화함으로써 정직한 인간들을 범죄의 길로 차던지는 남조선사회의 본질을 여지없이 발가놓았으며 그의 분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차설화를 통하여 인간랑심의 아름다움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소설에서 길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이전 쏘련정보일군으로 복무하다가 로마교황청에 몸을 담은 나자의 성격도 주인공의 운명선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극적인 대비속에 소설의 주제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성격적과제를 인상적으로 격이 있게 해명하고있다.

평자도 나자라는 인물이 작품무대에 출연하였을 때 작가가 왜 이 인물을 내세웠을가 하고 의아쩍어하면서 나자의 운명선을 흥미있게 주목하였다.

소설에서 무릇 창작가들은 무대우에 인물을 올려 놓을 때 그에게 흥미라는 과제만 주지 않는다.

채바퀴에서 주인공을 축이라면 이어인물들은 채바퀴를 이루는 간살이며 바퀴이다. 소설에서 이름까지 박은 인물은 소설의 전반구도 즉 주제 천명과 주인공의 성격발전, 사건전개 등 여러가지 몫을 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자를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놓고 소설을 읽어가면서 은근히 탄복하였다. 그러면 일견 나자가 주인공과는 단선을 이루고있을뿐이고 그의 성격발전엔 큰 도움으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구태여 마지막까지 끌고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자는 세월의 눈비에 녹슬지도 가리워지지도 않는 인간, 아름다움의 무궁한 샘에 대하여 주인공의 운명선에 대조시켜놓은 반증인물이다.

어찌보면 나자는 주인공의 운명과 유사한 인물이다. 나자는 귀족가문의 출신으로 애오라지 정의에 대한 판단, 리념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에 떠밀려 혁명의 대하에 뛰어들어 너성투사였다.

그는 세월의 변덕에 도전하여 자기를 지켜왔으며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삶을 빛내여온다.

그러나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자 배신자들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운명의 뼈저린 탄식을 하다가 바티칸교회에서 의지할 마음의 기둥을 얻고져 《하느님》을 믿게 된다.

(그렇다. 지켜주고 아껴주는 품, 그 사랑,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 역시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이란 그가 제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지녔다해도 그 사상의 불길에 꺼지지 않도록 하는 빛발과 열의 원천이 있어야 한다. 인간사상의 태양의 빛발).

비슷하면서도 결코 비슷하지 않은 나자와 지성민과의 극적인 운명의 교차속에 울리는 주인공의 이 뜨거운 심중의 토로는 소설의 사회적문제성을 다시 한번 굴절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운명을 맡아주는 크나큰 품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애국에 넋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출신과 인생행로에는 관계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아껴주는 품, 바로 그 품이 있었기에 세월을 이겨낸 지성민의 생애는 그렇게도 고결하게 빛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품을 잃은 탓으로 한생을 조국과 혁명에 충직하게 자기 삶을 바쳐온 나자는 비판과 탄식과 후회를 금치 못하는것이 아닌가,

이렇듯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격이 있게 설정되어 격이 높게 형상됨으로써 소설

의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으며 소설전반의 높은 품격을 훌륭히 살리고있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는 묘사와 대사의 격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일정한 성과작으로서의 소설의 품격을 훌륭히 안받침하고있다.

이미 여러편의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 《까를콜 사람들》에서 보여준 작가의 수려한 필치는 이 소설에서도 매혹적이고도 멋스럽게 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작가의 무기는 언어이다.

작가가 언어구사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개념이다.

시대와 생활과 인간을 작가고유의 문학적감각으로 받아들이고 특색있게 굴절시켜나가는 작가의 원숙한 기교는 부피두터운 이 소설에서 시종 일관 작품의 격과 멋을 다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찾아낸 심오한 주제사상과 격이 높은 성격형상들은 격이 높은 묘사와 대사를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었을것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종자를 찾아내고 매력적인 성격들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촌티를 벗지 못한 범박한 묘사와 치졸한 대사으로써는 지성미가 넘치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소설을 엮어낼수 없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는 언어형상과 묘사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작품의 시작과 함께 소설이 펼쳐놓은 미지의 생활에 빠져들게 한다.

이 소설의 묘사에서 특징적인것은 소설의 장면들과 세부들이 화폭처럼 선명하고 생동한것이다.

필자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초상들은 물론 그들의 성격묘사, 자연묘사, 심리묘사 등을 어느 한토막이라도 놓칠세라 독자들의 눈앞에 직관적으로, 그러면서도 감성적으로 안겨들도록 묘사의 밀도를 높이고있다.

《...노랑게 말라 비틀어진 몽당수염을 내리쓰는 지웅석의 눈에는 방금전까지의 왈패스럽던 빛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처량한 빛만이 차넘쳐있었다.

바짝 메마른 볼에는 얼기설기 주름이 무늬를 이루었는데 되박이마의 반들반들하던 흉터까지 쪼글쪼글 오그라들어있었다...》

이것은 인간됨이 《모자랐던 탓에》 남으로 나간 지웅석의 초상묘사 한토막이다.

길지 않은 문장에 는 세월에 고삭아버린 한 인간의 고달픈 삶이 금시 눈에 보이는듯 방불하다.

《노랑게 말라 비틀어진 몽당수염》, 《왈패스럽던 빛》, 《바짝 메마른 볼》, 《되박이마의 반들반들하던 흉터》, 《쪼글쪼글 오그라들어》-작가가 선택한 언어표현부터 시각적이고 선명한데다

가 그것들이 두개의 문장속에 담담하게 편견되면서 어제와 오늘로 이어진 한 인간의 불우한 운명과 세월속에 부대끼는 막바지인생의 초라한 모습이 그림처럼 안겨든다.

묘사의 격을 높이는데서 작가의 높은 기교는 언어의 다양성과 정확성, 통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가는 성격적이면서도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낼수 있는 감각적인 언어를 새롭게 발굴하면서 언어형상에서 민족적인 향취가 풍기도록 구수하고도 지성감이 넘치게 문장조직을 하고 있다.

《여기는 귀가 번차자해서》, 《썩썩 해치우고만다.》, 《웃음이 바글바글 끓었다.》, 《광태스러운 뽕박질》, 《신방돌러리같이 곱상굿다.》...

우에서 보듯이 소설에 탐구된 언어, 문장들은 생활적이면서도 표현이 다양하고 그 깊이가 느껴진다.

소설의 대사들도 하나같이 생활적이면서도 구수하고 하나에서 열을 짚어낼수 있게 간결하고도 뜻이 깊다.

이 소설의 묘사와 대사형상에서 특별히 짝고 넘어가야 할것은 멋이다.

소설의 멋이란 작가가 펼쳐놓은 세계에 독자들을 이끌어가는 작가의 재치이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소설의 맛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소설의 맛을 어떻게 돌구겠는가?-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원고지우에서 독자들을 그려보며 늘 고민하는 창작적고충이기도 하다.

소설의 맛을 돌구기 위한 노력에서 실패한 작품은 어차피 독자들의 랭대를 받기마련이다.

이렇게하면 소설의 멋은 소설의 견인력, 나아가서는 소설의 생명력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소설의 멋을 작가의 개성으로 보기전에 작가의 창작기교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작품의 우열을 가늠하는 중요지표로 보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것이다.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에서 필자는 세련된 필치로 적중한 성구, 속담들을 자유분방하게 리용하는가 하면 기지있는 유모아와 해학으로 작품의 정서를 밝고 랭만에 넘치게 하였다.

작품의 양상을 볼 때 이런 소설들은 어둡고 무거운 소설로 되기가 일쑤다. 하지만 작가는 소설에 매우 심각한 운명의 극을 열기설기 엮어나가면서도 시종 혁명적랑만이 풍만한 정서속에 넘치게 형상함으로써 독자들을 웃기면서 흥미진진하게 끌고간다.

소설가들이 누구나 체험하겠지만 작품에서 독자들을 배를 끌어안고 웃도록 하는것이 쉽지 않다.

울리기도 쉽지 않지만 웃기려면 갑절 힘들고 보다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소설에서 필자는 무거운 이야기를 끌고가면서도 가벼운 해학과 재치있는 유모아로 손에 땀을 쥐고 글줄을 더듬던 독자들을 속이 후련하게도 즐겁게도 해준다. 지성민이 서울땅에 가서 5촌벌되는 지웅석을 만나는 장면만 보자. 지성민이 형의 집에 가서 문전박대를 받고 지웅석과 첫인사를 나누는데 공교롭게도 옆집 런던장사가 나타나느바람에 긴장해진다. 독자들도 주인공과 더불어 긴장해진다.

그런데 이 심각한 장면을 작가는 어떻게 굴리는가?

《...대문을 빼써 열며 들어서는 그를 보자 그때까지 날고 펴듯 기뻐하던 지웅석의 얼굴이 쇠꼬치처럼 변했다. 의례히 있을상싶은 인사대답은커녕 대바람에 역증을 냈다. <넌 또 왜 와서 까치행세냐. 그만큼 말해줬으면 됐지. 그래 볼쪽을 뽑아야 떠나갈테냐.>, <아, 무슨 말씀 그리 험하시우. 내 돈 달라는거지 생돈 먹자는거요?>

<저런 종개입 봤나? 덜도 보래지도 않고 딱 맞춰줬는데 계속 생투정이나. 정 그러면 어디 들어와 보거라. 여기 구청감독관어른두 오셨는데 회계를 해보자. 회계를... 그런데 틀리는 날에는 네 집 재산까지 랭탕칠줄 알아라.> 성민은 어처구니없었다. 자기를 번히 세워둔채 돈싸움을 벌리는 것도 놀랍지만 자기를 구청감독관어른으로 둔갑시켜놓는것이 아연실색할로릇이다. ...지웅석은 비죽이 웃으며 널 대문을 닫고는 성민에게 한눈을 썩듯해보였다.

<저런 역귀(여우)새끼한테는 우격다짐이 약일세.> ... <이젠 누가 와도 집에 사람이 없는걸루 알걸세.> <신통하군요.> <신통하다마다. 도박근 수십년에 겪어온 경험이지. ...> ...》

결국 매우 긴장하던 대목에 지웅석도 웃고 지성민도 웃고 독자들도 웃는다. 얼마나 멋들어진 장면묘사인가. 이렇듯 여유작작한 유모아와 해학적인 장면들이 멋스러운 성격들을 창조하면서 줄기차게 이어져 작품전반에 웃음을 주고 랭만을 주고 어둡고 침침한 무대를 밝게 하여준다. 소설에 그려진 인물들속에서 지웅석은 물론 주인공의 안해 순정이, 지태민의 처와 딸, 지태민의 부관인 정창호와 강패두목 차호은 등의 성격도 작가의 건드러지고 로숙한 필치가 창조해낸 개성적이고 멋스러운 인물들이다. 소설의 격이 종자의 탐구로부터 문장구사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듯이 소설의 멋도 작품의 개별적인 요소에서가 아니라 인물성격은 물론 사건과 세부들, 묘사와 대사들에서 종합적으로 풍겨 나와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높은 실력과 탐구정신을 요구하는 작가의 높은 지성의 발현이며 높은 수준의 문학세계의 창조과정이며 그 결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앞에서 잠깐 내비친것처럼 작가

가 공공연히 멋을 부리느라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것은 독자들의 눈에 쉽게 걸려들어 오히려 천박하게 되고 작가의 무지의 표현으로 평가되고만다. 최근시기 일부 소설들에서 외국인인물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성구, 속담, 일화 혹은 외국의 미술, 소설이야기를 람용하면서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고 성격들의 격과 멋을 돋구느라고 애쓴 흔적을 드문히 보게 된다. 여러가지로 분석비판할수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우리 독자들의 민족적 감정을 해롭게 자극하며 작품의 격도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인민의 성격창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성구, 속담, 고사, 미술, 일화 등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적 감정과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우리의 것, 우리 민족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설의 멋은 장편소설 《세월에 지지 말아》에서처럼 은근히 풍겨야 하며 독자들이 스스로 취해들도록 되어야 한다. 이 소설은 참으로 우리의 주체적소설문학이 올라선 높은 수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격이 높고 멋스러운 소설 - 이것은 필자 자신도 새로운 소설창작의 붓을 들 때마다 새삼스럽게 가다듬는 창작적야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것을 원고지가 두툼하게 쌓여 갈수록 폐부로 실감하곤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욕망과 창작적실력간의 거리감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작가가 그려내는 문학세계란 작가가 도달한 사상미학적수준의 반영이다.

따라서 작품의 격이란 곧 작가의 지적인 격, 창조기량의 높이이다,

북남삼천리에 통일의 대교향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있는 오늘 통일운동에 나선 투사들을 그려내는것은 선군시대작가들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우리가 그려야 할 통일운동의 투사들은 마땅히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시대의 전형이여야 하며 그들에게 바쳐진 문학은 웅당히 격이 높고 멋스러운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나의 고지

허수산

별무리 총총한 이밤도
총잡고 전호가에서
런런히 뻗은 산밭 바라보느라면
이 가슴에 마쳐오는 뜨거운 목소리

저 못봉우리들중
그 어느 고지라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 웨치며
목숨이 진하는 순간까지
미제원썹들 공병삽으로 내리치며
끝까지 고지를 지켜낸
영웅들의 모습이 안겨오는 곳

고지는 고향의 뒤동산이 아니였다
어린시절 밤나무에 올라
밤을 따며 뛰놀던,
소년단벚타이 날리며
어린 나무모 정히 심어 가꾸던
고향의 산밭은 더욱 아니였던단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나의 고지》라 부르며
전화의 날 선렬들
한치의 땅을 위해
산봉우리 피로 붉게 물들였던가
아, 거기에는 다 있었다
해방후 우리 수령님 주신
그 행복한 생활의 전부가

땅을 분여받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
책가방 들고 학교로 가던 그 기쁨이

하기에 경치수려한
명산은 아니였어도
평범한 조국의 고지에서
전사들은 웨쳤다
한없는 애정답아 사랑을 담아
《나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자고...

아 그날의 영웅들
《나의 고지》라 부르며 지켜낸
조국의 고지들
오늘은 우리 장군님
영광의 봉우리로 빛내주시거니

내가 지켜선 초소, 고지마다는
나의 고지, 우리의 고지
임자없는 고지는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의 불이 된다면
저저마다 《나의 고지》라 부르며
주인으로 떳떳이 나서리
조국의 작은 메부리 하나도
침략자에게 죽음을 주는
무서운 성벽으로 솟으리라



해로 무렵에 있을 일

김성희

눈은 허공에서 비로 변하여 이미 쌓여진 흰 눈을 콤보판으로 만들었다. 그 콤보판은 점차 물을 잔뜩 먹은 솜판처럼 변하였다.

박형찬대대장은 숨신 목다리까지 폭 적시는 물 먹은 논판을 절벽절벽 걸으며 대대부로 돌아오고 있었다.려단지휘부에서는 다가오는 봄까지 굴진을 끝내려고 대대장들의 회의를 열었다.

봄, 어느덧 봄이었다. 물길공사장에서 맞는 이 봄은 류달리 그의 가슴을 흔들어놓았다. 엄혹한 겨울은 물러가고 보다 활기찬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서로 목이 짝 메여왔다.

(이번까지 1등을 하면 순회우승기는 우리 대대의 것이겠다. 이제 더 박차를 가하자. 굴진경기 1등은 때놓은 당상이고 참, 씨클경연은 어쩐다?)

박형찬은 뭐니뭐니해도 굴진만을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었다.

이때 물먹은 논판을 절벽절벽 뚫으며 누구인가 급히 달려왔다. 보통키에 특이한 점이 없는 준수한 얼굴, 작습숨웃은 석수에 폭 젖어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림철삼은 건뚝 들린 눈길을 곧바로 대대장에게 주었다.

(원, 사람두 또 뭘 비치고싶어서 저렇가?)

평소에 대대장의 사업권한에까지 끼여들어 참네하길 좋아하는 청년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대대장은 마뜩잖게 상대방을 보았다. 림철삼은 대대장의 기색에는 아랑곳없이 말문을 열었다.

《대대장동지, 우리도 준비를 합시다. 지금 다른 대대들은 대단합니다. 경연에 나가보지도 않고 기권한줄 안다면 동무들이 펍 섭섭해할겁니다. 날자가 박두했는데 오늘부터 ...》

박형찬은 더 들어볼것 없이 손을 내저었다.

《그래, 동문 노래까지 1등 하겠다는거요?》

《못할게 뭘니까. 대대장동지, 처음부터 맥을 놓는건 패배주의표현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멋진 재간둥이들이 있는지 모르지요?》

접어드는 품이 그저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박형찬은 굴진경기만을 중시하고 노래경연쯤 양보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처사라는 자기 생각을 설명하려다가 림철삼의 진지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림철삼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듯 그 유포

한 대문이를 가리지 않은채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다. 림철삼은 전번 로력보충때에 나온 제대군인이었다. 군대때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어 대대에서는 《안변》으로 통하였다. 박형찬은 그의 남다른 경력을 믿고 운반중대를 싣듯 맡겼다. 그는 중대를 초월하여 대대사업에까지 끼여었다. 처음엔 그의 경력만으로도 믿음이 절로 가고 위압감까지 느끼곤 하였는데 지내면서보니 형편없는 싱겁등이었다. 비칠데, 안비칠데,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가리지 않고 덤비었다. 그는 일단 비친 일에 대해서는 성과를 볼 때까지 끈지게 내밀었다. 그의 끈진 일습씨로 대대에서 덕을 본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에 쉽사리 무시되지가 않았다.

《그래, 꼭 1등할 자신이 있소?》

떠보듯 묻는 대대장의 물음에 림철삼은 어깨를 쭉 펴고 한발자국 내짚었다.

《맞서봅시다. 맞서되 준비를 착실히 합시다.

무슨 일이나 품을 넣으면 성과를 보기마련 아닙니까?》

림철삼은 공연한것을 설명했다는듯 어깨를 으쓱 해보였다.

방금전까지 굴진경기만을 중시하며 전전궁궁하던 대대장은 림철삼이 어느새 자기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매마침 《공격》해왔다고 생각하며 넋지시 말을 건넸다.

《뭘, 신통한 종목이 있소?》

《우리한텐 기타반주에 독창이 있습니다.》

《그런거야 다른 대대들에도 있을텐데, ...》

《물론 있겠지요. 우린 이 종목을 좀 새롭게 시도 하고있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남다르게 궁리하고 실천하면 특색있는 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으-음, 한번 말아 해보우, 할바엔 1 등을 하게 잘해보란 말이요.》

림철삼이 기꺼운 표정으로 《알았습니다!》하고 제식동작을 취하려는 순간, 그래서 박형찬이 민망스러워 절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쿠-웅!》하는 둔중한 평음이 울리었다. 여직껏 들어오던 발파소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색다른 폭음과함

게 두사람 다 동시에 비칠거렸다.

《이게 뭐요? 지진이 아니요?》

박형찬이 소리난쪽으로 시선을 주며 다급히 물었다. 그들이 말은 굴입구에서 화염같은 흙먼지가 타래쳐오르고있었다. 두사람은 시선을 마주친 채 굳어졌다. 봉락?! 봉락이다. 봉락도 이만저만한 봉락이 아니다. 저런 무시무시한 굉음은 엄청난 봉락이 공기를 압축할때 내는 소리다. 박형찬은 숨차게 달려 현장에 도착하였다.

《로두관통봉락입니다. 저길 보십시오. 현장휴계실 한쪽 벽체까지 다 물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얼굴이 검스레한 참모장은 더욱 검컴해서 한숨을 쉬어 보고했다. 박형찬은 봉락으로 뽑혀 올린 흙먼지가 뿌연게 피어나오는 굴입구에 선채 한쪽 벽이 달아난 현장 휴계실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어떻게 살려낸 굴인데... 풀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맥이 풀려났다.

대대가 말은 굴은 암질상태가 좋지 못했다.

지휘부에서는 이런 석비태암질에서는 두말할것 없이 명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결같았다.

명굴과 굴뚝기-두가지 시공법을 놓고 공사기일 문제, 로력, 자재, 자금소요량을 대비적으로 엄밀히 따진 과학적수자열에서 박형찬대대장은 후자를 택하였다. 우리에게 《교》공법이 있다, 《교》공법이면 얼마든지 봉락을 극복하며 굴뚝기를 돌파할수 있다. 우리 식의 시공법이 있는데야 무엇 때문에 기일과 로력, 자재, 자금이 턱없이 드는 명굴을 고집하며 우물대겠는가. 설계일군들도 그의 제의를 지지해주었다. 굴을 뚫으면서 보니 예견치 않았던 물줄기까지 터졌다. 마디에 웅이라고 암질은 무른데다 직통으로 샘줄기를 찢렀는지 물이 뽑어져나왔다. 양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퍼냈으나 바가지로 강물을 퍼내는격이었다. 배수로를 짚주자니 물반이구역이 훨씬 높은 지대여서 어렵도 없었다. 박형찬의 《교》공법을 지지해주었던 일군들도 이제는 굴뚝기를 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연과의 투쟁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번져질지 예상하기 힘든 자연을 대상하면서 이쯤한것때문에 굴뚝기를 버릴 생각해?... 안되오. 안돼!》

박형찬은 마침 언제로 올라가는 굴착기를 현장에 끌어왔다. 배수로를 물길로 되어있는 지점까지 미끈하게 뽑고 집수점까지 파놓아 굴안의 물을 몽땅 집수시켰다. 지휘부에서는 언제공사에 굴착기를 제때에 동원시키지 못하여 공사의 전반계획을 이틀이나 지연시킨 대대장을 호되게 비판하였지만 박형찬자신은 가망없던 굴을 제때에 살린데 대한 만족으로 오히려 의기양양하였었다.

...

《다른 일은 없소?》

박형찬은 한참만에야 자기를 의식하며 짧게 물었다.

《없습니다. 새벽교대시간에 발파가 있었는데 한방이 튀지 않았습니니다. 발파조가 해체하려고 들어가려던 찰나에 현장을 돌아본 로동안전원이 〈s〉 지점의 땅꺾임현상을 발견하고 갱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니다. 대대비상소집으로 공기호스, 착암기, 일체 공구들을 다 걸어놓았습니니다.》

참모장은 짧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였다. 《s》지점의 땅꺾임현상이라, 그러니 대봉락은 해토와 겹친 강한 발파충격으로 닥쳐왔단 말인가. 하기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이쯤한거야 미리 예견했어야지. 박형찬은 후-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행이요. 올라가봅시다》

현장휴계실근처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서성되고있었다. 로두관통이 되어버린 부근은 괴물의 아가리를 련상시켰다. 온 산을 다 삼킬듯이 찍입을 벌린 로두관통은 보는 사람들에게 경악과 무시무시한감을 동시에 체험하게 했다. 이때 《뭐라구?》하는 참모장의 깜짝 놀라는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울렸다. 참모장의 곁에는 시공참모가 안절부절 못하고서있었는데 왜서인지 화들화들 떨고있었다.

《그게 사실이요?》 참모장의 격한 반문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주의를 모았다.

참모장이 저뭇저뭇 다가왔다.

《대대장동지! 갱안에 발파조가 들어갔었답니니다.》

《뭐요? 동문 아까 차단시켰다고 하지 않았소?》

《...》

《글쎄 둘이 새들여간줄은 여태 몰랐습니니다. 제가 그냥 버티고있었는데 어느틈에 들어갔는지... 불발을 해체하겠다고 고집하는걸 겨우 말렸됐는데...》

로동안전원의 증언부연하는 뜻밖의 이 소식은 방금 울린 로두관통보다 더 크게 사람들을 놀래웠다.

《아-》

박형찬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천길 낭떠러지에 바투 선듯이 눈앞이 새까매왔다. 언뜻 대대의 발파공인 박남영과 화약장비공으로 일하는 딸 옥이의 모습이 애처롭게 밝혀왔다. 온몸을 비트는 모진 아픔에 피가 말라드는것 같았다.

이때 림철삼이 달려와 갱안에서 레루장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났다고 보고했다.

《착각이 아니요?》

참모장이 다급히 물었다.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레루장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자신있게 대답하는 그를 현실이 이처럼 가혹하지 않다면 능큼 안아주고픈 충동이 일었다.

《그러니 간헐단 말이지. 봉락에 묻히지 않

고...》

박형찬은 일시 피흐름이 획 뒤바뀌우는감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굴속에 갇혔습니다.》
림철삼이의 자신있는 장담에 《여, 압축기!》, 《혜란동무! 압축공기!》 하는 급한 목소리들이 저마끔 울리었다. 압축기운전공이 사람들속을 헤집고 허둥지둥 뛰어나와 압축기를 조작하였다.

《좌-아》 압축기의 동음이 울렸다. 배관이 고르롭게 떨렸다.

이 흐르는 공기를 들이킬 두 생명이 련상되어 서로들 부둥켜안았다.

기쁨은 한순간! 압축기가 맥 없이 멎어버렸다.

《어떻게 된거요. 왜 멎었소?》

《압력계바늘이 마지막눈금까지... 공기가 막장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운전공은 울먹이며 대대장의 얼굴만 주시했다.

박형찬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이 다 급해나면 너무도 뻔한 사실에 명칭해지고 왕청같이 일을 벌리게 되는가, 봉락위험으로 착암설비며 공구까지 다 걸어놓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마 봉락은 두 동무가 불발을 해제하는 시각에 있었을것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 갇혔습니다.》
림철삼이 다시한번 자기 생각을 곱씹었다. 버력에 묻히지 않고 갇혔다는 《안변》의 완강한 주장에 주위는 한순간 설레이기까지 했다. 두사람은 죽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에 무작정 광차를 끌어다가 버력을 퍼질었다. 빨리 빨리! 한광차라도 빨리! 손과 손들에서는 불바람이 일었다.

《저런 식으로는 두달도 모자랍니다. 얼추 계산해 보아도 떨어진 버력은 2천립방이 넘습니다.》

시공참모는 두사람을 구해내는데는 보다 적실한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것을 예들려 표현하였다. 땀흘리며 맞들이, 광차, 마대에 무력대고 버력을 퍼내던 사람들도 이 일이 한정없이 오랜 시간의 작업량이며 이런 식으로는 굴속에 갇힌 두사람을 구원할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 모두의 눈길이 대대지휘부성원들이 서있는곳으로 황황히 쏠렸다.

《봉락은 75 지점입니다. 두 동무가 갇힌 지점은 굴진 마지막지점인 85 입니다. 이 봉락버력은 48 지점부터 73 지점까지 45 도를 이루고 길게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면적은 14 평방정도입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면적의 산소량으로는 최대한 열시간정도 지탱할수 있습니다. 후-》

시공참모는 시공공정도를 놓고 비교적 정확한 설명으로 박형찬의 가슴을 더 얼켜놓았다. 박형찬은 두눈을 습벽이었다. 초조하고 답답한 한초한초가 숨가쁘게 흘러갔다.

...《아버지, 마침 오셨어요. 나 아버지하구 긴요하게 토론할 문제가 있었었는데...》

로력보충때문에 집에 들어갔을 때 딸은 여느때

없이 반겨맞으며 아버지앞에 마주앉았다.

《아버지, 날 돌격대에 받아줘요. 예.》

《네가 돌격대에? 모를 일이다. 네 나이에 시집 보내달라고 조를줄 일었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렇잖아도 로력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아버지의 선선한 대답에 딸은 더 바싹 다가와 앉았다.

《아버지, 한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대대장의 딸이 아니라...》

《음, ...대대장의 딸로는 싫다. 그건 뭐 어려울게 없다.》

박형찬은 돌격대생활을 꿈꾸는 딸을 새삼스레 돈우보며 실무적인 입대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뒤늦게야 이 일을 안 안해가 펼쩍 뛰었다.

《당장 시집갈 애를 돌격대가 뭐예요. 당신은 제 정신이예요?》

《당장 시집이라니? 신랑감이나 있제?》

《같은 직장에 따라다니는 총각이 있다는데 저안 싱겁둥이라고 딱 잡아땀다.》

《어떤 청년인데?》

《제대군인이라는데...》

뭐라고 더 설명을 이르려던 안해는 《나도 잘 모르지요.》 하고 중동무이하고말았다. 박형찬이 그날 밤 생각을 고치려고 마음먹고있는데 딸은 어느새 그 심정을 눈치채고 바싹 다그쳤다.

《대대장동지, 대원 박옥이 의견을 말할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의 돌격대문진은 이미 구비됐습니다.》

그 딸은 많은 보충로력자들속에 끼여왔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대로 대대장이 자기 아버지라는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박형찬은 그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대대장의 딸로 특혜를 바라기보다야 얼마나 제법인가.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줄 아는 딸이었다. 그 성격에 비추어보면 심본 리해되는 일이었으나 박형찬은 알찌근했다. 여직껏 로동미래야 재봉기 앞에서 흐름식으로 옷을 지은것이 전부인데 처음 해보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힘든 육체로동을 자기식으로 한다는 그 영악이 마음에 썩 들었다. 사람들속에서 딸은 《박옥이》대신 《옥이박이》로 불리웠다. 박형찬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참 그럴듯 했다. 자름자름한 흰 이새가 입안으로 읊은데서 그렇게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옥이박이들이 이악스럽고 맵짜다는것이였다.

《고 이발 생긴걸 보십시오. 우아래 모두 안쪽으로 읊은게 옥이박이의 전형입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맵짠지 누가 범점을 못하지요. 생긴게 곱살해서 총각들이 어스병대지만 으-음... 거저 동생벌인 남영이만 끼구 돕니다. 하긴 장비공한테야 발파공이 직속상관이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것이 어제런듯 생생했다. 장비공과 발파공이 손발이 맞아 굴진이 잘 떼나간다는 말도 좋았지만 웬만한 총각들을 눈아래로 보며 대하는 딸의 도고성에 흠족했던 그였다. 박형찬은 불을 토하듯 무겁게 숨을 내그었다. 이제 와서 굴진경기도, 써클경연을 운운하던 방금전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

계만 여겨졌다.

2

《남영이, 우린 살아날수 있어, 글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불을 단 순간에라든지 아니면 불을 달구 막 뛰어나갈 때 봉락이 왔다면 어쩔변했어? 우린 틀림없이 …》

옥이는 뒤말은 날숨을 길게 내쉬는것으로 대신했다. 그리고는 아직도 까닥하지 않는 남영을 자기 이야기속에 끌어넣느라 이말저말로 건드리었다. 상대쪽에선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남영은 몇분전에 쥐도새도 모르게 굴안으로 스며들던 때를 돌이켜보았다. 굴밖은 갑자기 삼엄했다. 봉락이 예견된다는것이였다. 로동안전원은 남영을 발파공으로가 아니라 《위험분자》처럼 굴밖으로 내몰았다. 발파때마다 매번 그 정형을 제 눈으로 확인하던 습관도 있거니와 한방이 튀지 않아 조금하던 마음에 불쑥 반발심이 치솟았다.

《누님, 우린 무조건 불발을 해제하고 불을 달아야 해요. 그러니 내가 저 형님을 탄데로…》

《알겠어. 알겠다니까. …》

남영의 손발뿐아니라 마음까지 맞춘 옥이는 발파공이 무엇을 의도하고 바라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둘은 그야말로 물처럼 새어들어갔다.

핑음이 울릴 때 그들은 불발을 찾고 한창 장악중에 있었다. 아직은 불을 달지 않았는데 귀를 멍멍하게 하는 폭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 폭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식하지 못한채 폭풍에 날리며 굴벽에 휘 뿌려졌다. 피괴한 정적이 무덤속을 연상시켰다. 폭풍에 그랬는지 손전지의 유리알이 산산조각 금이 났다. 그래서 전지에 비쳐진막장안은 어룡어룡한 무늬를 수놓고있었다. 옥이는 전지로 버력을 비쳐 돌을 찾고있었다. 온통 석비레뿐이다. 뭔가 맞춘것이 있을듯 해서 부지런히 전지불을비치는데 새하얀 차돌이 반쯤 묻힌것이 눈에 띄었다. 이게 어떻게? 너무도 생생한 추억이 상기되였다. 돌격대에 처음 왔을 때 휴계실 주변을 꾸리는 일이 맡겨졌다. 옥이는 벽체들을 회칠하고 나머지 회포로 돌레를 빙 돌아가며 막아놓은 돌들에 칠하려고 마음먹고있었다. 이 속공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림철삼이 다가왔다.

《저 〈썩은 돌〉에 회칠하자는거요?》

그가 말하는 《썩은 돌》이란 옥이가 버력장에 서 골라낸 갯에서 나온 석비레돌들이였다.

《저 수정천기슭의 차돌들이 동무를 기다리고있소. 몇걸음만 걸으면 차돌이 쪽 깔렸는데… 비맞고 바람지면 다 없어질 썩은 돌에 〈분칠〉을 하겠다구… 똑똑히 들소. 무슨 일이나 품을 넣지 않으려거든 애초에 손대지 마소.》

《우리가 뭐 여기서 당대 살겠다구요》

옥이는 오톨해서 내쏘았다. 림철삼은 옥이의 기본엔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그런 림시관념으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소. 자기 량심을 묻고 자기를 바치는 심정이 우러나올수가 없단 말이요. 가요! 수정천은 멀지 않소.》

옥이는 입귀를 짓씹었다. 여기까지 와서 맞서

지 말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의 말이 공장에서처럼 까박을 붙일나위없이 정당한것이기때문이였다. 옥이가 수정천기슭에서 주는 차돌을 배낭에 지고오는데 림철삼이 따름 홀리며 흠뻑이채 묘목들을 저오는것을 면바로 맞다들게 되였다.

모르는 사람 지나치듯 하려는데 림철삼이 먼저 말을 건넸다.

《같이 갑시다. 이거 〈동부인〉 하면 신바람날텐데 …》

《동부인》하고싶어서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걸음을 맞추지 않을수가 없었다. 어깨를 누르는 차돌배낭으로 해서 걸음이 떠지면 림철삼이 저만큼 묘목들을 옮겨두고 와서는 다시 차돌배낭을 옮겨가곤 했다. 바로 그 차돌이였다. 그러니 휴계실 주변이 내려앉았구나. 옥이는 인차 그 묘목도 찾아내었다. 그 돌과 어린 나무로 해서 봉락의 표상이 뚜렷이 안겨왔다. 옥이는 그 차돌을 짊어 움켜진채 레루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딱딱딱… 여운이 없이 끊기는 울림이 차단된 막장이라는것을 더 강조하는것 같았다.

《그만뒤요, 누님 제발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남영의 발작적인 웨침에 옥이는 무춤 손을 거두었다.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걸밖에 알려야 하지 않니. 남영이, 내 말을 믿어. 우린 꼭 살수 있어. 버터내자. 그때까진 힘을 아껴라!》

《괜한 일이에요. 그까짓것루 어떻게 알린단 말이에요?》

《넌 이 레루장이 통신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다는걸 모르는게지. 이제 두고봐. 꼭 화답하는 소리가 울거야. 범굴에 잡혀가두 제정신을 잃지 않으면 산다구 했잖아?》

《차라리 범굴이 나올거예요. 이렇게 숨막히게 답답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범굴에선 살아난다 해도 여긴 힘들어요, 아니, 안될거예요. 아, 누님, 우린 어떡하는 좋아요!》

《너 정말 못나게 굴겠니? 밖에서 우릴 구원하는 전투를 벌릴거야. 그때까지 버터내야 해. 철삼 동무랑 우릴 구원하는 전투를 벌릴거야.》

불현듯 림철삼의 준수한 얼굴이 떠올랐다.

옥이예겐 기분나쁜 인상이 너무나 깊이 새겨진 그 얼굴이 느닷없이 떠오르는건 무엇때문인가.

…《기능공이라고 하면서 수리공은 왜 찾소? 자검자수는 동무에게 해당되지 않소? 우린 군대때 무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다루는 장구류들을 다 제 손으로 수리했소》

채봉기수리가 제기되어 수리공을 찾았을 때 림철삼은 기름문은 모자를 스파나로 들어올리며 빈정댔다. 옥이는 모멸감에 얼굴이 확 달아올라 스파나를 빼앗다싶이 하고 씹씹거리며 제 손으로 고장을 퇴치하였다. 다시는 저 《싱검둥이》와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림철삼이 편에서 옥이를 건드려놓는 일이 또 한번 있었다.

이 일이 옥이의 돌격대입대에 결정적작용을 한 것이기도 했다. 직장분기생산총화끝에 혁신자추

천모임이 있었다. 직장장이 누구를 혁신자로 추천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내놓으라고 장내에 제기하자 모두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 옥이에게로 향해졌다. 박옥이가 혁신자라는것은 누구에게나 기정사실로 알려져있었던것이다.

《박옥이동무!》

요란한 박수가 장내를 흔들었다. 옥이는 다소곳이 일어났다. 혁신자로 뽑힐 때마다 사람들앞에 겸손해지고싶은 마음이여서 머리를 곧추 들게되지 않았다. 그 겸손성에 사람들이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것을 옥이는 잘 알고있었다.

이때 장내의 박수소리를 짓누르며 누군가 의견을 제기하겠다면 자리에서 일어섰다. 놀란 눈길들이 소리난곳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림철삼이었다.

《물론 박옥이동무의 높은 생산성과는 찬양할만합니다. 그러나 전 반대입니다. 이 모임이 혁신자 추천모임만큼 마땅히 진짜혁신자를 찾아야 합니다》

림철삼은 불쑥 말을 끊은채 좌중을 휘돌러보았다. 그 거동은 자, 제 말이 틀림니까, 그렇다면 반박해보십시오 하는 태도였다.

주위는 조용해졌다. 진짜혁신자? 그럼 박옥인 진짜혁신자가 아니란 말인가.

《박옥이동무의 혁신은 실지에 있어서 론의할것이 못됩니다.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넘쳐 해치운데 불과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단순한 반복작업에 매달린 이런 일썌씨는 열성이 높고 다년간의 기능을 체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린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혁신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일썌씨만으로는 오늘 선군시대의 혁신자대렬에 들어설수 없습니다.》

순간 장내는 얼어붙은듯 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차츰 여기저기서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 한순옥동무를 혁신자로 추천합니다.》

주위는 또 한번 설레었다. 저 제대군인수리공이 궁지높이 추천한 혁신자는 어떤 처녀인가.

회의장 맨뒤끝에서 애 어린 처녀가 얼머름한채 일어났다. 중학교를 갓 졸업했는지 애리를 벗지 못한 눈빛이 밤별같고 코마루가 당실한게 무척령리해보이는 처녀였다.

오, 저 처녀가 재봉실 끊는 공정을 착상하고 기술과 문턱을 불이 나도록 드나들며 끝내 성공시킨 처녀구나. 옥이는 순간적으로 이 어린 처녀를 알아보았다. 재봉기바늘이 실을 물고 동작하다가 수없이 제기되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다시가동시킬 때면 어차피 끊게 되는 실을 줌전에는 가위나 칼로 끊곤 하였다. 재봉공은 항상 이 실끊기도구를 작용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실끊기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것으로 인식되어있었다. 그런데 한순옥이 재봉기바늘과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작은 칼날을 설치하여 실끊기시간단축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짜일대로 짜인 피복가공에서 이 실끊기를 간단하게 해결한것은 하나의 큰 혁신이 아닐수 없었다. 옥이 자신

이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작업대우에 놓았던 칼은 어떤 때는 제품더미에 깔려있어 실을 끊을 때마다 근손질이 많고 그만큼 시간이 허비되었다.

림철삼이구체적으로 따져본 시간이 매 기대공당 하루 12 분이 거저 얻어졌다고 했다. 피복공장에서 기대공이 아닌 사람이 혁신자로 뽑히운 사실은 여태없었으나 림철삼의 제의는 억지스럽지가 않았다.

박옥이 자신뿐아니라 온 공장의 생산성과속에 어린 처녀의 새로운 포착과 혁신적인 실천이 커다란 역할을 한것이였다. 며칠후에 있는 공장적인 혁신자축하모임때 한순옥이 주석단에 오르고 환영곡이 울렸다. 옥이는 확 달아오른 얼굴을 짜취고싶은 창피감에 몸을 떨었다.

물론 그의 제의는 옳다. 그러나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상을 뒤집어놓고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되어있는 혁신자를 반복로동, 숙련공으로만 치부하는 그의 확고한 론거에 화가 났다.

옥이는 그 론거를 인정은 하면서도 공감하기가 싫었다. 그것을 공감한다는것은 자기의 부단한 노력을 부정하는것으로 되기때문이었다. 이런 옥이에게 중지부를 찍듯 림철삼이 결연히 그루를 박았다.

《박옥이동무가 앞선 공정에서 혁신하기에 뒤공정이 그에 맞게 따라선나는것은 온 공장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만입니다. 보다 새롭게 사고하고 혁신하려는 지향이 없는 수동적인 태도는 일격당해야 합니다.》

옥이는 입술을 옥물었다. 자기에게만 유별나게 무턱대고 트집을 거는 제대군인청년에게 화가 났다.

옥이는 돌격대를 희망하였다. 군사복무 못지 않은 돌격대에 나가 단조로운 로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욕도 있었지만 보다는 림철삼의 지곳은 요구앞에서 벗어나고싶은 욕망이 더 컸었다.

옥이는 세상일은 참 우습게 번진다고 생각했다. 물질공사에 로력보충이 제기되자 림철삼이 제일 먼저 탄원했던것이다. 림철삼을 일시 피하려던 그는 또다시 그와 정면으로 맞다들게 되었다.

림철삼의 《간섭》은 여기 물질공사장에 와서도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해진듯싶었다.

《굴진의 기본열쇠를 맡은 동무들이 마력을 못내니 우리 운반중대는 하품이 나올 지경이요. 명심하오! 발파효률을 높이는것이 굴진속도를 보장한다는걸 말이요.》

어느 하루밤은 그의 끈질긴 성화에 두개령을 넘어 천홍광산대대 장비공을 만나 장비의 묘리와 묘술을 배워왔다. 화약장비에도 역시 자기만의 기묘한 요령과 묘술이 숨어있었다. 확신적으로 한 발파여선지 발파가 정말 잘되었다.

샘세기를 끝내고 들어가보니 잘 부풀어 난 증기뿜처럼 막장이 넘쳐나게 꼭 채운 버럭을 보며 둘은 얼싸안았다. 이때 누군가 또 그들을 부둥키었다.

그들보다 한걸음 앞서 뛰어들어왔던 림철삼이 화약내가 빠지지 않은 굴속에서 기침을 해대며 숨차게 말했다.

《내 꼭 이럴줄 알았댔소. 난 동무의 손이 이렇게 매워지리라라는걸 알았다니까. 동문 정말 〈옥이 박이〉 요!》

옥이는 너무도 기쁨김에 림철삼의 부동김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비키라요. 이 형님이 정말...》

평소에 옥이가 림철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아는 남영이가 림철삼을 때놓느라 씹씩거렸다.

《기회가 좋다 하구, 쳇... 저리 비키라요!》

남영이의 눈총앞에서도 림철삼의 비위살은 주접이 들줄 몰랐다.

《이 친구 제 누이보담 더 값을 올리누나. 어쨌든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여요? 뭐가요?》

《발파두 그래, 네 누님일두 그래. 왜, 보조병이 든해서 마음이 놓인다는데 싫니?》

《쳇!》

옥이는 눈앞에 펼쳐진 《발파작황》에 흠뻑 취하여 돌의 심경이를 못본척해두었다. 아니, 그와 더는 맞서고싶지 않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였었다. 그의 이런 심리를 헤아렸는지 림철삼은 더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았다. 어느 하루 남영이가 옥이의 손에 x로 접은 쪽지를 주었다.

《이건 뭐냐?》

《펴보라요. 우린 그 형님을 너무 몰랐던것 같애요.》

그전과는 판판 다른 남영의 태도에서 옥이는 두눈을 깜빡이며 여겨보기만 했다. 분명 림철삼의 글일것이라고 짐작되면서도 남영이가 왜 저렇게 돌변했는가를 먼저 알고싶어하는것 같았다.

《아, 빨리 펴보라니까요. 누님은 괜히 꽃꽃해서...》

남영은 옥이의 지긋은 눈길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옥이는 쓴 입을 다시며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손바닥만한 종이가 넘쳐나게 휘휘 갈겨쓴 글자들이 엇부리며 다가왔다.

《발파조앞, 아직 잔공이 남아있다. 잔공이 있다는건 발파효률을 더 높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걸 보여준다. 화약장비와 진흙다짐을 잘할것.〈안변〉》

옥이는 버릇처럼 입귀를 짓씹었다. 〈안변〉의 로골적인 참견은 별로 새삼스러우게 아니지만 그의 편에 서있는 남영의 처사가 마음에 걸렸다.

《남영이, 말해봐! 너 똥에 웅해했니?》

《웅해라니요? 난 그저 형님의 그 진심이...》

《진심? 그게 진심일가?》

따지듯 묻는 옥이의 물음에 남영은 씹 숨만 몰아쉬었다.

《다시는 이런거 들고다니지 말아. 이건 트집이다. 우린 할만큼 다하고있어.》

옥이는 손에 쥐고있는 쪽지편지를 발치로 던져버렸다.

(내가 너무 오편거렸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딱딱딱... 옥이는 아득히 먼곳에서 레루장 울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것을 푹푹히 느꼈다. 봉락버력에 확 묻히여 여무진 소리는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오래동안 울리었다. 분명 밖에서 자기들의 《신호》를 접수한것이였다. 아, 우리가 보낸 신호가 밖에 알려졌다! 순간 전류같은것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남영이, 저것 봐! 저 소릴! 너도 듣지?》

《들려요. 밖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소리예요.》

옥이는 다시 차들을 찾아쥐고 레루를 때렸다. 그에게는 크지 않은 그 차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 주는 귀중한것으로 여겨졌다.

《고마워요, 철삼동무!》

저도 모르게 이런 부르짖음이 나왔다. 왜 그런지 그 소리를 꼭 철삼이가 울리는것으로만 느껴졌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였어요!》

문득 남영이가 이렇게 주를 달았다. 그도 림철삼이를 생각하고있었다. 옥이는 호- 한숨을 내고었다.

남영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였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있었다. 현재와 멀어지고있다는, 아니 이제 곧 이 현재와 아득히 멀어지게 되리라는 아픔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아니, 그럴수 없어, 우린 죽지 않아, 밖에서, 철삼동무가 우릴 꼭 구원해줄거야, 옥이는 서러드는 불안을 털어버리려 애쓰며 차들을 움켜쥐었다.

《가져와요. 내가 하겠어요.》

남영이가 옥이의 손에서 차들을 받아쥐고 더 갖고 요란하게 레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두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도 메마르고 조용하게 울리었다.

3

박형찬은 화들화들 펴려나는 몸을 가까스레 가누었다. 권양기능력을 높이고 광차의 적재량과 회전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언제건설장에서 굴착기를 끌어오는 문제도 시간이 맞지 않았다.

굴착기가 가있는 기본언제건설장까지는 70리! 연락을 받고 최대속도로 온다고 해도 래일 저녁에야 도착할것이다. 아니, 굴착기가 당장 이 자리에 있다해도 로두관통부분에서 이미 떨어진 버력과 이제 더 떨어질 버력을 제긴다 해도 절대적인 시간을 초과할것이었다.

박형찬은 허둥거리리는 눈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겐 옮기었다.

경황없는 눈길들이 허공에서 맥없이 부딪혔다가 멀어졌다.

참모장은 아예 대대장과 눈길이 마주치는것을 겁내었다.

그 무거운 눈길은 감혀있는 두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라고 말하는것보다 더 아프게 새겨졌다.

불과 몇분사이에 폭 꺼져들어간 그의 눈확에선 영채를 잃은 눈동자가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절벽절벽... 흙탕물을 차며 누군가가 다가왔다. 림철삼이였다. 그의 손에는 애기머리만 한 함마가 들려있었는데 당장 무엇이라도 때려부실듯했다.

《대대장동지! 어쩔 이렇게 속수무책입니까. 대체 어쩌자는겁니까. 이자 또 소리를 보냈습니까. 저안에선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정

말 이려고만 있잖니까?)

박형찬은 불시에 나타난 《비치기선수》를 녀없이 건너다보았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그와 함께 일해온 지난날이 새롭게만 인식되었다. 일이 클리는데 대하여 안타까와하며 해결책을 찾아 뛰여다니던 그 모습이 왜 쓸데없이 비치는것으로만 여겨졌던가. 대대장의 눈앞에는 여름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같이 지나갔다.

...굴공사에서 돌파구를 연다는 말은 굴입구를 잡기 위한 굴착을 해체끼고 《명굴지붕》을 씌워놓는 일이다. 대대는 방대한 량이 되는 굴착작업을 제일 먼저 끝내고 순회우승기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 《명굴지붕》(비에 의한 붕락을 막기 위하여 천정공크리트를 치는것)을 씌우는 일이 대대의 전진에 운명적인 문제로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장마는 예견보다 빠르게 닥쳐왔다. 7~8월의 장마가 6월로 당겨와 수성천을 범람하였다.

계획한 골재운반은 엄두도 못내었다. 박형찬이 언덕에서 수성천을 굽어보며 한숨을 태우는데 림철삼이 뛰여왔다.

또 비치고싶어 저러나부다 하면서도 은연중 기대어린 눈길을 보내었다.

《대대장동지! 왜 주저합니까. 힘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림철삼은 바싹 다가왔으며 손짓도 하고 땅바닥에 금도 그어가며 자기 주장을 설명하였다.

《뭐? 때목으로 골재를 나른다? 한번에 한톤씩은 문제없다구? 정말 천진하군. 이게 뭐 소꿉시절에 놀던 동막기인가 하지 않소. 동문 어찌면 그렇게 싱겁소?》

림철삼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대장의 비난에는 아랑곳없이 한발자국 더 내짚었다.

《대대장동지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중대끼리 해보겠습니다.》

《뭐라구? 동무네끼리? 오늘은 말 좀 해야겠소.》

박형찬은 텅겨나듯 일어났다.

《하십시오, 대대장동지!》

림철삼의 얼굴에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강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에 무조건 호응해달라는 애원이 더 짙게 어려있었다.

《림동무, 나도 명령분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며 그 길에선 죽을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यो. 하지만 지금 형편에선 엄두가 나질 않아. 사방물천지니 운수기재가 어데 바퀴를 붙일수가 있어야지.》

은연중 사정조로 넘어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림철삼은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채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다.

《그러게 때를 못자고 하지 않습니까. 물천지에 때이상 있습니까, 될수 있습니까. 아니, 넉근합니다.》

박형찬은 림철삼의 제기를 수락하고말았다.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이어서 다른 수가 없다는 반

신반의의 태도였다. 그런데 일은 얼마나 희한하게 번졌던가. 림철삼은 자동차바퀴의 주브를 여러개씩 묶어 때밀에 달아매고 범람한 수성천의 골재장에서 골재를 실어들여 《명굴지붕》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두번째 순회우승기를 쟁취하였다.

박형찬은 자연의 횡포를 오히려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본새에서 림철삼을 새롭게 알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금 이 시각 이상하게도 마음이 굳건해지는것을 느끼며 림철삼을 더듬었다. 그 눈길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다.

《대대장동지. 권양기능력을 높인다, 굴착기를 끌어온다는 타산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되는 타산이기에 이렇게 맥을 놓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대대장동지, 저의 결심을 말하람니까?》

림철삼은 의향은 대대장에게 물으면서도 자신 있는 얼굴은 주위를 휩 일별하였다. 무언가 기대되는, 온 마음을 끌어당기는 호기심이 여러 사람들의 얼굴에 제가끔 어리었다. 그 얼굴들은 뒤흔들어와있나, 좋은 안이면 〈안번〉답게 직방들이대야지 하는 응원과 당부가 력연하였다. 림철삼은 어깨를 솟구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저 로두관통부분에다 쇠판을 사선으로 때려박읍시다. 말하자면... 비유해 말하면 샘통에다 시추배관을 꽂아놓듯이 말입니다.》

주위에선 번쩍! 섬광이 일었다. 림철삼이 숨 한번 들이키지 않은채 설명을 잇달았다.

《그 배관을 내려박을 거리는 극상해야 8~9 메터, 그렇습니다. 극상해야 그렇게밖엔 안됩니다. 불량버럭이 떨어진 밑거리는 20 메터가 넘지만 중간에서 사선으로 차를 때의 거리는 3분의 1 뿐입니다. 배관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놓았다가 때려박으면서 일정한 깊이에 박히는 때마다 차른 배관을 용접으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메로...》

《가만, 가만!》참모장이 불쑥 제지시켰다. 그의 설명이 리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적중한 착상에 현훈증이 온것 같았다.

《그러니 로두관통부분에서 직접 쇠판을 꽂아주어 산소공급부터 해주자는거지?》

《산소공급뿐이겠습니까. 그 판으로 별게 다 들어갈수 있지요. 밥이랑, 간식이랑 ... 그새 우린 주근주근, 어떻습니까?》 참모장이 덩석 림철삼을 부둥켜안았다. ... 《이젠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다말입니다.》 참모장의 확실한 믿음에 이어 시공참모의 흥분에 뜬 어조가 장단을 맞추었다.

《가능할가?》대대장의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반문은 오히려 좌중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열에 뜬 얼굴들이 대대장과 림철삼을 번갈아 살피었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굴같이 석비레버럭에서는 열번 더 가능합니다. 더구나 불량버럭은 부품결수가 커서 원토보다 때려박기가 수월할겁니다. 문제는 거석만 부딪치지 않으면...》

림철삼이 장담해나섰다.

《거석은 넘려할게 없어. 없던 거석이 이제 나지겠나. 첫 배관의 앞코숭이엔 나무썰기를 박아야겠지? 버력이 쇠판에 배기지 않게 말이야,》

《나무썰기는 안에서 뽑기 험하게 손잡이 흠을 파주어야지요.》

흥분에 젖은 목소리들이 어지간히 높아갔다. 로두관통부근은 불시에 부글부글 끓었다. 용접기를 끌어온다. 쇠판을 메운다... 곧 용접기가 뽕뽕 울었고 함마를 진 《힘장사》들이 울쭉불쭉한 군악을 자랑하듯 웃동을 벗어제겼다.

《문제 힘껏 내려치는것만이 아니야. 철판이 내려가는 감도를 보면서 ... 알겠지?》

림철삼이 자른 쇠판에 나무썰기를 박으며 한마디 텅기자 무작정 힘내기를 하려고 덤비던 《힘장사》들이 움쭉 물러들었다. 너무도 중대한 일이어서, 생사를 다투는 심각한 작업이어서 자칫하면 뒤틀릴수 있다는 위구심에서였다.

《자, 아- 너무 긴장들 말구, 이제 기껏해서 서너 시간후면 우린 저 동무들과 면담하게 될걸세.》

림철삼의 롱기어린 고무도 주위의 팽팽한 긴장을 풀지 못하는듯 했다. 한메터, 두메터... 로두관통버럭속에 배관이 박혀들어갔다. 세메터, 네메터... 더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지간히 긴장한 함마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어찌된 일인가, 거석이? 아니면 쓸림? 함마수들과 주위의 눈길이 림철삼에게 집중되었다. 박형찬도 레외가 아니었다.

그의 눈길은 줄곧 림철삼에게 멎어있었다. 림철삼은 일순 당황한듯싶었다. 미간을 좁힌채 박아놓은 배관만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배관이 더 깊이 박힐수록 쓸림힘이 커지고 센 압력에 부딪쳤는가, 숨가쁜 한초한초가 지나갔다. 그들의 고막에서는 온 세상이 시계초침소리로 짹 찬듯싶었다. 누구인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후- 땅이 꺼지게 숨을 내그었다. 그 청송맞은 한숨은 다행히도 별안간 소리치는 림철삼의 웨침에 삼키여졌다.

《자끼! 자끼를 가져오라구, 자동차자끼로 밀어보자구.》

대대의 유일한 운전사인 정근이가 용수철 텅기듯 어느새 자끼를 들고 나타났다. 그렇지, 웬만한 쓸림에야 자끼이상 없지, 박형찬은 무릎을 치고 싶었다.

《자, 힘을 씹시다. 지지점만 정확하면 열메터라도 쟁- 할수 있소!》

림철삼이 신심을 주듯 큰소리로 말했다. 자끼의 지지점을 면바로 주느라 옥신각신하며 굼직한 나무 말뚝을 때려박았다. 든든한 지지점에 의지한 자끼가 용을 쓰기 시작했다. 용접으로 때붙인 쇠판이 이때라는듯 버럭속으로 쭉 빠져들어갔다.

괴물의 배속에 꽃히는 창날마냥 시원스럽게 박히었다.

《야- 아!》 일시에 탄성이 터졌다. 박형찬은 온몸에 퍼지는 찌릿한 전율로 부르르 몸을 떨었다.

옥이의 생각은 끝없이 이어져갔다. 껍 어렸을 때 그는 어느 책에선가 인가와 떨어진 오래된 우물자리나 동굴속에서 림시로 취하는 구급대책에 대하여 읽은적이 있었다. 먹을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취하는 방법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퍼그나 호기심과 진진한 흥미를 가지고 대하였었다. 책에서는 순수 자기 입안의 침만 가지고 얼마든지 응급할수 있다고 타당성있게 납득시켰었다. 그때 옥이는 실지 동작해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책에 그려진 피치 못하게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현실같아서 동정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처지는 그 책에 그려진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조건이 아닌가, 오래된 우물자리나 동굴은 밀폐된 이 굴속보다야 얼마나 나은가, 우선 시시각각 공기의 결핍을 모르니 언제든 구원되리라는 희망은 낙관적일것이다.

호-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옥이는 얼른 남영이쪽을 보았다. 잠잠했다. 자기까지 한숨을 쉬고 맥을 놓으면 남영이는 완전히 리성을 잃을것이라는 위구심이 불쑥 들었다.

《남영이, 너 아까 무슨 말을 하려했니?》

남영은 그새 어지간히 진정되었는데 무슨 말인지 자꾸 하고싶어했다. 옥이는 부질없이 힘을 소모하지 말라고 애써 중단시켰었다. 남영은 이때라는듯 전지불을 켜대며 바투 다가왔다.

《누님, 난 러단적인 씨클무대에 누님과 함께 나가자고 했었어요. 내 기타반주에 맞춘 누님의 고운 노래가 1 등은 문제없을거란 말이에요.》

《그래? 기타반주에 맞춘 독창... 무슨 노랜 한담?》

《철삼형님은 러단적인 씨클경연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면 잘 연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 지겠어요. 난 오늘부터 맞춰보려구 생각했었어요.》

남영은 활기를 띠고 성수가 나서 이어졌다. 옥이는 저도 모르게 남영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굴진경기는 물론이고 씨클경연에서도 1등을 해야 한다는것이 철삼동무의 완강한 주장이란 말이지, 무엇이나 뒤지기를 싫어하고 앞서 달려야만 성차하는 그 《안변》이 이 시각 왜 그렇게 그리워질가.

옥이는 지금 이 시각 아버지의 모습보다 림철삼의 모습이 더 먼저 믿음직스럽게 떠오르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누님은 우리가 구원되리라고 생각해요?》

남영이가 문득 묻는 말이었다. 옥이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무조건적인 긍정의 표현

을 남영이가 전달받지 못했으리라는 깨달음이 생긴것은 다음순간이었다.

피피한 어둠이 주위를 짙 덮은데서 그 어떤 몸짓이나 손세는 동에 닿지 않은것이였다. 옥이는 급히 손전지의 단추를 누르며 포박포박 말하였다.

《난 믿어. 남영이, 철삼동무랑 가만있지 않을거야. 무엇인가 또 좋은 생각을 해내서 우릴 꼭 구원할거야.》

어쩐지 자기 목소리같지 않게 느껴졌다. 어데선가 먼데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옥이 자신도 들었다.

《헛, 누님두. 언젠 소 닭보듯 하더니... 내 뭐했어요. <용해> 요 뭐요 하면서 날 몰아뒀 땐 언젠데...》

남영은 못마땅하다는듯 쏘아붙였다. 그 시까스름에 옥이는 가만히 숨을 내그었다.

맹꽁이, 세상에 나같은 맹꽁이가 어데 있어. 그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안변에 심장을 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그렇게밖엔 살수 없는 거야, 이런 그를 애써 외면하면서 었서기만 했으니...

옥이의 눈앞에는 철삼의 일들이 새삼스럽게 깊은 의미를 띠고 장하고 정의롭게 새겨졌다.

굴뚝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을 때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레루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를 이끌고 림지에 올라가 하루밤사이에 《참나무레루》를 해결한 운반중대장 림철삼! 발파효률이 높지 못하다면서 발파때마다 《훈시》하며 비쳐대던 비치기선수! 뛰면 날고싶어하는 《안변》의 그 성격을 자기는 왜 트집을 거는 싱검둥이로만 대해왔던가.

가지가지의 일들을 추억해나가던 옥이는 먼데 볼것없이 손에 쥐어진 차돌 하나만으로써도 림철삼의 의로운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그때 그가 오똥한 자기와 끝까지 맞서서 시정시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의 손에는 차돌이 쥐여져있지 못했을것이였다. 그 차돌이 없었더라면 레루장이 통신수단이 된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밖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가슴만 쥐어뜯었을것이 아닌가, 옥이는 가만히 또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자기와 엮혔던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싶은 마음이였다. 철삼동무라면 무조건 외면하고 었서나가던 반항심이 컸던만큼 사죄하고싶은 마음도 끝절로 자라났다.

희뿌연 전지불빛이 어룡어룡한채 갱안을 밝히었다. 그 어룡어룡한 전지불 빛에 림철삼의 준수한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 유표한 대문이를 내보이며 싱글거리던 그의 모습이 지금이 시각 마음을 따스하게 덥혀주며 깊이 새겨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참, 그 동무가 지금의 우리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가, 그 동무라면 주저없이, 동요없이 버텨냈을거야, 버텨냈을뿐더러 《안변》답게 일을 했을거야, 그래, 철삼동무라면 저 튀지 못한 발파심지에 불을 달았을거야. 나도 《안변》처럼 살수 없

을가.

옥이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불안을 털어버리며 림철삼의 강한 행동선을 추구해보았다. 은연중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바위돌같은것이 묵직하게 들어앉아 굳어지는 2 중의 감정을 똑똑히 체험하였다.

당장 덜치려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그림자앞에서 위압되지 않고 혼연스레 맞선 자기자신이 끝없이 용감해보였다.

《남영이, 내 말 좀 들어봐. 세상에 났다가 한번은 죽는게 사람이다. 난 오늘 구원되지 못한다 해도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겠어. 남영이! 우리 저 심지에 불을 달자.》

《누님은 어쩔... 좋아요! 해보지요. 멋있게! 비록 한방이지만 잘될거예요. 참, 누님한테 쓸게 없어요? 원주필 같은거말이에요.》

그러는 남영의 눈가에 물기가 번쩍했다. 순간 찢어진것이 가슴을 훑어내렸다. 옥이는 남영의 두볼을 어루쓸었다. 아직 보습털이 가시지 않아 연하고 보드라운 살결이 만져졌다.

《그래, 뭘 쓰려니?》

《우리 아버지한테 그리구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음앞에서 몇몇했다구 쓰고파요. 비판하며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저 버력을 헤치고 들어와 우리한테서 글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거예요. 옥이누님과 이 남영이가 마지막까지...》

《그래, 쓰자! 우리가 비겁하지 않았다고 쓰자. 아니. 아니야. 우리 앞서간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그저 묵묵히 갔다, 자기 심장들을 헤쳐보이지 않은채 그저 묵묵히...》

옥이의 눈앞에는 어려웠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쓰러진 항일혁명선렬들과 몰아치는 불구름을 맞받아나간 조국해방전쟁용사들,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뜻밖에 맞닥든 죽음을 웃으며 맞받아나간 그들이 작은 글썽박 하나 남기였던가, 옥이는 손에 쥐고있던 전지를 남영에게 넘겨주고 남은 진흙덩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남영이도 얼른 다가와 일손을 합치였다. 둘이는 전지불을 비쳐가며 장악에서 마감작업으로 되어있는 다짐을 꼼꼼하게 해나갔다.

《남영이! 우리가 글은 쓰지 않아두... 우리가 터치는 이 마지막말파가 다 말해줄거야.》

옥이는 문득 말끝을 흐리었다. 걱정때문만은 아니였다. 그는 목을 스치며 떨어지는 흙부스레기를 털어버리며 전지불을 그쪽으로 바루 갖다대었다.

새 봉락이 오려는지 실한 왕금이 트고있었다.

《자, 빨리! 저게 내려갔기전에... 저게 또 내려갔으면 의의가 없게 돼. 발파할수가 없어.》

옥이는 서둘렀다.

《아니, 저게 뭐예요? 누님, 저걸 좀 보라요. 저걸, 저걸 말이에요.》

왕금이 트는쪽에 전지불을 비쳐대고 주시하던 남영이가 헤덤비며 황황히 소리쳤다. 옥이는 남영이가 비쳐댄 굴벽에 시선을 옮겼다. 아, 이게 뭘가, 찌적 버그러졌던 왕금을 헤집고 석비레덩이가 뿌죽뿌죽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옥이는 급히 허리를 숙구고 다가온 석비레덩어

리를 움켜잡았다. 탄탄하게 굳은 물체가 곧 드러났다. 반기장되게 다가드는 것은 배관이였다. 갑자기 온몸에 희열이 차넘쳤다. 남영이. 이것 봐! 내가 뭐랬어, 철삼동무가 또 좋은 생각을 해서 우릴 구원한다고 했지, 이걸 철삼동무가 우리한테 보낸 구원의 손길이야. 옥이는 넘치는 희열속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말하며 남영이를 얼싸안았다.

《우린 살아났어. 남영이, 철삼동무가 우릴 살려냈어, 이 배관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니. 이 썰기를 뽑아내면 분명 철삼동무의 〈명령〉이 떨어질거야.》

옥이는 흥분조로 빠르게 설명했다. 남영은 옥이의 말을 다 듣고도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멍해서있지만 했다.

《자, 빨리 와. 자, 봐! 이렇게 썰기에 힘이 파있지 않니? 철손이 편해서 제각 뽑아낼수 있게 말이야.》

옥이는 배관의 앞코승이에 묻은 석비레진흙덩이를 부지런히 털어버리며 열떠름해있는 남영이를 부추겼다. 그제서야 남영이 와락 달려들어 말끔히 드러난 나무썰기를 여겨보았다.

《맞근요, 나무썰기가 이걸 뽑아내게 된게 옳아요. 누님, 우린 구원되었어요, 만세!》

목멘 합성이 밀폐된 갯안을 짹 채웠다.

《자 빨리, 이 썰기를 뽑아내자!》

둘이는 배관에 틀어박힌채 버럭을 뚫고 들어오느라 억척같이 배긴 썰기를 뽑아내느라 안간힘을 썼다. 레루장을 때리던 차돌로 썰기돌레를 쳐대기도 하고 손칼로 살금살금 썰기살을 깎아내기도 했다. 드디어 썰기에 틈이 생기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잠시후 썰기가 뽑히면서 바깥의 뽕벌이 눈시글게 굴안으로 곧장 흘러들었다.

《누님, 이것 봐요, 이걸 분명 형님의 명령설거예요, 누님이 아까 바로 맞혔어요. 앞코승에서 썰기를 뽑아내면 형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더니 정말 이렇게 보냈근요.》

남영이가 해빛에 동그랗게 드러난 바닥에서 x로 접은 종이를 찾아내며 보란듯이 내흔들었다. 낮익은 쪽지편지를 대하는 순간 옥이는 뭐라 말할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다.

《자, 들어봐요. 누님! 〈발파조 앞. 끝까지 기운을 잃지 말것. 동무들을 구원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 대대는 동무들의 노래를 특별종목으로 정함. 곡목을 선정하고 연습할것. 출연복은 지

상에서 준비하겠음, 〈안변〉, 들었지요? 누님.》

아, 《싱검둥이》, 그 동문 역시 《싱검둥이》야.

저렇게 뻗은 배관을 통해 찌렁찌렁 목소리를 울려주었으면 더 좋았을걸 굳이 명령서로 내려보낼건 뭐람. 정말 갈데없는 《싱검둥이》라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노래곡목을? 연습까지? 출연복은 지상에서? 그러니 우린 썬클경연전에 구원된단 말이구나. 철삼동무! 동문 《싱검둥이》가 옳지요?

옥이는 끓어오르는 생의 희열속에서 철삼에 대한 신뢰와 긍정의 감정이 더욱 커지는것을 똑똑히 체험하였다. 밖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채 정숙하였다.

시공참모가 산출해낸 14 평방에서 두사람이 심호흡할수 있는 산소소모 최대시간은 10 시간이라고 했던 그 제정된 시간은 한초한초 넘어서고있었다.

혹시 그사이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가.

동안을 두고 두드려대던 신호는 왜 다시 나지 않을가.

시공참모의 그 계산이 정확하다면 림철삼의 구제대책은 응당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조급하고 초조한 순간이 숨가쁘게 흘러갔다.

줄줄줄... 로두관동부근을 에돌아가게 썰놓은 도랑으로 눈석임물소리만이 소연했다.

《동무드-을!》

때를 같이하여 발파조의 목멘 부름소리가 배관을 통해 울려나왔다.

《아!》

어깨성을 하고 배관주변을 둘러섰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외마디 탄성을 울리고 환호를 터치였다.

그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않고 서로 마주보며 걱정애 휩싸여있었다.

박형찬대대장은 두눈을 습벅이며 림철삼의 투실한 어깨를 어루만지다가 비로소 생각난듯이 물었다

《아까 뭐라고 써보냈냐?》

《안변》은 그저 히뭇이 웃기만 했다.

《림동무! 우리가 이제 이 굴도 다시 살리고 순회우승기도 쟁취할수 있을가.》

림철삼은 또 한번 히죽 웃어제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서 유묘한 대문이가 활짝 드러났다.

경 구 격 언

개성이란 작가의 주관적요소로서 새겨지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면에 나타나는 시인의 고유성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물현상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립장이며 력사적, 구체적태도이다.

· 예술에 있어서 진실성과 개성, 이것이 나의 구호이다.

작가는 자기에게 독창성이 있다는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오직 구체적인것만이 생동한것이다. 그 구체적인것은 오직 생활에서만 취해진다. 생활만이 유일한 원천이다.

비단무지개 피어나는 곳에서

문 동 식

대한날의 봄빛

숲이 무성하는 방직산아래
반토굴 방직공장
우리 수령님 몸소 찾아오시었네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
눈보라 울부짖던 정월도 대한날에

일년사계절 좋은 날도 많건만
어찌하여 그날에 오셔야만 했던가
이불도 옷가지도 다 불타버려
엄동설한에도 홀옷을 입고사는 우리 인민에게
훈훈한 새 솜옷 어서 입혀주시려

잘각잘각 새어나는
그 작은 직포기소리를 기쁘게 들으시며
비좁은 쪽문 열고 들어서신 수령님
그이는 그날 그 직포기소리를
마치도 봄우뢰소리처럼
그렇게 환희롭게 여기시지 않았던가

한자두자 흐르고흐르는
새천을 쥐시고 불에도 대어보여
마치 따뜻한 봄빛을 먼저 안아보시는듯
그 봄빛으로 인민들의 언문을 녹여주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던 수령님

장하다고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직포기들을 지키며 천을 짚다고
이제는 여기에

새 비단공장을 빨리 일떠세우자시던
그날의 그이의 음성 귀전에 금시 들려오는듯

아 그날
우리 수령님 새겨가신 그 자욱우에
거창하게 솟아오른 방직기지
오늘은 여기서 갖가지 비단천이
사시절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거니

내 무슨 말로 노래할수 있으랴
 시내가에 버들개지 움트는
그 봄은 아직 멀리에 있었건만
인민들의 언문을 녹여줄 그 봄을
대한날의 이 땅우에 안아올리시던
우리 수령님의 불같은 그 진정을

그날
방직산의 나무아지들은
설한풍속에 떨며 흐느꼈어도
홀옷을 입고사는 인민들의 마음속엔
후더운 봄빛이 줄줄이 흘러들어
얼굴마다 웃음꽃이 봄꽃처럼 피었거니

흐르고있어라
전후의 그날 대한날에 오시여
이 나라 인민에게 파사로운 봄빛을
포근한 옷감으로 안겨주신 아버지 그 사랑
아 오늘도 이 땅우에 흐르고있어라
영원한 은혜의 봄빛이 되여

비단 《새》

빨간 머리수건 팔랑거리며
정방기사이를 오가는 처녀
실꾸리마다에서 풀리는 비단실에
꿈을 싣고 정을 싣고 달리는 너는
비단바다의 봄제비같구나

달려가다 끊어진 실이 보이면
어느새 이어놓고 앞으로 포르릉-
날아가다 실토리가 다 풀리면
번개같이 새것을 갈아놓고 포르릉-

선군태양 해빛이 파사로운 이 강산에
비단무지개만 피워가리라
그 마음 천만오리 비단실과 속삭이며
뛰고 달리는 너는야 정말이지
찬란한 미래로 날아가는 비단 《새》
하루를 날아도 백날을 날아도
너의 보금자리는 그리움의 푸른 하늘
아버지장군님만 부르며 달리는
너를 따라 물결치는 비단실 오리오리
전성기가 열리는 선군락원에

흘러가 황홀한 무지개로 피어나리

그렇지

치너는 정방공치너는

비단실 천만오리 손에 쥐고서

더 복된 앞날을 불러오는 《새》

애국의 정이 어린 불빛같은 비단실로

이 땅우에 웃음꽃만 피워가는 《새》

아 치너는 이어가네 정방공치너는

오리오리 실오리 해빛처럼 손에 쥐고

시간과 시간을 웃음으로 이어가네

이 땅의 날과 날을 행복으로 이어가네

장군님의 선군세월 비단우에 수놓아가네

직포공 순희가 부르는 노래

방선에서 날아온 오빠의 편지
소중히 품고 직포기앞에 서니
밤하늘 둥근달도 창가에 내려앉아
유정한 달빛을 뿌려주어요

장군님 모시고 사진찍은 영광도
글쭉에 담아 편지로 보내주고
명사수의 꽃송이 가슴에 단 날에도
그 영예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고...

걸음걸음 마음속에 장군님만 그리며
날과 날을 위훈으로 빛내가는 오빠
오빠의 초소길 함께 걷는 마음으로
이밤 내 짜는 이 천은 《선군단》
필필이 《선군단》은 사회주의 《승리단》

고지의 이름없는 바위와 풀잎에도
훈련의 더운 땀 뿌려가는 오빠처럼
나도 이밤 구슬땀 바쳐가니
내 가슴우에도 이제 피어날거예요
영예의 꽃송이 붉은 꽃송이

조국의 방선엔 일당백의 꽃
후방의 일터에는 혁신의 붉은 꽃
그 꽃으로 하여 내 나라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새 생활의 꽃바다가
더 만발하게 피어날가요

복된 앞날만을 눈앞에 그리며
일손에 불꽃을 날려갈수록
더 고운 옷감을 더 많이 짜라고
나에게 뜨겁게 속삭여주는 오빠

병사의 그 당부 오리오리 실에 담아
이밤 내 짜는 이 천은 《행복단》
선군락원 꽃피우신 장군님사랑속에
우리 인민 누구나 누려갈 《만복단》

이 비단물결이 은하수처럼
천리 먼 방선에 흘러가닿기를
그러면 오빠는 그 비단길로
나에게 더 큰 혁신의 날개가 되라고
더 기쁜 새 소식을 날려보낼테지요

아 그날을 그려보며
나는 이밤 기대에 날라람 일으켜가요
우리 장군님 참으로 기뻐하시게
근위병사 오빠와 함께
더 큰 위훈을 떨치고싶어
치너시절을 별처럼 빛내고싶어

사랑의 력사가 흐른다

그리운 장군님 언제면 오실까
안타까이 기다리던 날염공치너들
그 마음 비단필에 꽃으로 새기며
오시는 그 길에 퍼드리고싶었던만

우리 장군님 찾아오시었네

봄도 여름도 아닌 한겨울 땀뻘 날에
눈길 헤쳐 먼길 오신 위대한 장군님
날염공들 일터에 들어서시었네
오시다니

이날 제날 좋은 날에 오시지 않으시고
이 춥고 궂은 날에 여기에 오시다니

눈굽을 씻으며 다가서는 처녀들
머리깊이 숙이고 어깨를 떠는데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 장군님
이렇게 다정하게 이르시었네

대한날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한품에 안으신 우리 인민모두를
봄꽃처럼 피우시고 가꾸어주시건만

오히려 여기 날염공처녀들을
봄꽃을 가꾸는 원예사들이라고
믿음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그 사랑
오늘도 끝없이 흘러가는 비단필우에
천만떨기 꽃송이로 피어나고있거니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내 가슴 불처럼 뜨거워지는구나
우리 수령님의 은정 비단이 되고
우리 장군님의 사랑
천만송이 꽃으로 끝없이 피어나는
이런 봄 이런 화원 이런 락원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으랴

동무들은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이 추운 겨울철에도
인민의 봄을 가꾸는 원예사들이라고

선군령장의 그 품에 뿌리내려서
광풍이 불어쳐도 활짝 피는 꽃송이
격랑이 밀려와도 만발하는 꽃송이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황홀하게 피어나는 이 꽃의 절경은
이 땅에 안겨살며 행복만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니

그래서
내 만져보고 쓸어보며 걸음 못 떼는
꽃비단 꽃물결 꽃의 바다여
아, 이 비단필의 무지개대하는
이 땅우에 춤추며 흘러가고있구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이민위천》 사랑의 역사를 전하며
세월의 끝까지 굽이치고있구나

-구성방직공장에서-

원 예 사 들 (외 1편)

김휘조

파원과 공원에만 원예사가 있더냐
기계소리 정다운 범랑철기공장
한쪽에선 로속에 불이 이글대는데
한쪽에선 로동자들 앞치마 두르고
그릇그릇에 꽃을 수놓네

녀인들이 늘쌍 꽃에 살라고
부엌에서도 늘쌍 꽃에 살라고
피우는 송이송이 온갖 꽃 송이송이
꽃을 피우네 집집마다에
우리의 로동자들
생활의 원예사들이

겨 울 향 기

창밖엔 평평 흰눈이 내리는데
분홍빛 세면비누, 눈같은 크림이랑
자동선엔 흐르는 향기
녀인들 일손 바쁜
화장품공장 일터에 흐르는 향기

꽃향기 찾아 벌나비 날아에는
그 철이 벌써 여기에 왔나

이 겨울에 벌써 꽃철이 왔나

묻지 마오
인민들에게 향기만을 안겨줄 마음
그 마음 언제나 뜨거우니
꽃 안피는 겨울에도 향기라오
그윽한 향기

성 구, 속담

- 게으른 너편네 아이 핑게 하듯
-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
- 봄에 깎 병아리 가을에 가서(와서) 세여본다
- 술있이 새파라니까 여름철만 여긴다
- 해가 대낮이라도 태평 오백년
- 압록강이 팔죽이라도 굶어죽겠다
- 먼산우의 바위보듯

- 사돈네 싼떡 보듯
- 경주돌이면 다 옥돌인가
-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 주러 와도 미운 놈 있고 받으러 와도 고운 사람 있다

평론

새 싹

- 서사시 《만년성벽》을 두고 -

리주정

1. 새싹을 움트운 씨앗에 대한 철학적탐구

주체 95(2006)년 제 10 차 《조선문학》축전상을 받은 서사시 《만년성벽》(《조선문학》잡지 주체 95년 1호, 2호 최윤철 작)은 시문단에 청신하게 움터난 새싹이다. 종자도 새롭고 구성도 새롭고 언어형상도 이채롭다. 특히 종자가 시대의 주도적감정의 높이에서 독창적으로 탐구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문학작품의 종자는 형상의 모든 요소에 체현된다.

소재에도 주제에도 사상에도 그리고 성격과 이야기줄거리에도 ...

서사시의 종자는 제목에서부터 의미심장하게 제시된다.

《만년성벽》.

시의 제목치고는 딱딱한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채롭고 예상이 온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

그러면 무엇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이며 그것은 누가 어디에 쌓는가?
머리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한다.

...

무심히 보지 마시라
거인인양 솟아오른 저 제방을
교대를 모르는 보초병마냥
수백정보 새땅을 지켜섰다!

무심히 걷지 마시라
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영원한 조국의 재부를 성벽처럼 세웠나니
그렇다! 저 광포제방은
사회주의를
지켜싸운 청춘의 배짱
지켜 이긴 청춘의 노래
변함없을 청춘의 사랑

서사시의 1장~7장에서도 광포청년제방이 어떻게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으로 솟아올랐는가에 대하여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면 《만년성벽》의 창조자는 청년들인가?
마감시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뚜렷이 주고있다.

...

이 위대한 세계를 창조하신분은
그이는 다름아닌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그래서 성벽의 이름은 일심단결!
성벽의 표대는 강성대국I
위대한 성벽은 노래한다!
영웅적청년들은 웨친다!
《사회주의만년성벽을 쌓아주신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성돌처럼 굳세게
성벽처럼 튼튼히
지키리라!
받들리라!
천년토록
만년토록
무궁토록!》

시에서 노래된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를 받들어 우리 청년들이 쌓아가고있는 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경애하는 그이만을 닮고 일떠세운 일심단결의 결정체이다!

결국 서사시의 제목에서부터 마감시까지 일관하게 흐르는 사상감정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은 일심단결이고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쌓아올리시었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서사시의 종자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쌓으신 일심단결》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종자발견에 서사시 《만년성벽》이라는 새싹, 독특한 형상이 창조될수 있는 비결이 있으며 시인의 고심어린 탐구와 시적환상의 나래가 있다. 시인은 광포라는 대자연호수를 옥토벌로 전변시킨 제방, 그 옥토벌을 지켜선 제방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지켜선 성벽으로 감수하였다. 제방을 어떻게 성벽으로 감수하였는가? 흙과 돌로 길게 쌓아올린 형태의 류사성이 불러온 련상인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제방이 지켜선 옥토벌은 사생결단으로 지켜야 할 사회주의인 쌀을 생산하기때문이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옥토벌을 지키는 제방이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지키는 성벽이라 해야 한다!

여기서 시인의 사색은 한결음 더 깊어졌다.

제방은 청년들이 쌓았는데 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으시었다고 할수 있는가?

제방은 청년들이 쌓아올렸지만 그것을 쌓은 그들의 정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적인정신이다.

그래서 결국 제방을 쌓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다!

정녕 그렇다. 똑이 터졌을 때에는 동요의 마음속에 신념의 억척같은 바위를 엮어주시고 다시 쌓은 제방이 위협에 처했을 때에는 병사들을 보내시여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지켜내도록 하시였으며 완공된 다음에는 몸소 찾아오시여 청년들을 높이 치하하시고 옥토벌을 갈아엎을 트랙토르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렇게 이어가신 선군혁명령도의 자욱마다에 솟아오른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대흥단감자밭... 그것이 어찌 단순한 창조물이라.

시인의 사색은 또 한결음 깊어진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는 요새, 성벽들이다. 왜냐면 바로 그런 창조물들이 일떠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는 윈쑈들의 고립압살을 물리치고 날을 따라 강성부흥하고있으니 어찌 그것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성벽이라 하지 않으랴!

그러면 만년성벽은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저 성벽이 아니고 만년성벽인가?

그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시인의 억척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고 열렬한 공감이다.

그러니 결국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마다에 솟아오른 그 모든 창조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들이 쌓아올린 만년성벽인것이다.

여기서 시인의 사색은 또다시 한결음 내짚었다.

그 만년성벽은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닮은 우리청년들, 경애하는 그이와 사상도 감정도 하나인 우리 청년들의 일심단결의 응결물이고 그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시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세우시는 위대한 창조물들은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안아올린 만년성벽이다.

여기서 시인의 사색은 환희에 휩싸인다.

청춘들이 쌓아가는 선군조선의 모든 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으시는 일심단결의 만년성벽이다!

이처럼 시인은 심오한 사색의 걸음걸음으로 서사시의 사상적알맹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쌓으신 일심단결》을 탐구하였다.

서사시 《만년성벽》이 보여주는것처럼 새로운 형상이 태어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어지는 시인의 심오한 사색과 그에 기초한 드높은 열정과 환상의 나래가 펼쳐져야 한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2. 새싹의 줄거리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해당 종자에 맞는 구성 형식은 하나뿐이라고 밝혀주고있다.

서사시 《만년성벽》은 작품종자의 요구에 맞게 일심단결의 만년성벽을 이루고있는 성돌-인간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개성적성격을 탐구하여 그 성격들의 호상관계와 충돌의 역사가 이야기줄거리를 이루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최심철, 리명주. 창호가 기본인물로 등장한다. 심철은 병사시절에 중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제대군인이다. 명주도 보람찬 병사생활을 체험한 제대군인처녀이다. 창호는 중학교를 졸업한 길로 곧장 공사장에 달려온 책상물림의 애어린 청년이다.

그밖에 중대장 한병수, 정치지도원 심봉혁, 돌격대장 김수렬, 참모장 리지명, 마을할머니 김성녀 등이 나온다.

이 인물들중에서 성격발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은 창호뿐이다. 도망군 창호로부터 영

웅적인간으로 성장하는 그의 성격발전을 통하여 그를 따듯이 품어주고 이끌어준 혁명적동지애의 소유자들이 심철과 명주의 성격의 본질을 보여준다.

폭풍에 흩어지는 모래알같은 돌격대원들중의 한 사람이었던 창호, 명주를 돕는다는것이 그만에야 식당에 불을 놓고 그것때문에 고민하다가 민호의 부추김으로 끝내는 대오에서 리탈하였으나 량심의 가책으로 다시 돌아온다. 자기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준 심철이며 명주를 저버릴 수 없는것이다.

심철이와 명주의 친근하고 따뜻한 정! 창호가 찾아가려던 부모의 품보다 더 끌어당기며 량심의 등불을 마음속에 지켜주는 동지적사랑!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에게 안겨주신 해빛같은 사랑, 선군동지의 불같은 사랑이 심철이와 명주를 거쳐 창호에게 잇닿은것이였다.

대오에 다시 선 창호는 심철이와 명주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일심단결성벽의 성돌로 다듬어진다. 하여 창호는 태풍으로 제방이 위협에 처했을 때 심철이의 뒤를 따라 흠마대를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다. 한몸 그대로 성돌이 된것이다.

창호의 성격발전과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배짱과 담력,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닮은 심장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치는 과정, 하나하나의 억년 드물지 않을 성돌이 되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을 이루는 성장의 력사라는것을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7개의 장과 머리로, 마감시로 나누어 노래하고있다.

여기서 새롭게 시도한 구성방법은 공사가 끝난 후 시인이 취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매 장의 첫 머리에 돌격대의 각이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해당 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게 되는가를 먼저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것이다.

제 1 장

중대장 : 한병수

《제일 잇을수 없는것은

제방이 터지던 날이였습니다!》

제 2 장

돌격대원 : 리명주

...

제 3 장

돌격대원 : 최심철

제 7 장

참모장 : 리지명

《 ...

우리는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수법을 활용함으로써 《회상이야기묶음식》이라는 서사시구성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하였다.

서사시구성에서 《회상이야기묶음식》의 탐구는 작품의 구성을 간결명료하게 하고 예술적흥미를 돋구는데 이바지할뿐아니라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적으나마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예술의 발전은 내용의 발전과 함께 형식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문학예술형식의 발전은 내용발전에 비해 매우 점진적이다. 시문학의 기본형태의 하나인 서사시만 놓고보아도 개척된지 수천년의 력사를 헤아리지만 오늘도 그 기본형식이 서사성과 서정성의 조화로운 통일이라는 미학적원칙에 기초하는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사시 《만년성벽》에서 새로운 서사시형식을 개척하였다는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성에서 자기식의 독특한 수법을 탐구함으로써 서사시구성방식의 새로운 싹을 보여주었다는것이다.

3. 새싹의 푸른 잎새-이채로운 언어탐구

문학은 어디까지나 언어의 예술이다. 종자가 특색있고 구성이 독특하다 해도 언어형상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면 형상은 새롭게 안겨오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다양한 언어형상수법들을 원만히 활용함으로써 종자가 《새싹》으로 움터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대구법으로 첫머리를 떼고있다.

작은것에서 큰것을

보아야함은

평범한것에서 위대한것을

찾아야함은

이 표현은 광포제방이라는 자그마한 대상을 통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년성벽을 노래하려는 시인의 사상미학적의도가 제시된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

서사시의 언어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토의 생략과 명명문의 활용이다. 하여 문장이 간결하고 탄력이 있다. 이것은 태풍과 싸우는 긴박한 정황을 중심이야기로 하는 시의 내용과 청춘들의 불같은 열정을 노래한 시의 양상에 맞는 적격의 언어형상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는 시인이 탐구한 특색있는 표현들도 있다.

...
말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지울수 없는 글줄을 남기나니
...

...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잘수 있어도
비판한 사람은 잠들수 없거늘

비판에 대한 생활철학이 담겨진 이런 표현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려는 청년돌격대원
들의 순결한 마음을 그려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서사시 《만년성벽》에 대한 소견을 마치면서

수필

군민의 혈연적관계를 놓고

김상근

올해 공동사설에는 세상에 없는 우리의 군민대
단결을 활통같이 다져야 한다, 인민은 원군을 하
고 군대는 원민을 하며 군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
기풍의 일치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공동사설의 구절들을 새겨갈수록 군민대단결이
라는 새로운 표현의 의미가 깊은 뜻으로 안겨오
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쳐가시는
오늘의 선군시대에서만 나올수 있는 새로운 시대
어 인것이다

군의 부문에서 한생을 살아온 나에게는 더욱
이 군민대단결의 필요성, 그 생명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절감하였다.

지난 시기에도 군민일치란 말을 우리들의 생활
에서는 많이 써왔고 실천에 옮겨왔다. 그러나 선
군시대인 오늘처럼 혁명적요구로 절박히 나선적
은 없었다.

하기에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군민대단결이라는
높은 단계를 제시하였으니 그 폭과 깊이, 생명력
과 위력은 얼마나 큰것인가.

머칠전 나는 어느 한 병원을 찾은적이 있는데
그때 간호원을 하는 조카를 만났다.

그런데 기분이 낮아져 잔뜩 불이 부어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뾰족한 입에서 응석이 쏟아
져나왔다.

급히 모이라는 바람에 분공된 담가를 안가지고

아쉽게 생각되는것은 운률조성의 수법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것이다.

운률은 한행에서 조성하는것이 기본이다. 두행
이나 세행, 그 이상에서 운률을 조성하자면 대조
나 대구, 점층, 열거, 부름, 수사학적물음, 어순전
도, 반복법 등과 같은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
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운률조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예술적감흥
이 달라진다. 대사를 시화하지 않은것이 시의 정
서적 흐름에 굴곡을 주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
으나 생각컨대 대사까지도 운률을 잘 조성해야
시의 정서적흐름이 더 원만해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전반형상에서 옥에 티라
고 할수 있다.

나갔는데 사람들앞에서 비판하더라는것,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제야 부상자들이 생기면 담가로
나르겠는가, 잠자리비행기쯤이라면 모르겠는데 ...

종알대는 조카를 바라보니 아직 설었구나 하는
생각, 전투하는걸 영화에서나 본 행동이니 어떻
게 알수 있으랴. 그 어떤 기계화수단도 갈수 없는
곳을 담가는 갈수 있다는것을.

생각이 깊어지니 자연히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목격했던 일, 들은 이야기들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조국해방전쟁은 싸우는 전선들마다에서
부상병들을 생기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가슴아프게 헤
아려보시고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하
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수 있도록 현명
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은 남너로소 할것없이 떨쳐나섰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인민군군인들을 따듯이 간
호하고 치료하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참
다운 도덕의리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결같이 떨
쳐나 섰던것이다.

인민들은 《전선담가대》를 조직하여 싸우는 고
지들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특히 《전선담가대》의 조직은 그 어느 나라 전
쟁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구호대

였다.

《전선담가대》는 군의와 간호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담가를 가지고 전투현장에까지 달려가 부상병들을 구원하였다.

담가대에는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담가대들이 있었는데 포연탄우속을 뚫고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임무뿐아니라 그들의 치료와 휴식,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려졌다.

금강군의 한 소녀는 담가대에 참가하여 매일 200여리를 오고가면서 부상병간호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그는 언제나 엇과 더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상병들의 원기를 돋구어주었으며 담가채가 부러졌을 때에는 서슴없이 자기의 치마를 찢어매군 하였다. 금야군(당시)의 18살되는 두 민청원처녀는 부상병을 후송하던 중 강얼음판우에서 적기의 공습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들은 얼음판이 깨어져 물속에 빠지게 되었으나 굴함없이 부상자들을 구원하였고 담가끈이 끊어지자 고이탐스럽게 기르던 머리채를 서슴없이 잘라 담가끈을 이었고 목적지 까지 후송하였다. 적기의 기관총사격에서 부상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으로 막고 희생된 로인이며 병원에서 치료에 쓰일 약을 가져오던 중 적함포사격에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약배낭을 꼭 그러안고 숨진 이 나라 녀인들, 강원도 고성군인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부상병들에게 수혈해주었고 길옆에 부상병접대소까지 설치하고 그들의 침식을 보장하고 옷과 붕대를 빨아주었던가.

예술소조를 무어가지고 위문공연을 와서 부르던 노래소리 아직도 병동창가를 흔드는듯싶다.

평원군의 녀성들은 1951년 여름기간만 해도 900여회에 걸쳐 위문공연을 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산천은 변하여 옛 싸움터엔 행복의 락원이 솟아났다. 적기의 공습으로부터 부상병을 구원하려고 담가를 몸으로 덮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자리에 꽃은 만발하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귄다.

부러진 담가채를 검은 머리태를 잘라 동여뒀던 그날의 애젊은 처녀들의 머리우에 오늘은 백발이 날린다. 그러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군민의 넘쳐나는 혈육의 정인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군대와 인민은 친혈육, 한식술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미풍은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군 군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전통적인 원민기풍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붙는 집으로 한목숨 내대고 뛰어드는 병사들의 심정을 들어보아도, 아이들의 학교길을 위해 살얼음진 강물에 뛰어들어 다리를 놓는 병사들의 그옥한 눈동자를 보아도,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자고 떨쳐나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해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인민은 얼마나 훌륭한 아들딸들을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군민대단결은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 그 위력은 세상에 떨쳐질것이다.

내 말을 들으며 조카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생각 깊이 바라보았다.

조국이 부를 때면 그 어떤 불비속도 서슴없이 달려갈 결의, 담가에 군민의 큰 정을 담아싣고 억세게 달려갈 맹세가 얼굴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막을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향로 (외 1 편)

리성철

에서 다시 만났구나
어제는 평양에서 오늘은 금강산에서
온 민족의 념원안고
우리 다시 모였구나
백두의 해돋이로
통일문학의 첫 새벽을 열었던 우리
6. 15의 열풍으로 민족문학의 큰 뜻을
여기 금강산에서 펼치였구나

우리 여기까지 이르기엔
얼마나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었던가
갈라진 강토 헤어진 겨레가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
가슴친 일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던 우리가
오늘은 서로서로 열싸안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합쳤거니

통일을 향해 뚫목을 더 높이 올렸거니

산천도 축복하는가
금강산은 만이천봉우리마다
빨간 단풍을 피워 우릴 반기고
하늘도 구름 한점 없는 맑은 얼굴로
환히 웃고있어라

허나 우리 갈 길은 멀고도 험해라
그 길엔 순풍만이 있지 않으리
때로는 사나운 풍랑을
헤쳐야 할 때도 있으리
하지만 우리는
주저없이 맞받아 나아가리라

분렬세력들이 그 아무리
광풍을 몰아온다 해도
너와 나
북과 남의 문학인들이 추켜올린
통일문학의 그 뜻을

우리는 한치도 내리우지 않으리

이 항로에서
한걸음이라도 물러선다면
어찌 뗏목이 말할수 있으랴
민족앞에 력사앞에
정의와 량심을 지켜선 민족의 작가라고
아, 우리의 항로우에
태양이 빛난다
더 높이 돛을 올려라
통일의 뜨거운 열풍이 몰아친다
뚫목은 부풀고
희망찬 우리의 마음도 커진다

어서 가자
환희로운 통일축포가
삼천리 온 강토에 터져오를 그날 위해
6.15의 항로 따라
우리 더 빨리
더 힘차게 내달리자!

우리 만나자

이 얼마나
환희에 넘친 상봉이나
금강산에서 다시 만난
북과 남의 우리 작가들
만나자 서로 마음이 하나되어
통일문학의 큰결음을 떼었구나

너도 한결음
나도 한결음
통일의 선봉에 서자고
저저마다 가슴터치며 열변을 토하누나
심장을 뚫이며 즉흥시도 읊어
하늘땅을 울리누나

우리 다진 오늘의 이 언약은
갈라진 민족앞에 엄숙히 다지는 통일서약
어찌 순간인들 소홀히 할수 있으랴
겨레의 피타는 숙망이
우리의 붓대에 무겁게 실려있거늘

사색을 해도 통일
글 한편을 써도 통일
통일을 불러 붓을 달리고 달리며
긴긴밤을 새우고 또 새워야 하리

밤이면
통일을 그려 잠 못드는 그런 밤이면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모습이 떠오른다

저 남녘땅 어느 하늘아래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며 잠 못드실
아, 백발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가슴엔 눈물 아닌 피가 흐른다

어찌 나의 아버지만이라
이 땅 삼천리엔
분렬의 고통안고 몸부림치는
수천수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거늘

이제 더 미루다가는
년로한 부모님들을
영영 만나뵙지 못하리니
헤어진 형제, 친척들이
얼굴조차 알아보수 없어
영영 남남이 되고말것이니

시대의 선도자들인 작가들이여

너와 나 틀어진 이 붓으로
우리들의 피끓는 이 가슴으로
정녕 분렬의 이 비극을
끝장내지 못한단 말이나

우리 만나자
해마다 만나고 또 만나자
하지만 절대로
결실없이 빈손엔 만나지 말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라의 통일을 위해

큰일을 한 자랑안고
뜻깊게 만나자 떳떳하게 만나자

아, 그렇듯
뜻깊은 상봉들이 모이고모이면
이 땅우엔 오리라
온 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그날이
온 민족이 얼싸안고
울고웃으며 환호성을 터칠
통일의 그날이!

- 금강산에서 -

언 약

김철

우리는 금방 다짐하였다
6.15가 쥐여준 그 붓으로
한편의 글을 써도 한목소리로 쓰자고

우리는 금방 박수로 채택했다
6.15가 쥐여준 그 붓으로
한편의 글을 써도 한마음으로 쓰자고

아,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인가
단풍이 불타는 여기 금강산에서
우리 서로 터친 박수소리는
과연 얼마나 큰 우리의 통일약속인가

그 약속은 빈말이 아니다
그 약속을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도 지켜보았다
7천만겨레가 새겨들었다

이제 헤어지는 우리들의 어깨우에
상식

떠메고가야 할
통일의 집은 참으로 무겁다

허나 그 어떤 찬바람에도
바꾸지 아니할
통일의 붓대를 든
우리들의 성실한 언약만은
피로 새겨안고 가자

분렬의 패말을 뽑아버리고
목청껏 통일만세를 부르는 그날
여기 금강산에서
우리 서로 얼싸안자
그리고 오늘의 언약을 웃으며 추억하자

아 어머니조국에
통일의 노래를 불러드리자

- 금강산에서 -

《고전》이란 말의 어원

《고전》이란 어원적으로는 라틴어의 《클라씨크스》에서 온 말이다. 원래는 고대로마에서 상류계급을 《클라씨크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점차형용사적으로 쓰이면서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작가와 작품을 가리키는 말로 되었다.

유럽사람들은오래전부터 고대그리스와 로마의작가와 작품들을 명실공히 고전으로 여겨왔다.

그들은 그 이후의 문예부흥기 이탈리아예술도 고대예술과 대비하면서 《제3의 고전》이라고

불렀으며 또 오랜 대작가를 《클라씨크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전 즉 《클라씨크스》라는 말이 많이는 《고대》라는 뜻과 련결되어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고대작가와 작품이 가지고있는 권위와 관련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오늘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고 특출한 권위있는 작품을 《고전적》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평범한 날에

변영욱

1

추억은 아름다와야 한다.

지금껏 윤정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추억들 역시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면서도 아름답고 정다우면서도 야릇하게 가슴을 적셔주는 그런 감미로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상한 모양새들을 하고 마음속에 짙은 그늘을 던지며 장마철의 비구름처럼 마구 밀려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침일찍 정류소에 나간 윤정은 빠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초조감이 뒤섞인 눈길로 온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 동무가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 아닐거야. 그런 건 아닐거야. 그럼 무슨 병이...)

윤정은 지못게 갈마드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리려고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저 앞 가을빛이 짙어가는 경운산이 한 눈에 안겨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선군정》이 폭포수를 굽어보며 울긋불긋 단풍이 타는 산중턱에 보란듯이 서있어 한층 더 운치를 돋구는 경운산이었다. 사랑살랑 골짜기를 따라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열매익는 달크무레한 향기가 취하듯 물씬물씬 풍겨온다.

어느때 같으면 청신한 아침대기를 한껏 호흡하며 코노래라도 흥얼거렸을 윤정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경향이 없었다.

(청남동문 정말 어찌된 일인가...)

윤정은 호-하고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돌렸다. 이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옷을 점잖게 차려입은듯 한 민속거리의 특색있는 려관과 력사박물관, 맑은 물 출렁이는 호수가에 뜻있게 형상한 조선범과 코끼리, 황소와 거북선 조각들 그리고 국수집을 비롯한 여러 봉사망들이 바라보였다.

《도시를 정말 잘 꾸렸소. 신신들이 사는 세계 같구만. 모든 것이 부족한 때에... 대단해!》

지난해 휴가왔던 소꿉시절동무 문청남은 《선군정》에 올라 민속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그때 일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때 청남과 윤정은 얼마나 흐뭇한 마음 안고서 민속거리를 내려다보았는가.

《윤정 동무도 이 거리건설에 참가하였는지? 윤정 동무네가 지은 건물은 어느 것이요?》

청남은 속삭이듯 물었다.

윤정은 가슴뿌듯해서 손들어 가리켰었다.

《저 민속식당이예요. 저 집은 순전히 우리 녀성들의 힘으로 지었어요.》

《그렇소? 그거 대단하구만. 건축미도 독특하고... 저 식당건물은 마치 우리 녀성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 우리 녀성들이 마음먹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 같소.》

윤정은 약간 들뜬듯 한 그 소리에 생긋이 웃었다.

정말이지 얼마나 보람찼던 나날이었는가.

바위를 까느라 손에 물집이 생기고 입술이 부러터 밥술을 입에 넣기 힘든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까낸 암반우에 저런 합각지붕을 한 건물들이 우뚝우뚝 일어설 때는 힘든만큼 보람도 컸었다.

청남은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윤정 동무, 정말 수고했소.》

윤정은 수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아이, 수고야 뭐 ... 다들 함께 일했는데...》

청남은 여전히 감동어린 어조로 말했다.

《얼마나 큰 일을 해놓았소. 아마도 이 민속거리를 찾는 사람들치고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게요. 우리 병사들은 자기가 지켜선 조국이 나날이 변모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단 말이요.》

윤정은 정겨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몸이 우람하고 척 보기에도 대들인 이 동무의 어디에 이런 섬세한 감정이 깃들어있을가.

참으로 열정적인 동무였다.

바로 그날 청남은 은정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 사랑은 곧 약혼식으로 이어지고...

그날 밤 윤정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울렁이는 봉긋한 가슴우에 손을 조용히 얹고 창가로 다가갔다.

검푸른 하늘을 헤엄쳐가다가 구름속으로 잦아드는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느라니 처녀시절도 이제의 끝나고마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다. 돌이켜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시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자기가 민속거리청년돌격대원으로 일해온 지금까지 처녀시절이 눈깜박할새에 지나간듯싶었다. 달은 또다시 구름속을 빠져나왔다.

쟁반같이 둥근달이다. 윤정은 밤대기를 한껏 들이켰다.

가슴속 한구석에 스며들었던 그 아쉬움을 밀어

내며 이번엔 벅차고 억센것이 파도처럼 들어왔다. 그날부터 윤정은 보다 활력이 넘칠 미지의 세계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찰 래일의 아름다운 《꽃밭》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했다. 그 《꽃밭》에는 별의 별 《꽃》들이 다 있었다. 분팍처럼 알뜰하게 거둔 방, 맵시있는 가구들, 소박하면서도 정이 가득 담긴 음식상, ... 웃음, 노래, 화목, 행복, ...

윤정은 《원예사》라도 된 심정으로 그 《꽃밭》을 이렇게도 가꾸어보고 저렇게도 가꾸어보았다.

두 집 부모들도 이제 청남이가 휴가를 받고오면 결혼식을 하자고 약속했다. 야릇한 흥분과 은근한 기다림속에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그날을 앞두고 청남의 어머니는 전보지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다.

《우리 청남이가 휴가를 받았다는군요. 20일에 도착하겠더니 잔치를 어느날에 했으면 좋겠수?》

《글쎄요. 준비는 기본적으로 다 해놓았으니 9월 25일쯤 하면 어때요?》

윤정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의논하다가 청남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집에서는 결혼식준비로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청남이 고향에 도착하는 그날이 왔다. 윤정의 동무들이 꽃다발을 들고 웃고 떠들며 역으로 나왔다. 윤정은 자기도 나가고싶었지만 왜서인지 부끄러움만 하여 도서관일이 바쁘척 구실대고 떨어졌다. 하지만 역으로 나갔던 동무들이 저희들 끼리 들어오게 될줄이야. ...

첫날은 《군대이니까...》 하는것으로 위안을 했으나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나타나지 않자 집안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부대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긴게 아닐까? 혹시 부대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느라 좀 늦어진건 아닌지, ...

집사람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짙게 덮였다.

어머니가 청남의 집에 갔다 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통명스레 한마디 했다.

《야단은 무슨 야단이요. 무슨 사정이 생겼기에 그 사람이 못오겠지.》

《그럼 잔치는 어떻게 하구요?》

《사든덕과 의논해보구려. 》

옷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사이 오가는 말을 들던 윤정은 온몸에서 스르르 맥이 빠져나가는감을 느꼈다. 주저앉고싶었다. (아이참, 이 일을 어쩔줄담. 사람들앞에서 이런 망신을...)

결혼식날로 정한 25 일 아침 윤정이 직장으로 출근하려 마당에 나섰다. 바로 그때 아침청소 나갔던 녀동생 윤심이가 쿵쿵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어머니! 아버지! 아저씨한테서 전보가 왔어요.》

《전보? 어디, 어디 보자》

어머니가 설겂이하던 손을 앞치마로 닦으며 설레발을 쳤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치료준비 갖추고 온천 료양소로 올것. 휴가를 받아가지고 떠날것〉?》

동생의 여무진, 하면서도 불안이 섞인 목소리가 끝나기바쁘게 어머니의 눈이 금시에 커졌다.

《치료준비라니?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사달이 났단말인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윤정은 숨이 딱 멎는듯 했다. 사고라니? 그럼 그 동무가? 자기도 모르게 두손을 가슴우에 모아 쥐었다. 물려드는 불안을 단숨에 쪽 밀어내듯 아버지가 전보를 앗으며 툭 내쏘았다.

《사고나면 병원에 가지 료양소엘 가겠소?》

아버지의 말도 맞는것 같았다. 하지만 료양소엔 무엇때문에?... 동생을 통해 전보장을 받아든 윤정은 매 글자마다에서 무슨 다른 의미라도 찾아내려는듯 읽고 또 읽어보았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문득 그 글자들우로 하나의 환영이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는 산벼랑길 벼랑꼭대기에 맨 바줄을 타고 올라가는 전사들을 어깨너머로 올려주는 청남, 마지막으로 바줄을 타고 올라가던 그는 얼핏 우에서 떨어지는 한 전사를 발견하고 몸을 화살처럼 날려 전사를 그리안고 밑으로 떨어진다.

전사는 구원되었다. 눈물, 비물로 얼룩진 병사들속에 싸여 애써 웃음짓는 청남, ...

언젠가 집에 들렀던 부대군관이 감심해서 들려주던 이야기였다. 그때의 광경을 전보우에서 다시 상상해보던 윤정은 소스라쳤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땀이 쪽 흘렀다. 그러고보면 그때 그가 몸을 심하게 다치고 지금껏 상처를 숨기고있었게 분명했다. 어쩌면 ... 어쩌면 ... 나한테까지, ...

윤정의 마음은 벌써 온천으로 달리고있었다.

그래서 오늘 휴가를 받고 아침일찍 뺨스정류소로 나왔던것이다.

2

뺨스는 어김없이 제시간에 떠났다.

윤정은 뺨스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초조해진 윤정의 마음을 아는듯 뺨스는 쾌속으로 달렸다.

시내를 벗어나 단풍든 산굽이를 돌아서니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바람결에 늪실거리는 벼바다가 펼쳐졌다. 그것을 헤가르는듯 빨간 운동복을 입은 대여섯명의 아이들이 겨금대기로 달려가고있었다. 체육소조학생들이 훈련을 하는 모양이었다.

뺨스는 순간에 그들을 지나쳤다. 뺨스를 따라잡으려는듯 그들은 속도를 높이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밝게 웃으며 뺨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무심히 그들을 돌아보던 윤정의 눈앞에는 불쑥 흘러간 소학시절의 한토막이 떠올랐다.

소학교 4 학년때였다. 그날도 윤정은 겨울방학 아침달리기에 늦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제일 먼저 깨났었다. 그런데 감기가 왔는지 온몸이 오싹오

씩 하고 머리가 쭈시는듯 한 아픔으로 참아낼수가 없었다. 윤정이가 연방 채채기를 하자 밥을 짓던 어머니가 급히 들어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 열이 나는구나. 안되겠다. 어서 누워라.》

어머니는 큰일이나 난 것처럼 급히 일어서더니 약봉지를 꺼내온다, 고뿌에 물을 떠온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윤정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이불을 밀 어놓았다.

《난 나가야 해요. 이번 겨울방학 아침달리기는 의지를 검열하는 계기라고 했거던요.》

의지를 검열한다는 그 말은 겨울방학기간 경운지구 학습반을 책임진 청남의 말이였다. 방학이 시작되던 날 그는 동무들앞에서 《이 추운 겨울 날도 전호가에서 언땅에 가슴을 대고 초소를 지켜가는 인민군대형님들의 강직한 정신을 배우고 싶은 동무들은 나오고 그렇지 못한 동무들은 안나와도 된다.》고 그루를 박아 말했었던것이다. 어머니가 꺾쩍 뛰며 눈을 크게 떴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몸으로 어디엘 나간다고 그래.》

《그래도 나가야 해요.》

《안돼.》

어머니는 이불을 씌워주었다. 윤정은 다시 이불을 벗겼다. 어머니와 나가야 한다니, 못 나간다니 하며 한참이나 싱갱이질을 했다. 나중엔 어머니가 성까지 냈다.

《너 무슨 재구를 치자고 그러느냐? 열이 이렇게 나는데... 됐다. 내 청남이에게 말해주겠다. 그애가 반장이라지?》

《됐어요, 어머니, ...》

윤정은 완강히 도리머리를 했다.

그는 어머니가 주는 알약을 먹자마자 늦은줄 알면서도 모임장소인 학교마당으로 냅다 뛰어갔다.

이미 달리기는 끝나고 총화를 하려는 때였다.

청남은 서둘러 대렬에 들어서는 윤정을 띄여보고 통명스레 내쏘았다.

《동문 뛰야. 그쪽은 달리기를 한 동무들만 서는데야.》

윤정은 얼굴이 화끈했다. 부끄러웠다. 그는 청남을 힐끔 치며보았다.

《그럼 어찌라는거야? 어디에 서라는거야?》

《그걸 몰라서 나한테 물어?》

윤정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았다. 잡자기 코안이 가렵더니 채채기가 튀어나왔다.

한번, 두번, 세번,...

동무들의 의아한 눈길들이 윤정에게로 쏠렸다.

그 눈길들은 다시 청남에게로 이어지며 감기에 걸린것 같은데 오늘은 좀 용서해주자고 호소하는 눈빛이였다. 그러나 청남은 고개를 돌리고 먼산만 쳐다보았다. 윤정은 입술을 옥물며 핵 돌아섰다.

동무들이 황황히 《윤정아!》 하고 불렀지만 윤

정은 못들은척 정문을 빠져나와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어떤 동정도 바라고싶지 않았다.

일찍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혼자서 달리기를 하는 윤정을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곤 했다.

윤정은 두주먹을 부르친채 씨근거리며 달렸다.

꼭 다문 입에서는 가쁜 숨소리와 함께 원망의 목소리가 연방 튀어나왔다,

《곰발통, 미웁쟁이.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곰발통...》

앞뒤집에 살면서 늦어진 사연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니 우둔한 곰과 무엇이 다를가, 헉헉 숨이 차고 호흡이 불안해졌다. 다리맥이 없어져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래도 달렸다.

(내가 달리기를 하기 싫어서 늦게 나왔는가 하는가부지. 저만 잘난체 하면서, ... 그러구두 뭐 인민군대가 되겠다구? 흥...)

속에서 별의별 욕이 다 쏟아져나왔다. 성난김에 보리방아 다 찢는다고 그는 언제 달리기구간을 다 뛰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학교마당에 들어서니 동무들은 보이지 않았다. 본청사에서 나오던 청남이 우뚝 멈춰서며 물었다.

《아니, 너 정말 달렸니?》

《...》

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청남이 놀라운듯 큰 눈을 디룩거렸다.

《학교정문으로 나가기에 집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너 정말 감기걸린게 아니가?》

윤정은 입술을 옥물며 핵 되돌아섰다. 더 말하고싶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운 윤정은 고열이 나서 헛소리까지 치며 앓았다.

《그것 보라. 내 아침에 뭐라던. 엄마말을 듣지 않더니 ... 고집두 원...》

머리맡에서 떠날줄 모르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청남이가 인정사정도 없는 애라며 혀를 찼다. 청남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까지 노여움을 터치자 윤정은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 아침엔 사실 청남동무가 시킨게 아니예요.》, 《그럼?》, 《그저 내 혼자 뛰었지요 뭐. 아프다고 달리기를 번질수야 없지 않아요.》 이상했다.

방금까지만도 청남에 대한 고까운 감정에 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를 두둔하게 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의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덜통한 애라는 인식은 고드름처럼 마음 한구석에 늘 매달려있었다.

세월이 흘러 중학시절을 보내고 청남이 군대로 떠난 후 윤정은 자주 그의 편지를 받고 회답도 해주었다.

그 편지들에는 고향을 가꾸고 지켜가는 서로의 순결한 마음과 하나라도 배우고싶고 따르고싶은 생각이 질게 어려있었다.

군관학교를 졸업한 청남이가 구분대에 배치되

여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휴가를 받고 왔을 때였다.

중학교동창생들과 함께 저녁에 집에 찾아가니 그는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들어오라구. 정말 오래만에 이렇게들 왔구만. ... 청남이는 구분대전사들의 집에 몇군데 들려본다면서 나갔네.》

《하긴 청남동무야 집에 가만있는 성미가 아니지.》

학교때 익살군으로 소문난 리동무가 썩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윤정은 새무룩이 웃었다.

(활동적인 성격은 여전하구나....)

윤정은 그의 성격이 드바쁜 군인생활로 하여 더 세차졌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만났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놀라운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날은 청남이 부대로 떠나는 전날 저녁이어서 동무들은 저마다 기념품들을 안고 찾아왔다.

익살군 리동무가 기념품들인 새로 나온 소설책들과 학습장, 필기도구, 생활필수품들을 넣어주려고 배낭을 열다가 눈을 흘겼다.

한것은 배낭에 소묘수첩이 있는것이였다. 그는 소묘지를 한장한장 번지며 큰소리로 말했다.

《이야, 이 친구 그림과는 담을 쌓더니 어떻게 된 일이야... 여, 이거 동무가 그런 그림이 맞아요?》

동무들과 즐겁게 회포를 나누던 청남은 덴겁을 하며 얼른 손을 내밀었다.

《이리 내라구. 그건 사실... 말하자면... 나의 덜통한 성격적부족점을 고쳐보기 위해서 좀 끄적거리려본 하는거야. 볼게 못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볼게 아니야. 완전히 전문가수준인데 뭐.》

리동무가 이러며 고개를 흔들자 너도나도하며 소묘수첩을 돌려보았다.

번져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청남동무, 이제 완전히 방향전환하는게 아니야. 그 성미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게 믿어지지 않는구만.》

청남은 돌려가던 소묘수첩이 윤정의 손에 들어가자 얼굴을 붉히며 더수기를 굶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나야 꼼꼼한 성격이 못되지. 그 성미때문이라가 한번은 파오를 범했다네.》

동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윤정도 소묘수첩을 번지다가 놀란 눈길을 들었다.

청남은 그때를 생각하듯 한숨을 후- 하고 내쉬었다.

《내 부분대장을 할 때였네. 어느날 분대장은 청년동맹에 강습을 가고 내가 근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참 일두, 한 병사를 근무에 내보내면서 그가 앓는것도 가려보지 못했던 말일세. 근무교대를 시키고 돌아오는데 군관모임을 하고 나오던 소대장동지가 그 동무가 어디에 있는가 묻더군. 근무에 나갔다고 하니 놀라면서 그의 몸이 일없겠는가 하더라 말일세. 난 놀랐네. <그 동무가 앓습니까?>, 이렇게 되물기까지 했지. 어이가 없어서... 소대장은 의아해서 나를 보더니 고개를 기웃하더구만.

《몹시 편치 않아하던것 같던데...>. 난 그 동무 아파하는지도 모르는데 소대장은 <몹시...> 라는 말을 덧붙인단 말일세.

난 웃으며 말했네. 내 보기엔 박동무가 별다른 게 없어보였기때문이였네.

《일없습니다, 설사 아프다 한들 견디여낼겁니다. 군대가 아닙니까. 참고 이겨내는게...> 나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네. 소대장동지가 노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기때문이였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전사들은 웬만한것은 다 참고 이겨내고있소. 지휘관들이 걱정할가봐 말이요. 그런 전사들에게 더 눈을 밝혀보지 않으면...>

소대장동진 고개를 가로 흔들더니 나보고 당장 고지에 올라가보라고 하였소. 난 별치 않은걸 가지고 다 그런다고 생각하며 올라갔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겠소. 박동무가 아픔을 참고 근무를 서느라 진땀을 뻘뻘 흘리고있는게 아니겠소.

소대장동지가 나를 보고 근무를 서라고 하고는 박동무를 업고 군의소로 달려갔네. 알고보니 급성충수염이 아니겠소?... 조금만 더 시간을 지체시켰다면... 소름이 끼쳤소.

그날 소대장동지한테 비관을 되게 받았지.

그때부터 난 나의 성품을 결정적으로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세웠소. 말하자면 어머니가 제 자신의 얼굴빛을 보고도 순간에 아이의 고심과 병명을 알아내듯이 지휘관도 그런 사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생각끝에 섬세한 소묘를 해보기 시작했지.》

《그러니 이건 단순한 소묘련습이 아니라 덜통한 성미를 꼼꼼한 성미로 전환하는 교정훈련인셈이구만.》

청남은 씩씩히 웃었다.

《동무들은 어이가 없을거야. 그렇다고 타고난 성격이 달라질가 하고 말이야. 하지만 성격에 병자 할수 없었네. 나와 함께 있는 병사들이 우리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병사들이니 말일세.

말형구실, 지휘관구실을 하자니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네.》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병사들,...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면 이 소묘련습까지 하게 되었으랴.

윤정은 소묘지를 한장한장 번졌다. 거기에는 별의별 그림이 다 있었다.

손풍금을 타며 활짝 웃는 병사, 초급병사의 목 달개를 달아주는 사관장, 철봉에서 대차를 하는 구대원을 밑에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꼬마전사, 머리를 깎으며 엄살을 피우는듯 한쪽눈을 쫓긋하는 병사, 저절로 웃음이 나가는것들도 많았다. 그야말로 섬세한 필치였다. 윤정은 감동의 눈길로 청남을 쳐다보았다.

달리기를 하러 나갔을 때 먼산만 바라보며 매정스레 행동하던 그의 모습, 그런데 지금은,...

눈굽이 달아올랐다.

그때부터 윤정은 때없이 그를 마음에 떠올려보곤 했고 그가 생각키워질 때면 자기도 모르게 경운호수가를 찾아 잔잔한 물결위에 추억의 쪽배를

실어 보군했다....

빠스는 또 한굽이 산굽이를 예돌아갔다.

푸르게 자란 가을무우밭이 펼쳐졌다. 배추들은 통이 크게 우듬지들을 버짙오리로 묶어주었는데 동이처럼 배가 불렀다. 그 다음엔 과수밭이 나타났다.

빨강계 익은 사과알들이 해빛에 반짝거렸다.

과수밭에서 장난치던 애들이 경비원아바이의 노한 인상에 와- 하고 풍겨나는 모습이 보인다.

빠스안에서 꺾꺾 웃는 소리가 났다.

《저 녀석들, 사과가 한창 단맛이 들 때인데...》

《그게 가을풍경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윤정은 그 말이 별로 가슴에 마쳐왔다.

가을풍경, 무르익는 계절,...

자기들의 사랑도 한창 무르익어가고있었다.

그런데 누가 알세라, 엇불세라 남몰래 무르익혀온 그 사랑의 열매가 결혼이라는 수확철에 문명 떨어진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알찌근해졌다.

(그 동무의 병이 심하지는 않는지...)

3

동글넙적한 돌이 듬섬듬섬 놓인 징검다리를 휘감으며 흐르는 내가를 마주하고 버드나무숲속에 서있는 온천료양소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숲속아래 드문드문 널려있는 너럭바위우에서 방금 온탕을 끝낸 룡양생들이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근로자들의 룡양소였다.

윤정은 바구니에 빨강계 익은 고추를 따들고 마주오는 한 녀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 ... 군인들이 드는 룡양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언덕을 넘어가면 소나무 우거진 한가운데 아담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군인들이 드는 룡양소라우.》

녀인은 친절하게 손새를 써가며 알려주었다.

녀인의 말대로 다박술 우거진 등성이를 넘어서니 숲숱밑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단층건물이 보였다.

윤정은 조금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걸음을 다그쳤다.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 룡양소 건물앞에서 빨간 수건을 머리에 동인 처녀가 코노래를 부르며 꽃밭을 가꾸고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을 보세요?》

처녀가 허리를 폈다. 오목 들어간 눈이 새물거리며 웃는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 제가 여기 접수원이예요. 어떻게?...》

언제나 웃음으로 손님을 맞아주는데 습관된 처녀같았다.

《저... 여기 룡양을 온 군관동지를 만나러 왔습

니다. 문청남이라고...》

문청남의 이름을 부르며 윤정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해짐을 느끼었다. 처녀는 인상적인 오목눈을 깜박거리더니 고개를 가웃했다. 아마도 이름이 인차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처녀는 급히 접수구로 달려가 접수대장을 펼쳤다.

《문청남이라고 했던가요?》

《예.》

처녀는 다시 고개를 가웃하더니 접수명단을 밑으로부터 다시 올려놓기 시작했다.

《문청남, 문청남...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한 20 일경이라구요? 이상한데. 여긴 분명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접수대장을 두번이나 간간히 훑어본 처녀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윤정은 얼른 주머니에서 전보장을 꺼내보였다. 그것을 유심히 읽어보던 처녀는 다시 고개를 가웃했다.

《이 전보에는 어느 룡양소라고 밝힌것이 없구만요. 여기 온천지구에는 근로자료양소, 탄광료양소를 비롯하여 여러 룡양소들이 있습니다.》

윤정은 그만 얼떨떨해지고말았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처녀에게 사정했다.

《저... 그 동문 분명 군관이니 ... 꼭 여기에 있을겁니다.》

《접수원이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긴 멀리서 왔는데. ... 또 찾아보지요.》

처녀는 여전히 웃음을 띄우며 접수대장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아예 낡은 대장까지 꺼내보았다. 행여나 하여 그와 접수대장을 번갈아보던 윤정은 그가 마지막장을 덮어버리자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윤정은 돌아섰다. 그는 분명 여기 룡양소에 오지 않았다. 어디 갔을가. 기가 막혔다.

(정말 언제 봐야 덜통하거던. 몇글자 더 쓸 시간인 그렇게도 없당? 어느 룡양소라는것을 알아야 찾아갈것이 아닌가.)

아무리 소요공부까지 하며 꼼꼼해지려 한다 해도 천성적인 성미는 어쩔수 없는 모양이었다.

윤정은 맥없이 다시 등성이를 넘어왔다.

손에 든 트렁크가 별로 더 무거워진것 같았다.

《이젠 어쩔 줄을가. 군인이 근로자들의 룡양소에 갔을리 만무하고... 그럼 그는?...》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던 윤정은 문득 한가지 떠오르는 생각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이왕 왔던바치고 여기에서 치료법 몇가지를 배워가지고 가자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다른 룡양소에 간것만은 사실이니 집에 가서 구체적인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찾아가면 될 것이었다. 병이란 깊어지면 질수록 고치기 힘든 법이었다. 그때문에 윤정은 걸음발을 재우치며 근로자료양소로 향했다.

《아니, 왜 여기 있어요?》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기에 돌아보니 바구니에 고추를 담아가지고가던 그 녀인이었다. 그는 룡양소에서 나오는 길인듯싶었다. 윤정은 어설픈 미소를 띄우며 머리를 숙이었다.

《전 그저 좀... 여기 룡양소일을 보십니까?》

너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내 여기 룡양소에서 경리일을 본다우. 그런데 사람을 아직 못 만난게지?》

《예, 이제 차차...》

윤정은 말끝을 얼버무리고말았다. 그리고 너인에게 온천의 치료법에 대하여 물었다.

《여기 온천물이 타박이나 그러루한 외과상처치 료에만 쓰입니까?》

너인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처녀는 온천이 처음인가보구만. 여기서는 타박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병후유증도 다 치료한다네. ... 참 저기 은행나무밑에 서있는 어린 처녀애가 있지요?》

너인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니 예닐곱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애가 꽃밭에서 강충강충 뛰며 잡자리를 쫓고있었다.

《저 애가 바로 작년 이맘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앓은병이로 왔던 애인데 지금은 저렇게 성한 사람 못지 않게 뛰어다니지요.》

너인은 수다스러운편이었다. 지금껏 온천자랑을 하지 못해 몸살이 난 모양이었다.

《옛날옛적 종달새 한마리가 부러진 다리를 이곳에서 고쳐가지고 하늘을 날아올랐다 하여 이 온천을 종달온천이라 부른다우. 이 온천엔...》

그때 근로자 룡양소 접수실쪽에서 문이 벌럭 열리더니 한 아버지가 소리쳤다.

《체네동무!》

윤정은 의아해서 앞뒤를 둘러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저를 찾습니까?》

《그렇소... 혹시 체네 봉천시에서 오지 않았소?》

《예?》

윤정은 눈이 커다래졌다. 처음 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행처를 알아 하는 생각에서였다.

《체네 이름이 심윤정이지?》

《어마나, 제 이름을 어떻게?...》

《옳거니, 이제야 <명령>을 집행했구만.》

아버지는 접수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부둥부둥하고 혈색이 좋은 아버지였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서 윤정의 트렁크를 찾아줘었다.

《글쎄 우리 룡양소에 와있는 한 군관동무가 나한테 예쁜 처녀를 찾아낼데 대한 <특별과업>을 주지 않겠나? ... 이름은 심윤정, 얼굴은 가름하고 눈은 반달형, 입은 크지 않은데 입술이 도톰하다... 허허.》

아버지는 특이한 《과업》을 《수행》한것이 자랑스러운듯 어계를 들썩이며 웃었다. 윤정은 눈을 깜박거렸다.

《아니, 그럼 청남동무가 여기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때야 곁에 있던 너인도 《그럼 일을 잘 보라구.》 하며 식당쪽으로 갔다.

《그래. 그 군관동무의 이름이 문청남이지. 눈이 억실억실하구 여기 귀밑에 퉁알만한 기미가 있구...》

윤정은 한숨이 호-하고 나갔다. 룡양소에 있다

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윤정은 아버지의 손에서 트렁크를 다시 받아들였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어디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저기 4호동 2호실에 그 사람의 어머니가 있네. 치료를 받고있지. 자, 어서 가보라구.》

윤정은 몸을 흔췄했다.

《어머니라니요? 그 동무의 어머니가?》

《그럼 그 사람이 무엇때문에 여길 왔겠나.》

윤정은 눈을 배나 크게 떴다.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떠나기 전날도 자기의 집에 왔다간것이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며칠전부터 와있다는건.

《사람이 참 진국이야. 옛날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지만 그 군관처럼 어머니에게 극진한 아들은 쉽지 않을거네.》

무슨 사연이 꼭 있는듯싶었다. 윤정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털어버리며 호실로 향했다. 문앞에 이르러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히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들어오시우.》

너인의 석실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문을 여니 50 대의 한 너인이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아마 하반신을 못쓰는 너인인듯 했다.

《누굴 찾으?》, 《저 여기 문청남이란 사람을...》, 《내가 그의 어머니라우.》

《네?》

정작 그 말을 들으니 윤정은 몹시 당황했다.

너인은 침대우의 이불을 한옆으로 밀어내며 어서 들어오라 손짓했다.

《정말 귀한 사람이 왔구만. 원 사람들두...》

너인은 마치 윤정을 기다리길라도 한 사람처럼 반가와했다.

《그러니 새아기는 봉천시에서 왔겠구만.》

《예.》

《그러니 나때문에 새아기까지...》

윤정은 울먹이며 하는 너인의 말뜻이 이해되지 않아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고맙네, 고마워, 이 늙은게 뭐라고 ...》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야 청남동무의 연락을 받고 왔는데 ...》

《알만 하네. 우리 딸애가 오빠한테 편지만 쓰지 않았어도 청남이 그 사람이 휴가를 가는건데 ... 용서하라구.》

이윽고 마음을 진정한 너인은 자기가 온천으로 오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찍 남편을 잃은 너인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직장일을 하다가 뜻밖의 일로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환절기만 되면 상처자리가 도져 자리에 눕곤 했다. 그날도 너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딸애의 간호를 받으며 자리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이 있는 부대지휘관이 불쑥 집에 들어섰다. 너인은 딸애를 꾸중했다.

그가 집안소식을 어머니 몰래 오빠에게 전달했

다는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때문에 지휘관이 바쁜 걸음을 하게 했으니 죄송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지휘관에게 이젠 아무 탈이 없다고, 괜찮다고 거듭 말하는데도 지휘관은 군병원과 진료소의 병력서까지 다 료해하고도 모자라 무작정 자기를 데리고 온천으로 왔다는것이다.

료양소접수대장에는 친어머니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정성다해 돌봐주고있다고 너인은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정말 친자식인들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나. 다리가 강직되었다고 짬만 있으면 주물러주고 좋다는 고려약들을 다 구해오니... 그것도 미안하기 그지없는데 또 이렇게 새내기까지 불러왔구만. 사람두...》

윤정은 가슴이 뭉클했다. 순간에 모든것이 리해되었다. 그러니 그는 곧장 이 너인의 집으로 간것이다. 병사의 어머니를 위해서...

리해는 되면서도 마음의 웅이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연을 연락했으면 그렇게 도 애를 태우지 않았으련만...

울곧지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부터 이 어머니를 자기가 맡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일감에 눈길이 갔다.

윤정은 우선 팔레감들을 걷어안고 방안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던 윤정은 멀리에서 오는 청남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약초로 보이는 청신한 풀포기 한단이 옆구리에 들려져있는것으로 보아 산에 올라갔던 모양이었다.

윤정을 띄여본 청남의 어글어글한 눈에 반가움과 기쁨이 확 피여올랐다.

《윤정동무, 빨리 왔구만. 정말 반갑소.》

방금전까지 그를 만나면 옥땀했던 속을 터쳐놓으리라 마음다졌는데 웃음이 활짝 핀 그의 모습을 보니 그 생각은 가문없이 사라졌다.

《건강하셨어요?》

청남이 벌썸 웃으며 한손을 째 껴보였다.

《나야 이렇게 건강하지 않소, 보다싶이...》

《그래요?》

윤정은 자기를 다잡았다. 그는 일부러 새초롬한 표정을 짓고 깔끔히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껏 버르던 말들이 비로소 생각났던것이다.

《그럼 됐구만요.》

윤정은 말없이 그의 옆을 지나쳐 개울가로 나갔다.

돌변한 윤정의 태도에 어안이 뻥뻥해진 청남은 황황히 약초들을 호실에 가져다 놓고 개울가로 따라나왔다.

《윤정동무. 왜 그러오? 성났소?》

윤정이 팔레를 하는데 청남이 옆에 있는 돌우에 걸터앉으며 그답지 않게 좀자르다가 물었다. 윤정은 개울물에 팔레를 와락와락 휘적시며 돌아보지도 않고 내쏘았다.

《성나지 않을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수가 있어요?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중에 도 없지요.》

청남은 그제야 리해되는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집어 까닭없이 개울물에 던져넣었다.

《첨병!》하는 물소리가 유별히 크게 들려왔다.

주얼주얼 흐르는 개울물은 그들이 일으킨 파문을 순간에 지워버렸다. 청남은 나직이 속삭이였다.

《어쩌겠소. 나도 사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견못했소. 휴가받고 떠나면서 중대의 어린 병사가 집에서 온 편지를 받고 별로 얼굴색이 좋지 않기에 잠간 집에 들러보니 그의 어머니가 앓고있지 않겠소. 중학교에 다니는 녀동생이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병원과 진료소에 알아보니 다리에 강직이 온다면서 온천료양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소. 병원에서 료양권을 주었지만 집에는 학교에 다니는 누이동생뿐이니, ...

어떻소. 이런 경우에도 나는 모르는척 하고 휴가를 즐겁게 보내야만 옳겠소?...

병사의 얼굴에 그들이 지고 가슴에는 걱정이 차는데...

물론 주변사람들의 고마운 손길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 정상을 내가 목격한 이상 나의 심장이 허락치 않았소.

아마 그런 정황에 동무가 섰다고 해도 달리는 행동하지 않았을게요.》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순간의 동정과 인정만이 아닌 사심이 물들지 않은 참사랑이 마음에 뜨겁게 미쳐왔기때문이었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성실하고 고지식하고 가슴뜨거운 인간, 이런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한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윤정은 비누거품이 가득인 팔레감을 개울물에 휙휙 행구어냈다.

맑은 개울물로 비누거품이 동동 떠내려간다.

때물도 순간에 빠져나갔다.

윤정은 깨끗해진 팔레를 널찍한 돌우에 올려놓으며 마음의 웅이가 있는것처럼 토라진 소리를 했다. 가슴은 후터워지는데 왜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가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믿고싶고 사랑하는 사람이여서 더 엇드레질을 하게 되는지 ...

《그런데 전보는 뭐예요? 군인들이 드는 료양소인지 근로자료양소인지 밝히지도 않고... 날 끌탕먹이려고 그랬지요? 산넘어 료양소에 가서 해매이게...》

청남이 눈이 등그래졌다.

《음? 내가 그걸 안했던가?》

《에이, 덜통한 사람...》

윤정은 두손으로 물을 한웅큼 떠서 청남의 쪽에 한껏 뿌렸다.

그것은 그대로 그에게 쏟고싶은 윤정의 사랑이었다.

《엏, 차거워. 이거 왜 그러오?》

윤정은 그가 기겁을 하는것이 재미나 물싸움을 하듯 마구 물을 뿌려댔다.

《아니, 이거 왜 그러오? 말로 하지요, 말로...》

청남이 팔굽을 들어 얼굴을 가리우며 숨넘어가
는 소리를 했다. 윤정은 어느새 마음이 천진한
소꿉시절로 되돌아가는 듯싶었다.

그는 짹짹거리며 연방 물벼락을 들썩였다.

《동문 찬물을 맞아보아야 정신차려요.》

《아, 그만그만... 됐소. 이거 옛날 어느 사나운
녀인이 대철학자에게 찬물소랭이를 퍼붓군 했다
더니 내가 그 격이 됐군.》

《뭐예요? 내가 뭐 어쨌다구요? 다시 말해보라
요.》

《아, 아니... 윤정동무야 왜 찬물을 끼얹겠소.
따뜻한 물, 아니, 설설 끓는 뜨거운 물을 퍼붓겠
지.》

《이 동무가 정말...》

《아, 아니요. 행복이요, 행복.》

《호호호.》

《하하하.》

둘은 만시름을 날려보내며 마음껏 웃었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럭바위우에 나란히 앉았다.

《윤정이. 앞으로 날 자주 깨워주세요. 이 덜통
한 성미를 꼭 고치게...》

《나한테야 아무러면 뭐래요? 병사들의 생활에
덜통하지 말아야지.》

청남은 윤정의 모습을 정겹게 지켜보다가 그의
손을 꼭 힘주어 잡아주었다.

《고맙소.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병사들인데 그
래서야 안되지.》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병사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입속으로 뇌여
보았다.

새길수록 무겁게 안겨드는 말이였다,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병사들을 위해 바치는 청
남의 복무의 하루하루는 평범한 나날들이였다.

그에게 차례진 휴가기간도 누구나 받아안게 되
는 평범한 나날중의 순간이였다.

그러나 자기에겐 차례진 행복의 순간도 병사의
그들을 가시고 병사의 밝은 웃음 위해 바쳐진 날
이여서 결코 평범한 날로 되지 않았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동지를 위해 목숨도 아
낌없는 참다운 동지애가 태어나고 우리의 일심단
결이 꽃피나며 그 위대한 힘에 받들리운 총대의
위력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소중하여 청남은 평범한 나날을 결코
평범하게 살지 않고있으며 그런 자각을 안고있기
에 그의 삶은 참된 인생의 봉우리로 끝없이 승화
되어가고있었다.

그것은 초소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윤정의 가
슴에 군관의 안해만이 아니라 병사들의 친누이,
《중대의 어머니》로 가정의 꽃발을 가꾸어야 함을
인생의 진리로 새겨주고있었다.

어느덧 황혼도 스러지고... 검푸른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개, 두개 또 한개...

온 하늘이 별천지로 변했다.

태양의 빛발을 빌어 반짝이는 별들은 태양의
위성되어 자기 궤도를 변심없이 돌고있었다.